학파

도서출판 **리버티**에서 낸 역서

≪경제 모형과 방법론≫

≪공공선택론 입문≫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발견≫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

≪자유 사회의 기초≫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자유 101≫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

≪애덤 스미스 입문≫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아인 랜드 개론≫

≪시장의 재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

≪자본주의 개론≫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학파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학파—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21년 1월 11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21

School of Thought-101 Great Liberal Thinkers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19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9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1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21-4 (03300)

차례

• *사상가들* ····· 8
• *지은이에 대해* ····· 18

1 서론 ····· 21

이 책이 다루는 내용 ····· 21
이 책의 대상 독자 ····· 21
이 책이 구성된 방식 ····· 22

2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가들 ····· 23

자유주의자란 무엇인가 ····· 23
자유주의 사상가란 무엇인가 ····· 28
몇몇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논쟁 ····· 28

3 고대와 중세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 31

자유주의의 초기 기원들 ····· 31
중세의 자유 사상들 ····· 33

4 근대 초기 사상가들 ····· 36

5 이성의 시대 ····· 53

6 혁명가들과 급진주의자들 ····· 79

7 개혁의 시대 ····· 103

8 근대 시대 ····· 135

9 자유 경제와 사회 ····· 148

10 오늘날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 183

11 결론 ····· 199

자유주의 논쟁 ····· 199
이것은 자유주의 세계인가? ····· 200

12 101개의 덧붙인 자유주의 인용문 ····· 202

IEA에 대해 ····· 222

• *옮긴이 후기* ····· 224
• *옮긴이에 대해* ····· 227

사상가들

고대와 중세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1] 노자 (약 600 BC)

사회의 자생적인 조직

[2] 페리클레스 (495-429 BC)

자유 무역과 자유 이동의 편익

[3] 장자 (369-286 BC)

입법자의 지식에 대한 한계

[4] 아소카 대왕 (304-232 BC)

종교적 및 정치적 관용

[5]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자연법 전통

[6] 이븐 할둔 (1332-1406)

재산권과 유인의 중요성

[7]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1486-1546)와 스콜라 철학자들

자연권과 재산권

[8]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1548-1617)

국가 정당성의 한계; 자연권

[9] 악바르 1세 (1542-1605)

종교적 관용

근대 초기 사상가들

[10] 에드워드 쿡 경 (1552-1634)

왕권에 대한 한계; 피고인의 권리; 독립적인 판사의 필요

[11] 휘호 흐로티위스 (1583-1645)

자기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

[12] 토머스 홉스 (1588-1679)

자기 보호권; 사회계약론; 폭군을 폐위시킬 권리

[13] 존 밀턴 (1608-1674)

언론의 자유와 양심

[14] 존 릴번 (1614-1657)과

[15] 리처드 오버턴 (약 1599-1664)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 법 앞의 평등

[16] 앨저넌 시드니 (1622-1683)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전제적 법률들에 저항할 권리

[17] 존 로크 (1632-1704)

국가의 권력들은 개인들로부터 도출된다;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

[18]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1632-1694)

자연법의 사회성 기초; 권리들은 중앙 당국을 불필요하게 한다

[19] 윌리엄 윌러스턴 (1659-1724)

재산권들의 원칙들; 생명권들과 행복의 추구

[20] 존 트렌처드 (1662-1723)와

[21] 토머스 고든 (약 1691-1750)

자유주의 원칙들을 거듭 단언함으로써 미국 혁명가들을 고무하기

이성의 시대

[22] 버너드 맨더빌 (1670-1733)

사회의 기초로서의 자기 이익; 이타주의는 유인을 파괴한다

[23] 몽테스키외[샤를-루이 드 세콩다] (1689-1755)

권력 분립; 적법 절차; 정부들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서의 자유무역

[24] 볼테르[프랑수아-마리 아루에] (1694-1778)

부패의 비판; 도덕에서 이성의 역할; 법의 지배; 언론의 자유

[25] 프랑수아 케네 (1694-1774)

중상주의의 비판; 자유를 통한 사회적 조화; 자유로운 상업

[26] 벤저민 프랭클린 (1706-1790)

미국 독립; 자연권들; 건전한 화폐; 무역과 평화

[27] 데이비드 흄 (1711-1776)

이성이 아니라 효용에 기반을 둔 사회; 재산권들; 제한된 정부

[28] 애덤 퍼거슨 (1723-1816)

자생적 질서; 분업; 혁신과 성장

[29] 애덤 스미스 (1723-1790)

반중상주의; 거래의 상호 이득; 보이지 않는 손; 정의

[30] 리처드 프라이스 (1723-1791)

여성의 권리들; 정부의 계약 기초; 선거 개혁

[31] 이마누엘 칸트 (1724-1804)

보편적인 자유권;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개인들; 법의 지배

[32] 안-로베르-자크 튀르고 (1727-1781)

균형 예산; 통제들의 폐지; 주관적 가치 이론

[33] 안데르스 쉬데니우스 (1729-1803)

자유 무역; 자기 이익; 언론의 자유; 규제 해제

[34] 조지프 프리스틀리 (1733-1804)

언론의 자유; 종교적 관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노예제 반대

혁명가들과 급진주의자들

[35] 토머스 페인 (1737-1809)

미국 독립 혁명의 옹호론; 관용; 도덕적 평등; 공화주의

[36] 체사레 베카리아 (1738-1794)

처벌 이론; 형벌 개혁; 법률 개혁

[37] 토머스 제퍼슨 (1743-1826)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 폭군을 폐위할 권리; 종교적 관용; 출판의 자유

[38] 니콜라 드 콩도르세 (1743-1794)

공공선택 문제들; 여성 참정권; 인종적 평등

[39] 제러미 벤덤 (1748-1832)

공리주의; 남녀평등; 합리적인 처벌; 권리들의 비판

[40] 제임스 매디슨 (1751-1836)

권력 분립; 재산으로서의 권리들; 징병에 대한 반대

[41] 캐롤라인의 존 테일러 (1753-1824)

자연권들; 제한된 국가 하에서의 자치

[42] 앙투안 데스튀트 드 트라시 (1754-1836)

이데올로그들; 재산권들; 주관적 가치; 반(反)인플레이션; 반(反)보조금

[43] 윌리엄 고드윈 (1756-1836)

무정부주의; 공리주의; 도덕적 평등

[44]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759-1797)

여권주의; 평등권들; 공화주의

[45] 제르멘 드 스탈 (1766-1817)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재산과 권리들; 입헌 군주제

[46] 빌헬름 폰 훔볼트 (1767-1835)

도덕성 발달에 필수적인 자유; 야경국가

[47] 벵자맹 콩스탕 (1767-1830)

헌법적 견제와 균형; 불법 통치자들에 저항할 권리

[48] 장-바티스트 세 (1767-1832)

세의 법칙; 공급측 경제학; 자유주의적 진보 유인들

[49] 데이비드 리카도 (1772-1823)

경제 이론; 자유 무역; 비교 우위

[50] 제임스 밀 (1773-1836)

법률과 교도소 개혁; 공리주의; 관용; 의회 개혁

개혁의 시대

[51] 윌리엄 엘러리 채닝 (1780-1842)

성 평등; 생명권; 노예제의 폐지

[52] 사라 그림케 (1792-1873)와

[53] 안젤리나 그림케 (1805-1879)

노예 폐지론과 여성의 권리들

[54]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1801-1850)

보호무역주의 반대; 자유 무역과 투자; 기회비용

[55] 해리엣 마르티노 (1802-1876)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허구적 설명들

[56] 리처드 코브던 (1804-1865)과

[57] 존 브라이트 (1811-1889)

자유 무역의 편익들; 맨체스터 자유주의; 곡물법들의 폐지

[58] 알렉시 드 토크빌 (1805-1859)

헌법 개혁들; 양원제 정부; 과반수 규칙에 대한 한계

[59]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1805-1879)

노예 폐지론; 여성의 권리들; 소극적 저항

[60]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선택과 책임; 다수의 횡포; 무해 원칙

[61] 해리엣 테일러 밀 (1807-1858)

여성 교육과 선거권; 근로자 공동 소유권

[62] 라이샌더 스푸너 (1808-1887)

규제 해제와 경쟁;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무정부주의

[63]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17-1862)

시민 불복종; 무정부주의; 노예 폐지론; 과반수 투표의 불의

[64] 프레더릭 더글러스 (1818-1895)

노예 폐지론; 인간 선택과 책임

[65] 구스타브 드 몰리나리 (1819-1912)

무정부 자본주의; 국가, 권력 그리고 특권의 비판; 민간 경비

[66] 허버트 스펜서 (1820-1903)

자유와 진보; 사회의 진화; 정치적 권리들; 보통 선거권

[67] 존 엘리엇 케언스 (1823-1875)

경제학적 방법; 불완전 경쟁; 노예제의 경제적 결함

[68] 에드워드 앳킨슨 (1827-1905)

노예 폐지론; 반(反)제국주의; 자유 무역

[69] 조제핀 버틀러 (1828-1906)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노예 해방; 성매매방지법률들의 개혁

근대 시대

[70] 액턴 경[존 댈버그-액턴] (1834-1902)

권력은 부패한다; 최고의 목적으로서의 개인;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71] 오버론 허버트 (1838-1906)

주의주의(主意主義); 유일한 정부 역할인 보호

[72] 헨리 조지 (1839-1897)

토지 가치세

[73] 카를 멩거 (1840-1921)

오스트리아학파 경제 이론; 방법론적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74] 브루스 스미스 (1851-1937)

보수주의적인 전통과 자유주의적인 전통; 간섭하는 정부에 대한 반대

[75] 벤저민 터커 (1854-1939)

무정부주의; 재산권들; 규제와 정부 제공의 종식

[76] 볼테린 드 클레어 (1866-1912)

무정부주의적 여권주의; 성 역할과 결혼의 비판

[77] 앨버트 J. 녹 (1870-1945)

급진적 반국가주의; 국가의 반(反)사회적 본질

자유 경제와 사회

[78] 루트비히 폰 미제스 (1881-1973)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사회주의의 비판; 경기 순환; 경화

[79] 프랭크 나이트 (1885-1972)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이다; 시장과 정치 양쪽 다 결함이 있다

[80] 이사벨 패터슨 (1886-1961)

법률들에 질식당하는 창의성; 규제는 독점을 창설하고 보호한다

[81] 로즈 와일더 레인 (1886-1968)

개인의 자유들의 국가 침식; 자유로운 사람들의 창의성

[82] 발터 오이켄 (1891-1950)

질서 자유주의와 독일 경제 기적

[83] 수잔 라 폴렛 (1893-1983)

리버테리언 여권주의의 경제적 기초

[84] F. A. 하이에크 (1899-1992)

자생적 질서; 합리적 계획에 대한 한계; 신용 순환

[85] 카를 포퍼 (1902-1994)

폭정의 역사주의적 근원; 허위 과학과 불관용; 관용

[86] 아인 랜드 (1905-1982)

객관주의; 생명에 기반을 둔 윤리와 정치; 진보는 자유가 필요하다

[87] 이사야 벌린 (1909-1997)

단일의 도덕적 혹은 정치적 진실은 없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88] 로널드 코스 (1910-2013)

거래 비용; 재산권들과 시장 결과들

[89]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통화주의; 규제는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준다; 스쿨 바우처; 선택

[90] 제임스 M. 뷰캐넌 (1919-2013)과

[91] 고든 털럭 (1922-2014)

공공선택학파; 기득 이해 관계자들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정부 실패

[92] 머리 로스버드 (1926-1995)

무정부 자본주의; 자유로운 통화 발행

오늘날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93] 게리 베커 (1930-2014)

사회학적 쟁점들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

[94] 이즈리얼 커즈너 (1930-)

기업가 정신의 역할; 경제 이론에서 동학의 중요성

[95] 줄리언 L. 사이먼 (1932-1998)

시장들은 어떻게 부족을 물리치는가;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인구

[96] 엘리너 오스트롬 (1933-2012)

공공재 관리에서의 자생적 질서

[97] 월터 윌리엄스 (1936-2020)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리버테리어니즘; 인종 법률들의 실패

[98] 로버트 노직 (1938-2002)

최소 정부 국가; 정치 이전의 권리들; 재분배의 불합리성

[99]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 (1941-)

발전에서 재산권들과 제도들의 중요성

[100] 데어드러 맥클로스키 (1942-)

경제 성장에서 자유주의 가치들의 역할

[101] 데이비드 D. 프리드먼 (1945-)

무정부 자본주의; 사법(私法); 법과 질서에 필요하지 않은 국가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세계의 지도적인 정책 싱크탱크들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시간주 힐스데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밸리 포지의 자유 재단(Freedoms Foundation of Valley Forge)이 수여한 자유 메달(Freedom Medal)과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UK 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의 과거 수상자인 버틀러는 현재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의 간사이다.

에이먼은 선구적인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아인 랜드에 대한 개론서들을 포함한 많은 책의 저자이다. 그는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선택론,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관한 입문서들도 출판하였고, 게다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과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도 출판하였다. 그의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2014년 피셔 상(Fisher Prize)을 받았다. 그는 ≪40세기의 임금 및 가격 통제들(Forty Centuries of Wage and Price Controls)≫과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는 인쇄,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빈번한 기고자이다.

1 서론

이 책이 다루는 내용

이 책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약간의 지도적인 사상가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한다.

이 *자유주의자들*(liberals)—(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한다—은 모두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강압의 사용을 극소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어떤 정부 역할이든 얼마나 커야 할지에 관해 그들은 견해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거의 혹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많은 사람은 어떤 정부 권한이, 특히 방위, 치안 그리고 사법(司法)의 제공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 혹은 경제생활에서 더욱더 넓은 정부 역할을 본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정치, 정부, 사회 제도들, 자본주의, 권리들, 자유 그리고 도덕에 관한 공개 토론에 관심이 있으면서 토론의 친(親)자유 측면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총명한 일반 독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사회의 원칙들을 널리 이해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형성한 사상들, 사상가들 그리고 학파들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

되었다. 그것은 이 지식을 학문적 양식(樣式)의 각주들, 참고 문헌들 혹은 용어 풀이들 없이 알기 쉬운 말로 제공할 작정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또한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그리고 철학의 중등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일단의 급진적인 사상들과 책임이 있는 사상가들에 대한 간결한 소개를 제공한다. 이 안에는 사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보에 근거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자극할 많은 것이 있다.

이 책이 구성된 방식

자유주의 사상의 주요 요소들의 윤곽을 그린 후, 이 책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그들의 출생일 순서로 개설한다. 이것은 독자에게 자유주의 사상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관한 약간의 인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의 진로는 직선적인 경로가 아니다. 자유주의는 일단의 교리가 아니라, 일련의 계속 진행 중인 논쟁들이다. 종종 한 쟁점에 진전이 있고, 이것이 그다음 수십 년간 주차되어 있다가, 드디어 어떤 다른 사상가가 그것에 새로운 뜻밖의 전개를 부여한다. 덧붙여서, 몇몇 사상가들은 많은 다른 주제들에 대해 사상을 제공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열거하는 완벽한 방식은 없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이 개인들과 그들의 공헌들에 관한 개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접근법이 선택되었다.

2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가들

이 책에 있는 사상가들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리버럴들(liberals)'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양 집단은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의 우선권을 공유하지만, 미국 리버럴들은 그것[개인적 자유]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생활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국가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한 개입들은 부 혹은 소득 재분배, 근로자들과 산업들에 대한 특별 지원과 보호를 포함하고, 광범위한 공공재들을 제공하며, 시장들을 규제하고, 국민을 그들 자신의 행동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여기서 열거되는 자유주의자들(liberals)도 꼭 마찬가지로 많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동정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정책들을 경계한다. 그들은 그것들이—당국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고 국민을 자유로운 성인보다는 의존적인 아이처럼 취급하여—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정부 개입들이 예견치 못한 해로운 결과들을 가질 수 있(고 보통 정말 가진)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란 무엇인가?

많은 주요 원칙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liberals)을 통일한다.

자유의 극대화.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maximize individual freedom)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자기들의 신념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거래하고, 같이 집회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을 간직하고,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이나 해(害)의 위협 없이 살아야 한다. 그들은 다른 개인들이나 당국으로부터 단지 *필요 최소한의 억제* (minimum necessary restraint)에만 직면해야 한다.

개인의 우선. 둘째,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집합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individual as more important than the collective) 본다. 오직 개인들만이 야망, 목적 그리고 이익을 가지고 있다. 집단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그저 개인들의 모임일 뿐이다. 우리가 개인들의 이익들을 어떤 당국이나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가 사회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에 제물로 바칠 때 개인들은 독재의 위협에 노출된다.

관용. 셋째, 자유주의자들은 *관용*(toleration)—우리가 사람들의 행동들을 그저 우리가 그것들을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옹호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며,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견과 말과 생활양식을 비도덕적이라거나 거슬린다고 여길지라도 그렇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클럽들, 조합들 혹은 정당들에서 회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파괴적인 괴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

도 그렇다. 그들은 널리 비난당하는 (마약, 도박 그리고 매춘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무슨 종교든 자유롭게 신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태반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강제의 극소화. 넷째, 자유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기*(minimize coercion)를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로운 합의로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속시키기 위해 강압이나 강압의 위협을 사용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의 사법권이, 국민을 과세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투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하는 국가의 권력이, 자기의 필수 최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액**턴 **경**이 언급했듯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의 및 제한 정부. 다섯째, 자유주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사상가들은 전혀 정부가 소용없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역할—개인들을 다른 국민으로부터든지 외국으로부터의 폭력과 도둑질에 대해 방어하는 것과 도둑질과 폭력이 일어날 때 사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규칙들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대의 및 입헌 민주주의*(representativ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를 옹호한다. 이것은 정부가 자기의 권한을 오직 자기를 창설하는 사람들로부터만 얻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그들은 말한다. 정부는 그 사람들의 하인이지, 그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다. 공식적 권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헌법과 대표자들이 관직에서 제거될 수 있는 자유 선거들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최상의 수단이다.

법의 지배. 여섯째, 자유주의자들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역설한다. 법률들은, 성, 인종, 종교, 언어, 가족 혹은 어떤 다른 부적절한 특성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꼭 그만큼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권력자들이 법률을 자기들 자신을 위해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등한 대우, 인신 보호 영장,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적법 절차 그리고 비례적 처벌과 같은 기본적인 사법(司法)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자생적인 질서. 일곱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제도들이,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서보다는, 대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시장, 가격 체제, 화폐, 언어, 정의의 규칙 혹은 관습법을 의도적으로 고안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저 개인들 사이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호 작용들에서 생겨서 진화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의 물결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장 편한 길을 찾음에 따라 밟아 뭉개진 작은 길처럼, 그러한 제도들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니다*(human design, but not of human design). 그것들은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종종 고도로 복잡하지만, 그것들을 창설하고 관리하는 데 지도 당국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들—의 예들이다. 참으로, 정부 행동은 그것들을 합리화하기보다 그것들을 더 붕괴

시킬 것 같다.

자유 시장들. 여덟째, 자유주의자들은 부가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에서 개인들의 상호 협동 때문에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번영은 개인들이 물건들을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교환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의 경제 질서는, 정직과 소유권 존중 같은, 간단한 규칙들에서 생긴다.

시민 사회. 아홉째, 자유주의자들은 자발적인 단체들이 정부들보다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품을 더 잘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개인들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개인들이 또한 가족의 성원이자 클럽, 결사, 조합, 종파,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선거 운동 그리고 자선 단체와 같은 집단들의 성원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시민 사회*(civil society)의 이런 자생적인 제도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설된 꼴사나운 제도들보다 협력을 위해 더 크고 훨씬 더 풍부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준다.

권력에 관한 의심.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권력의 타락 효과들에 관해 걱정한다. 그들은 자유 사회를 위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권력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을 얻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본다. 그들은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천사도 아니고, 공익의 불편부당한 옹호자도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오히려, 모두는 자기들 자신의 이익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익들을 증진하는 데 정치 권력을 사용할 유혹이 강하—다.

자유주의 사상가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은 상호 존중, 관용, 불가침, 협동 그리고 자유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교환을 가진 번창하는 자생적 사회 질서를 신봉한다. 대부분은 이것의 기초를,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법(司法)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개인들의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들에 두고 있다. 그들은 자유 언론, 자유 결사, 법의 지배, 그리고 실권자들이 개인의 자유들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정부에 대한 한계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넓은 스펙트럼의 견해들인 채로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쟁점에 의견이 정말 다르다.

몇몇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 논쟁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하여간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명백히,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하도록 허가될 수는 없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자유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당신의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나의 코보다 더 멀리 미치지는 않는다.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또한 강도질, 사기 혹은 신체적 폭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자는 더 큰 선(善・good)이 자유에 대한 몇몇 *추가적인* 억제들—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방위, 사법 그리고 공공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게 강제하거나,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자유와 공공선. 그것은 더 큰 '공공(public)' 선(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슨 억제 수단들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남겨 둔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대답들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이 자유에 대한 많은 제한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러한 억제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추정이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는 점과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또한—정부들이 더 많은 정부와 더 적은 자유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정부들더러 이 쟁점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권리들의 본질과 한계. 몇몇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크게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의 권리들*(individual rights)이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그들은 생명, 자유, 양심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들을, 정부들을 포함하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권리들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지—그리고 권리들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들을 지우는지, 그것들이 언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들을 인간들 본질 일부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의 사회적 유용성이나 일반 행복에 의해 그것들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제한 정부의 참화로부터 우

리를 보호하는 도덕 원칙들(비록 논쟁을 면할 수 없는 원칙들이라 할지라도)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권리들이 도대체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들이라는 개념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런 권리들의 어떤 침해도 항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권력의 억제.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국가에 의한 강압 사용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 권한의 목적과 한계에 관한, 그리고 그것을 한계 내에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논쟁들을 개방한다.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을 막는 법의 지배를 지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권한이 오직 그것이 봉사하는 개인들에서만 생긴다고—그리고 만약 정부가 이 권한을 넘는다면 그런 개인들이 저항하는 것이 정당할지 모른다고—강조한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이런 그리고 많은 다른 질문들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해결된 대답들이 없다. 그러나 하나의 확실한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이 그것들을 논쟁하는 데 정력적이고 혁신적이었으며, 여전히 그렇다는 점이다.

3 고대와 중세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자유주의의 초기 기원들

자유(freedom)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도교에서 이슬람교를 거쳐 불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서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강력한 근원들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Lao-Tzu 혹은 Lao-Tze라고도 번역되는 고대 중국의 학자 **[1] 노자**(老子・Laozi) (약 600 BC)는 도교(道敎)의 창시자였다. 자기의 저작 ≪도덕경(Tao Te Ching)≫에서, 그는 인간 삶이 다른 힘들의 복잡한 균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균형에 간섭하는 통치자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에 간섭하고 손대는 것은 서투르게 작동할 것이고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는 썼다.

> 법률이나 강요가 없으면,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 것이다. . . . 금지들이 더 많이 있을수록, 백성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반포되는 법률들이 더 많을수록, 도둑들과 산적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군(聖君)은 말한다, '내가 아무것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하지 않을 것이니, 백성들이 혼자 부유해질 것이다. . . .'

유럽에서, 고전 그리스와 고대 로마는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었다. 심지어 '민주적(democratic)' 아테네에서조차도, 오직 작은 소수파만 실제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 이익들을 국가의 그것들에 예속시킬 것이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저명한 아테네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 사상을 말했다. 예를 들어, 군 장성이자 웅변가인 **[2] 페리클레스**(Pericles) (495-429 BC)는 법률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정의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자유 무역과 자유 이주의 편익들을 지적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세계에 열어젖히고, 비록 적의 눈이 가끔 우리의 관대함 때문에 덕을 입을지라도, 외국인들이 배우거나 관찰할 어떠한 기회도 외국인 조례들에 따라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관용 그리고 개방은 아테네의 기반을 약화하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것의[아테네의] 위대함을 증대시킨다고, 그는 믿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영향력 있는 철학자 **[3] 장자**(莊子・Zhuang Zhou 혹은 Zhuangzi) (369-286 BC)는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들이 개인적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들을 당국이 감히 국민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로 본다. 장자도 인정했다. 세상은 '통치가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그것은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인도에서도, 황제 **[4] 아소카 대왕**(Ashoka the Great) (304-232 BC)이 자유, 책임, 그리고 정치적 및 종교적 관용을 요구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을, 자기의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집단[브라만, 사문(沙門・Saramanas; 고타마 붓다 시대 불교 등 신흥 형태의 수행자 집단), 크

샤트리아]과 사상[불교, 자이나교(Jainism), 아지비카교(Ājîvikism · 막칼라 고살라를 개조로 숙명론을 주장)]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보았—고 상호 존중과 평화가 전쟁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다.

중세의 자유 사상들

영국에서, 5세기경 이후, 앵글로-색슨족은 잘 발달한 재산 보유권 제도를 두고 있었다. 군주제도 억제되었다. 몇몇 왕들은 귀족 회의(council of nobles), 즉 위탄(Witan · 현인들)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후자는 또한 왕들의 권력도 제한했다. 비록 이런 권리들과 억제들이 1066년에 침략하는 노르만인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졌을지라도, 그것들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재산권들과 정의의 중요한 원칙들을 개설(槪說)한 '대헌장(great charter)'에서 다시 떠올랐다. 차후의 왕들이 자기들 자신의 권력을 다시 주장하려고 시도했지만, 17세기경에, **에드워드 쿡 경**은 ≪대헌장≫ 원칙들을 재생시켰—고 이것들은 오늘날 영어권 세계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사(修士) **[5]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가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을 해설했다. 모든 존재는 자기들의 본성(nature)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natural) 목적과 그것을 최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아인 랜드**는 이런 견해들을 7세기 후에 전개할 것이다.

중동에서와 그곳을 넘어서, 이슬람은—7세기의 그것의 최초 기원들부터—경제적 자유와 기업가 정신에 개방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가치들이 서양에서 존중받기 오래전이었다. 중세 터키 황제들은 같은 시대의 유럽 군주들보다 종종 더 관대했다. 이슬람교 학자이자 법학자인 **[6] 이븐 할둔**(Ibn Khaldun) (1332-1406)은, 정부들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건, 착취가 어떻게 근로, 저축 그리고 진보에 막대한 반(反)유인이 되는지를 이해했다.

> 백성들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재산을 취득하고 벌 유인을 제거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재산을 취득하는 유일한 결과가 그것이 다시 빼앗기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재산을 취득할 유인이 사라질 때, 백성들은 더는 그것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재산권들이 침해되는 범위와 정도는 백성들이 재산을 취득할 노력이 느슨해지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한다.

스페인에서, **[7]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86-1546)의 연구에서 유래하는 *살라망카학파*(School of Salamanca)는 초기 성직자들의 견해들을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르네상스 전개의 현실들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알려져 있듯, 이 *스콜라 철학자들*(scholastics)은 일반적인 자유주의 틀을 개설(槪說)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예수회 수사 **[8]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Francisco Suárez) (1548-1617)는 자연법의 사상을 더 전개했고 그것이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들*(natural rights)을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한된 정부를 찬성하는 주장도 했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공동 목적을 위해 일하는 편익을 본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래서 우

리는 정치적 국가(political state)를 형성하고, 의사 결정 권력을 어떤 왕권에 준다. 그러나 그 왕권이 국민에게서 유래하므로, 국민은 전제적인 군주들을 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초기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사상은 **존 로크**나 **휘호 흐로티위스** 같은 이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스콜라 철학 운동은 두 세기 동안 번창했다. 더 뒤의 회원들은 *경제적*(economic) 자유들에 집중했다. 그들은 사적 소유자들이 재산을 더 잘 돌보고 이것이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근거에서 사적 소유를 옹호했다. 그들은 또한 재화의 가격이 그것을 만들어 내는 비용이 아니라 그것의 수요—사람이 표현하듯이 '공동 추정(common estimation)'—에 달려 있다고도 주장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더 이른 성직자들보다 차입과 이자에 더 호의적이었는데, 신용이 이제 투자(그리고 그저 소비만이 아니라)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그리고 이자율들이 빌려주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무굴 제국의 무슬림 통치자인 **[9] 악바르 1세**(Akbar I)(1542-1605)는 관용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소견을 말하고 있었—고, 종교 재판소가 유럽에서 종교적 반대자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것[관용]을 힌두교도들과 예수회 수사들에 확대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국경을 모르는 것 같다.

4 근대 초기 사상가들

16세기와 17세기의 영국은 자유주의가 급증할 것 같지 않은 장소였다. 종교 분쟁들, 왕조 갈등들 그리고 대외 전쟁들은 튜더 군주들에게 전통적인 영국 자유들에 대한 감수성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1603년에 그들을 계승한 스튜어트 왕가는 더욱 덜 가지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잉글랜드의 관습법 전통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궁정에서 불어를 썼고, 왕들의 절대 주권에 관한 대륙의 사상을 흡수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출을 재원 조달하기 위해 여전히 의회에 돈을 정말 요청해야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절대주의에 몇몇 제한을 가하였다. 그러나 찰스 1세 (1600-1649)는 관세를 부과하고, 강제 공채(forced loans)를 조달하며(그리고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투옥하며), 의회를 중지하고, 봉건적인 세금들을 부활시키며, 전매권들을 판매하고, 오랫동안 잊혔던 법률들의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이것을[의회를] 우회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의회가 결국 재소집되었을지라도, 찰스가 다섯 명의 하원 의원을 체포하려는 실패한 시도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유혈 내전은 찰스의 체포, 재판 그리고 처형으로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호국 경(Lord Protector)' 올리버 크롬웰 (1599-1658)도 마찬가지로 전제적임으로 드러났다. 1660년에 왕정이 복고되었다. 그러나 의회와 찰스 2세 (1630-1685) 및 그의 계승자 제임스 2세 (1633-1701) 사이

의 긴장 상태는 계속되었는데, 후자는 결국 폐위되었고 도망갔다.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으로 알려진 무혈 쿠데타에서, 의회는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화란 지도자 오렌지 공 윌리엄 (1650-1702)과 그의 아내, 제임스의 딸 메리 (1662-1694)에게 공동 주권자가 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헌법적 계약, 1689년 ≪권리 장전(Bill of Rights)≫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치사의 그러한 사건들로 정치 이론가들은 입헌 정부의 기초, 개인들의 권리들 그리고 국민이 전제 정치를 떨쳐버릴지 모르는 상황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 에드워드 쿡 경(Sir Edward Coke) (1552-1634): 영국 법정(法廷) 변호사, 판사 그리고 정치인. **주요 사상:** 왕권에 대한 한계; 의회의 권리들; 자의적 세금의 금지; 피고인들의 권리들; 사법부의 독립; 계약법. **주요 저작:** ≪왕에 대한 진정서(Remonstrance to the King)≫ (1621); ≪권리 청원(Petition of Rights)≫ (1628).

노퍽에서 태어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쿡('쿡(Cook)'으로 발음된다)은 변호사업으로 승진하여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법무상이 되었고 그녀의 계승자,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고등 법원의] 왕좌부(王座部) 장관(Chief Justice of the King's Bench)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양쪽과—그리고 제임스의 계승자, 찰스 1세와—다투었다.

쿡이 엘리자베스 1세와 한 논쟁은 여왕이 내준 '특허권(patents)'과 전매권에 대해서였다. 애초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어, 그것들은 총신(寵臣)들을 보상하고 수입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었었다. 그리

고 영국 군주들은 그것들을 심지어 소금과 같은 일상 제품들로까지 확대했었다. 쿡의 지휘로, 의회는 1601년에 전매권을 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왕권에 대한 이런 구속을 거부했고 계속해서 이런 특혜들을 내줬다. 쿡은 의회의 응답, ≪왕에 대한 진정서≫ (1621)를 썼고, 의회의 권리들을 '영국 신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로부터의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생득권(生得權)이자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1세가 강제 공채를 납부하기를 거부하거나 자기들의 집에 그의 군인들을 숙박시키기를 거부하는 지주들을 투옥했을 때, 의회는 다시 항의했다. 쿡은 유명하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의 집은, 자기의 휴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해와 폭력에 대한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도, 그에게는 그의 성 및 요새와 같다.' 혹은 그것이 오늘날 바꿔 말해지듯이,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다.'

쿡은, 의회의 동의 없이 부과되는 자의적인 구금과 세금에 대해 ≪마그나 카르타≫의 원칙들이 아직도 국민을 보호한다고 의회가 선언하는, ≪결의안(Resolutions)≫을 기초했다. 그는 ≪권리 청원≫ (1628)의 작성을 이끌었고, 국민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상술했으며, *인신 보호 영장* (Habeas Corpus)을 위한 길을 닦았다. 쿡은 또한 피고인들의 묵비권 (right to silence)을 창설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계약법을 전개했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했다.

[11]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 (1583-1645): 화란 법학자 및 정치철학자. **주요 사상:** 자기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들. **주요 저작:** ≪전쟁과 평화의 법에 관하여(On the Law of War and Peace)≫ (1625).

네덜란드에서는, 또 한 사람의 법학자가 역시 권리들의 본질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 휘호 흐로티위스는 많은 비자유주의적 견해들을 신봉하였지만, 자유주의 전통에 유용한 공헌을 한 철학자였다. 특히, 그는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기 보존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권리들을 포함하여, 신이 준 *권리들*(rights)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심지어 국가도—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산을 정당하게 지킬 수 있다. 흐로티위스는 또한 우리의 권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들*(duties)을 부과하는지도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권리들을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아마도 강제적으로) 양도되어야 할 상황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권리들이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그것들이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후의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이 후자의 점을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 비난할지라도, 권리들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견해는 국가 권한이 오직 개개 국민이 자진해서 포기한 권리들로부터만 유래한다는 **존 로크**의 견해에 정말 영향을 미쳤다.

[12]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영국 정치 철학자. **주요 사상:** 자기 보호의 권리; 자유 사회의 실현 가능성; 사회 계약 이론; 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 정부에 대한 한계; 나쁜 정부를 타도할 권리. **주요 저작:**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

홉스는 심지어 휘호 흐로티위스보다 덜 자유주의적이었지만—그의 이상 사회는 전능한 주권자를 특징으로 삼았다—그의 사고의 부분들은 차

후의 자유주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그는 자유에 대한 억제의 *정당함이 증명되어야*(justified)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들이,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지킬 '자연권(right of nature)'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치(自治)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견해는 **애덤 스미스**와 **F. A.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고무하여 자생적인 사회 질서들에 관해 생각하게 하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홉스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추론은 **존 로크**와 같은 차후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 인간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으므로,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서 인간의 자연조건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것이다.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역겹고, 잔인하고, 짧을' 것이다. 간단한 자기 보존은 사람들이 상호 자제에 동의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은 깨질 수 있고, 그래서 사회 계약은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정부 권력도 준비해야 한다. 홉스는 이 *주권자*(sovereign)가 유일한 입법자와 행정가, 종교 및 교육 당국이 되어야 하고, 신민(臣民)들에게 자해를 제하고 어떤 것이든 하라고 명령할 권능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절대주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몇몇 중요한 자유주의 사상들을 개진했다. 첫째, 그는 정부가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정당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개인들은 자기들 권한의 일부를 정부에 이전함으로써 정부를 창설한다. 셋째, 정부는 자기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그것을 창설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만 창설된다. 넷째, 정부는 오직 제한된 권한만 가진다—그것은 그런 개인들이 자살하거나 자해하게 할 수 없다. 다섯째, 그것의 권한은 오로지 그것이 자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는 한에서만 지속한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러한 사상들—홉스의 시대에는 매우 현대적인 전개들—은 차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중요한 재료를 제공했고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의 배후에 있는 지적인 배경을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13]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 영국의 시인, 논객, 그리고 경세가. **주요 사상:** 종교적 관용, 자유 언론 그리고 양심; 암묵적인 계약으로서의 정부. **주요 저작:** ≪이혼론(The Doctrine and Discipline of Divorce)≫ (1643);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1644); ≪시민권력론(A Treatise of Civil Power)≫ (1659).

그의 종교적 서사시 ≪실낙원(失樂園 · Paradise Lost) ≫ (1667)으로 아주 잘 알려진 밀턴은 또한 이혼의 합법성과 도덕성, 종교적 관용 그리고 교회를 정치 당국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에 찬성하는 주장도 했다. 그는 개인들의 정치적 평등을 강조했고 정부를 통치자들과 국민 사이의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으로 보았다.

밀턴은 자유 언론과 [적어도 신교도들(Protestants) 사이의]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고, 만약 사람들이 공개 토론에서 경쟁하는 주장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자유들보다 특히 양심에 따라,' 그는 쓴다,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자

유를 나에게 달라.'

1649년 찰스 1세의 처형 후에, 밀턴은 뒤를 잇는 올리버 크롬웰 공화정부를 지지하는 논객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전제적인 크롬웰의 공개 비판자가 되었고, 그에게 그의 정권이 국민과 맺은 암묵적 계약을 존중하도록 촉구하였다. 비록 민주정체론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더욱 자유주의적인 공화국['자유 공화국(free commonwealth)']을 창설하는 것을 꿈꿨다. 그러나 사실상 왕정이 복고되었다.

[14] 존 릴번(John Lilburne) (1614-1657)과 **[15] 리처드 오버턴**(Richard Overton) (약 1599-1664): 영국 민권 활동가들['수평파(Levellers・레벌러스)']. **주요 사상:** 생명, 자유 및 재산의 자연권들; 피고인들의 권리들; 종교적 관용; 법 앞의 평등; 민주주의; 국민의 지배를 받는 정부. **주요 저작:** ≪영국의 새 속박의 발견(England's New Chains Discovered)≫ (릴번, 1649); ≪모든 폭군을 향한 화살(An Arrow Against All Tyrants)≫ (오버턴, 1646).

존 릴번의 놀랄 만한 경력은 정의와 권위에 관한 전국적인 논쟁들을 촉발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혐의를 알고 자기들의 고소인들을 대면하며 복죄(服罪)하는 것을 피할 권리들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그 당시의 정부들은 이런 권리들을 부정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권능 안에 있지 않다고, 그는 단언했다.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별명 '자유인으로 태어난 존(Freeborn John)'이 유래한다.

릴번은 자기의 것과 같은 급진적 사상을 억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식적인 검열을 종종 조롱했다. 성법원(星法院・Star Chamber) (국교 반대를 탄압한 비밀 법원) 앞에 데려왔을 때, 릴번은 자기와 판사들이 대등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절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기에 대한 혐의를 알기를 요구했고 자기에게 복죄하게 할지 모르는 선서를 하기를 거부했다. 이 모욕죄들로 그는 벌금을 물었고, 채찍질을 당했으며, 칼(옛날에 죄인의 목과 손목을 끼워 거리에 내놓았던 형틀—옮긴이 주)을 썼다. 그러나 심지어 칼이 씌워지고서도, 그는 자기의 고소인들을 몹시 꾸짖었고, 군중에게 더 많은 팸플릿을 배포하였는데, 결국 3년 더 투옥되게 되었다.

영국 내전 동안, 릴번은 혁명군에 가담했지만, 그들의 종교적 불관용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의회에 소환되었다. 그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하원 의원들의 사치를 공공연히 비난한 것으로 곧 다시 투옥되었다. 후에, 그는 어느 의회 위원회를 '부당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며 . . . 교수형보다 더 나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정한 것으로 추방되었다. 그가 허가받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그는 체포되었고, 또 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릴번의 동료 수평파인 리처드 오버턴도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권리들, 즉 종교적 자유, 자기 소유권 그리고 생명, 자유 및 재산의 자연권들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주교들에 대한 그의 비난들, 불멸의 영혼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a mere fiction)'이라는 그의 불경(不敬)한 견해, 이혼에 관한 그의 자유주의적인 견해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소책자를 그가 출판한 것으로 그도 역시 의회에 소환되는 일을 겪었다.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회의 관할을 거부하여, 그는 투옥되었—지만, 그를 석방하려는 대중 운동들에 이어, 1년 후에 석

방되었—다.

2년 후, 오버턴, 릴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크롬웰의 독재를 공격하고 그를 '새로운 왕(new King)'으로 낙인찍은 팸플릿으로 체포되었다. 그 조사 사건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풍문들로 그들은 다시 체포되었다. 왕정이 결국 복고되었을 때, 오버턴은 자기의 원칙들에 여전히 충실했다—새 정부를 비난하는 팸플릿으로 또다시 투옥되었다.

[16] 앨저넌 시드니(Algernon Sidney) (1622-1683): 영국 정치인 및 공화주의 이론가. **주요 사상:**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전제 정부 및 법률들에 저항할 권리. **주요 저작:** ≪정부에 관한 담론(Discourses Concerning Government)≫ (1698).

시드니는 정부가 필요하지만, 그것의 역할이 '정의와 자유의 수립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국한된다고 믿었다. '자유인들은,' 그는 썼다, '압제적인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상은 영국과 미국 양쪽 다에서 그를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했고, **존 로크**보다 더욱더 그렇게 했다. 그는 스튜어트 군주정의 비판자들에 의해 널리 인용되었고, **존 트렌처드**와 **토머스 고든**을 고무하였는데, 이들의 ≪케이토의 편지(Cato's Letters)≫는 미국 혁명가들을 분기(奮起)시켰다. **토머스 제퍼슨**은 시드니를 미국의 자유의 주요 고안자들 중 한 사람으로 찬양했다.

시드니에게, 정부들은 법 위에 있지 않았다. '정당하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는 ≪정부에 관한 담론≫ (1698)에서 썼다. 시드니는 절대 권력을 악으로 간주했고, 국민

은 자기들의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주어져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 그는 당파심을 초월했다. 공화주의자로서, 그는 찰스 1세를 재판하는 직위에 앉았지만, 왕의 처형을 보복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서 반대했다. 뒤에, (크롬웰이 싫어하는 개혁들을 촉진한 것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크롬웰이 군대를 보냈을 때, 강제로 퇴거당할 때까지 시드니는 자기의 좌석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더욱 뒤에,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또 한 사람의 폭군으로 간주한 찰스 2세의 암살을 꾀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반역죄로 재판받았다. 비록 그에게 불리한 증인이 단지 한 명만 있었지만(법은 두 명을 요구했다), 악명 높은 '교수형을 좋아하는 판사(hanging judge)' 조지 제프리스(George Jeffreys) (1645-1689)가 주도하는 법원은 ≪담론≫을 두 번째 '증인(witness)'으로 받아들였고 시드니는 처형을 위해 보내졌다. 그는 자기의 평생의 행동들이 '인류의 공통 권리들과 이 땅의 법률들을 . . . 타락한 원칙들과 자의적인 권력에 반대하여 . . . 유지하도록 의도되었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17]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영국의 철학자, 내과 의사 그리고 활동가. **주요 사상:** 인간 지식에 대한 한계; 생명과 자유에 대한 자연권들; 정부의 계약적 본질; 정부 권력들은 개인들로부터 유래한다;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폭정을 타도할 권리. **주요 저작:** ≪관용에 관한 서한(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89); ≪통치 2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존 로크는 17세기의 지도적인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간

오성론≫ (1689)은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고전적(classical)' 자유주의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리를 잡아 주는 것은 그의 ≪관용에 관한 서한≫ (1689)과 ≪통치 2론≫ (1690)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우선성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한 한계를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들을 포함하고 있다.

로크는 시골 변호사의 아들이었지만, 지역 하원 의원의 후원 덕분에, 그는 웨스트민스터교(校)(Westminster School)와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Christ Church College, Oxford)를 다닐 수 있었다. 졸업 후에는, 그는 그리스어와 수사학을 가르쳤고, 그다음 과학과 의학에 손을 댔으며,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6), 크리스티안 하위헌스(Christiaan Huygens) (1629-1695) 그리고 다른 저명한 과학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섀프츠베리(Shaftesbury) (1621-1683) 경 밑에서 관직들을 얻었는데, 그를 위해 그는 ≪남북 캐롤라이나의 근본 헌법(The Fundamental Constitution of the Carolinas)≫을 기초했(고 간에 있는 감염된 물혹을 제거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제임스 2세에 대한 섀프츠베리의 적의(敵意)로 그와 로크는 도피해서 망명하였다. 그가 화란과 프랑스에 머무른 여러 해 동안, 로크는 관용에 관한 원문들과 더하여 자기의 ≪인간 오성론≫을 썼다. 종교적 및 정치적 논쟁의 수렁에 빠져, 제임스가 윌리엄과 메리를 위해 폐위되었을 때, 섀프츠베리와 로크는 왕실의 의식용 장식 배(royal barge)를 타고 귀국했다.

그다음에 로크는, 익명으로, 자기의 ≪통치 2론≫ (1690)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제임스 2세의 타도를 정당화했고, 왕들의 '신권(神權 · divine right)'을 비웃었으며, 정당한 정부가, 강압과 폭력이 아니라, 국

민과의 계약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정부 *이전의 자연권들*(natural rights)과 그것[정부]을 창설하는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 달려 있었다.

토머스 홉스처럼, 로크도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를 상상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더 높거나 더 낮지 않은 정치적 평등의 상태일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우리가 신의 피조물이자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소유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인간들 사이에는 종속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신은 명백히 우리가 생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 각각은 생명, 건강 그리고 자유에 대해 신이 주신 자연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연법*(law of nature)은, 인간들의 법들과 같이,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경찰이나, 법원이나, 판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폭력과 강제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반격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불균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의 사법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것을 더 낫게 여길 것이라고, 로크는 주장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property)도 또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재산 자체가 불합리하지는 않다. 신이 우리에게 지구를 공유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 자원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뙈기의 땅을 경작함으로써) 우리의 노동을 자연 자원과 섞을 때, 그 자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인 개인적

재산이 그것과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토지와 재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팽창하는 인구, 자원들의 희소성,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시기심과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자연 상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창설한다고, 로크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들의 몇몇 부분을 국가에 *이전하기로*(transfer) 합의하고, 그것에게 생명, 자유, 건강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그것들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권한을 빌려준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연적 자유를 내던질 유일한 길은,' 그는 썼다, '다른 사람들과 그중에서도 특히 안락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 공동체에 가담하고 결속하기로 합의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권한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consent)에 따라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다음 이 *사회 계약*은 우리에게 구속력 있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침해하면 정당한 정부가 우리 자신의 권리들을 (예를 들면, 투옥으로) 중지해도 좋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거대한 권력은 법들이 결정되는 방법을 매우 중대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계약에 자발적인 한동아리이므로, 모든 사람이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로크는 말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democracy)는 사회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정당한 정부는 과반수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대조적으로, 자기 국민의 의지로 억제되지 않는 정부는 약탈적으로 될 것이고 그들의 권리들을 침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illegitimate) 정부의 국민은 그것에 반항하고

그것을 타도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화되는데,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포식 동물을 죽일지 모르는 것과 같다.

> 입법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파괴하려고, 혹은 그들을 자의적 권력 하의 노예 상태로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은 국민과의 전쟁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국민은 어떠한 더 이상의 복종도 면제되어, 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강압과 폭력에 대비한 공동 피난소에 남겨진다.

그러한 사상은 제임스 2세의 타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포착되었고,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혁명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18]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 독일의 정치 철학자, 법학자 그리고 역사가. **주요 사상:** 자연법의 기초로서의 사회성; 정의와 재산의 권리들은 중앙 권한을 불필요하게 한다. **주요 저작:** ≪자연법과 국민의 법에 관하여(Of the Laws of Nature and Peoples≫ (1672)

자연법과 사회 계약에 관한 푸펜도르프의 주요 저작들은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푸펜도르프는 두 전선에서 **토머스 홉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그는 '자연 상태'라고 생각되는 것이 투쟁의 상태가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을 억제하는 일정량의 타고난 '사회성(sociality)'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회성을 자연법의 기초로

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정한 평화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성을 *강화할*(strengthen)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푸펜도르프는 이 불안한 평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설하는 국가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진 리바이어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려면, 우리는 강력한 중앙 권한이 아니라 개인 간 권리들, 정당한 행위의 규칙들 그리고 소유권이 필요하다. '국가의 의지(will of the state)'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지들에 지나지 않는다.

[19] 윌리엄 월러스턴(William Wollaston) (1659-1724): 영국 신학자 및 철학자. **주요 사상:** 재산권들의 원칙들; 생명권; 행복 추구권. **주요 저작:** ≪자연 종교의 묘사(The Religion of Nature Delineated)≫ (1772).

스태퍼드셔에서 태어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월러스턴은 버밍햄 성직자가 되었다. 그러나 유산으로 그는 철학, 역사 그리고 종교의 연구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게 되었다. 그의 책 ≪자연 종교의 묘사≫ (1722)는 10,000부가 팔렸다. 생명과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권에 대한 그의 강조는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 독립 선언서에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는 그들 개인성의 일부이고, 그들 단독 재산이라고, 월러스턴은 주장했다. 힘과 권력은 어떤 사람이 그것들[생명과 신체]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힘과 권리는 다른 것들이다. 그러나 이성은 보편적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무엇이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도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논리

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 참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 재산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공격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월러스턴은 또한 재산권들의 핵심 원칙들, 즉 *배타성*(exclusivity), *이전 가능성*(transferability) 그리고 *시행 가능성*(enforceability)을 개진하기도 했다. 소유권은 어떤 것의 '유일한 사용 및 처분권'을 함축한다고, 그는 말했다. 재산은 '계약이나 기증'으로 이전될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자기들이 도둑맞은 것—혹은 그것의 대등한 가치—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 존 트렌처드(John Trenchard) (1662-1723)와 **[21] 토머스 고든**(Thomas Gordon) (약 1691-1750): 영국 작가들 및 개혁가들. **주요 사상:** 자연권들과 합의 정부의 원칙들을 당대의 정부에 적용; 미국 혁명가들의 고무. **주요 저작:** ≪케이토의 편지(Cato's Letters)≫ (1720-1723).

1720년과 1723년 사이, 트렌처드와 고든은 138개 신문 에세이의 시리즈인 ≪케이토의 편지≫를 공저했는데, 이것은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비타협적인 공화주의자 비판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에세이들은 당시의 쟁점들에 관한 그것들의 신랄한 견해들과 자유주의 사상의 지적인 논의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게 되었다.

부유한 개혁가인 트렌처드는 재치 있고 표현이 명확한 고든과 처음 ≪독립적인 휘그(The Independent Whig)≫에서 협력하였는데, 이것은 스튜어트 왕가를 왕좌로 복귀시키려는 가톨릭의 시도들을 비난하고 양

심의 자유가 성직자들도 정치인들도 소멸시킬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이라고 주장한 주간지였다.

앨저넌 시드니를 따라, ≪케이토의 편지≫는 큰 정부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부패와 폭정을 맹비난했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데 자연법과 자연권들에 관한 **존 로크**의 이론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남해 회사(South Sea Company)에 그 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남아메리카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내줬을 때 유발된) 1720년 금융 붕괴의 원인을 정치인들, 성직자들 그리고 왕족들의 부정직과 부패를 조장한 부풀고 개입주의적인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정부가 합의에 따른다는 그들의 주장과 대중이 폭정을 떨쳐버릴 권리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케이토의] 편지≫(와 시드니와 로크의 사상)를 미국에서 특별히 인기 있게 하였다.

5 이성의 시대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Charles Edward Stuart) (‘보니 프린스 찰리(Bonnie Prince Charlie)’)의 1746년의 패배는 프랑스식 절대주의로의 복귀의 가망을 끝냈고, 브리튼 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나뉨—옮긴이 주)의 새로운 입헌 군주제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새로운 안정성으로부터, 그리고 1707년의 연합법(Act of Union)에 이은 무역 개방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Scottish Enlightenment)에서,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 같은 새로운 물결의 스코틀랜드 사상가들은 사회의 작동들에 관해, 윤리에 관해, 경제와 과세에 관해, 정치 구조들과 정부 권력에 대한 한계들에 관해,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에 관해 흥미진진한 새로운 사상들을 탐구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조차도, 이런 사상들이 보급됨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권력과 권위에 관해 더 큰 이의 제기가 있었고, 더 많은 비(非)귀족들이 실적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 임명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양쪽 다 정부의 기반을 합리적 원칙들에 둘 것을 시도했지만, 아주 다른 방식들로 전개되었다. 영국의 자유주의는 대륙식 절대주의 권력에 반대하여 보통 사람들의 권리들에 집중했고, 개인주의와 최소 국가를 강조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 자유주의는 널리 보급된 법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제도들을 받아들였지만, 국가를 더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

조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이지만 국가주의적이어서,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정치 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좌파와 종종 관련되었다—비록 이 의견 일치가 후에 **볼테르**, **몽테스키외** 그리고 **벵자맹 콩스탕**의 더욱 로크적인 자유주의로 흔들리게 되었지만.

[22] 버너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 화란계 영국 내과의사, 도덕 철학자, 정치 이론가 및 풍자가. **주요 사상:** 기능하는 사회의 기초로서 자기 이익; 분업; 이타주의가 유인들에 끼치는 파괴적인 효과. **주요 업적:** ≪투덜대는 벌집, 혹은 정직해진 악당들(The Grumbling Hive, or Knaves Turn'd Honest)≫ (1705); ≪꿀벌의 우화(The Fable of the Bees)≫ (1714).

로테르담에서 태어나서, 맨더빌은 자기 생애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다. 그는—충격적으로—사회가 자비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견해를 우스꽝스러운 시 ≪투덜대는 벌집, 혹은 정직해진 악당들≫ (1705)에서 표현했다. 영국의 상태에 관해 욕을 하지만 재치 있는 이 풍자는, 도덕 및 사회 이론에 관한 추가적인 에세이들과 함께, 1714년에 ≪꿀벌의 우화≫로 재출간되었다.

맨더빌의 시들은—꿀벌들이 갑자기 이타적으로 될 때까지는—'만족과 정직의 축복을 받는' 번창하는 꿀벌 공동체를 상상했다. 그때는[이타적으로 될 때는], 자기들을 움직일 개체적 이득과 야망이 없어서, 그들은 게으르고 가난해지게 된다. **애덤 스미스**에 의해 더욱 학술적으로 다듬어지는 그의 요점은—비록 스미스가 자기희생이 해롭다는 맨더빌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했을지라도—자기 이익이, 만약 적절하게 돌려진다면, 혁신과 노력과 그러므로 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탐욕과 같이, 우리의 '사악한(vicious)'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의 복지의 중심이라고, 맨더빌은 주장했다. '악덕(vice)'을 억제하거나 '미덕(virtue)'을 촉진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사회의 작동들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탐욕을 일정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사적인 악덕이 . . . 공공 편익으로 바뀔지 모른다.'

≪사회의 본질에 관한 탐구(A Search into the Nature of Society)≫에서, 맨더빌은 우리의 도덕이 자제, '도덕감각(moral sense),' 혹은 이성에 나타난다는 널리 보급된 이론들을 거부했다. 오히려, 그것[도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의 '해악(evil)'에 직면할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해악은 . . .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만드는 대원칙인데 . . . 해악이 중단되는 순간, 사회는, 비록 전적으로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상됨이 틀림없다.'

이 장난꾸러기같이 자극적인 언어 밑에는, **F. A. 하이에크**가 250년 후에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이론의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복잡한 사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들의 일상 상호작용들에서 진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게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잡한 행동 망을 찢는 위험을 무릅쓴다.

[23] 몽테스키외[샤를-루이 드 스콩다, 드 라 브레드 에 드 몽테스키외 남작](Montesquieu[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75): 프랑스 법률가 및 정치 철학자. **주요 사**

상: 헌법 이론; 권력 분립; 적법 절차; 정의의 원칙들; 무죄의 추정; 정부에 대한 억제로서의 자유 무역. **주요 저작:** ≪페르시아인의 편지(Persian Letters)≫ (1721);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 (1748).

자유와 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몽테스키외의 고도로 독창적인 사고와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에 기반을 둔 그의 혁신적인 헌법 체계는 자기의 책들 ≪페르시아인의 편지≫ (1721)와 ≪법의 정신≫ (1748)을 프랑스와 미국에서 특별히 영향력 있게 하였는데, 거기서 그것들은 혁명 후 정부의 비전을 제공했다.

몽테스키외는 주요 정치 문제를 어떻게 국가 당국의 권력을 억제하고 폭정으로의 미끄러짐을 막을지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존 로크**의 ≪제2론(Second Treatise)≫에 기반을 두고서, 그는 '권력이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도록 권력 분립을 지지하는 주장을 하였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권은, 한 부에 의한 남용이 다른 부들에 의해 억제될 수 있도록, 다른 조직체들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과세할 권력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행정부를 억제할 것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정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부 자체는 두 원(院)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래서 한 원이 다른 원의 결정들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적일 것이지만 법들이 특혜 없이 적용되도록 확실히 하는 데 국한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 무죄의 추정, 그리고 범죄에 적절한 처벌들이 있을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영국이 자기의 군주정을 억제했던 방법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부들이 하여간 거의 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들의 역할이란 우리를 해(害)로부터 보호하면서 우리를 가능한 한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법은 오직 공공질서와 안전만을 역점을 두어 다루고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종교나 생활양식 같은 영역들에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실제 행동들만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지, 그들의 동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들은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일반적이어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지, 자의적이고, 개인적이며,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자기 뒤의 **애덤 스미스**와 같이, 몽테스키외는 상업(특히 대외 무역)에 대한 정부 간섭을 몹시 꾸짖었고, 교환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양쪽 다를 이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및 정복과 달리, 국제 무역은 군대나 경비(經費)의 필요 없이 자기의 편익들을 가져온다. 그것은 또한 정부들의 권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국제 시장들은 개개 국가들이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환율은 많은 국가의 상인들에 의해 정해지지, 어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상업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므로, 정부들은 그것을 방해하기보다 그것을 촉진할 유인을 가진다. 그리고 무역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신용이 있을 필요는 예산 무책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경제 현실은 정치인들의 분에 넘치는 야망들에 대한 유용한 억제 수단이다.

[24] 볼테르[프랑수아-마리 아루에](Voltaire[François-Marie Arouet]) (1694-1778): 프랑스 극작가, 소설가 및 논객. **주요 사상:** 귀족제와 교회 부패의 비판; 도덕 행동에서 이성과 자유의 역할; 관용과 자유 언론; 법의 지배; 중상주의의 비판; 재산권들의 효용. **주요 저작:** ≪영국인들에 관한 철학적 편지들(Philosophical Letters on the English)≫ (1734).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힘센 사람들을 자기 시대의 불의들에 관한, 그리고 정치인들과 성직자들의 위선과 부패에 관한, 자기의 논쟁술로 당황하게 하였다. 그가 유명하게 관찰했듯이, '대체로, 정부의 기술은 일반 국민의 한 당사자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빼앗아서 다른 당사자에게 주는 것에 존재한다.'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고 힘센 귀족의 위협을 받아, 그는 영국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그는 주요 지식인들과 개혁가들을 만났으며, **존 로크**의 저작에 친숙하게 되었다. **몽테스키외**같이, 그는 영국의 자유주의 제도들, 시민적 자유들, 입헌 정부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자유, 관용, 자유 언론 그리고 자유 무역을 촉진하는 데 쓰기로 했다. 그의 ≪영국인들에 관한 철학적 편지들≫ (1714)은 프랑스에 귀족 권력들을 타도하라고 촉구하였고 교회의 불관용을 비판했다. 한동안의 바스티유 감옥도 그 당시 대륙 유럽에 유행하던 불의와 억압에 대한 그의 공격들을 막지 못했다.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운동을 했다. 그는 대중들의 근시안성이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계몽 군주가 전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유를 지지하는 주장을 했고, 비록 인간들이 자연법들에 따라 통치될지라도 그들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행동은 이성과 그것에 따라 행동할 자유에 나타나고, 자유 언론은 이것의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코 실제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말할 당신의 권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구절은 그의 견해를 적절히 요약한다.

볼테르는 자의적인 권력을 법의 지배하에 넣음으로써 그것을 제한하

려고 시도했다. 그는 관용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고, 국가가 기독교와 같은 특정 교리들을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옹호했고, 직업들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했다. 그는 중상주의를 비판했고, 부가 한 나라의 금과 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근로자들의 노고, 생산성 그리고 숙련에 존재한다고—**애덤 스미스**가 전개할 견해들—말했다. 그리고 그는 동기의 힘을 이해했다. 그는 사유 재산을, **존 로크**가 했듯이, 자연법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기 개선을 얻으려고 애쓸 최상의 유인을 주기 때문에 옹호했다.

[25] 프랑수아 케네(François Quesnay) (1694-1774): 프랑스 외과 의사 및 중농주의 학파 경제학의 창시자. **주요 사상:** 중상주의의 비판; 자유를 통한 사회적 조화; 규제 해제와 자유 무역. **주요 저작:** ≪경제표(Economic Table)≫ (1758).

널리 보급된 *중상주의*(mercantilism)—이것은 한 국가의 부를 그것의 금 및 은 비축량과 그것이 수출을 통하여 그것들을 증가시킬 능력으로 본다—와는 대조적으로, 케네와 **튀르고**에 의해 주도된 프랑스 '중농주의(Physiocrat)' 경제학자들은 국부의 기초가 생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들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중상주의 비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케네는—고도로 농업적인 경제에 살았으므로—오직 농업 노동만이 진정으로 생산적이라고, 그리고 장인(匠人), 상인, 지주 그리고 자본 제공자의 노동과 같은 다른 일은 단지 그것을 지원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더 세련된 상업관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의 유용한 생산도 국부에 이바지한다고 인식했다.

케네는 사회적 조화가 자유 방임 정책과 공개 시장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농업 생산에 대한 예로부터의 제한들을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장벽을 올리는 중상주의 정책이 사실상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루이 15세 (1710-1774)—그는 루이 15세의 영향력 있는 정부(情婦), 퐁파두르 부인(Madame de Pompadour)의 내과 의사였다—에게 그러한 보호무역주의를 종식할 것을 요청하였다.

[26]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경세가 및 박식가. **주요 사상:** 미국 독립 선언서와 미국 헌법을 기초; 자연권들; 화폐적 신중; 무역과 평화. **주요 저작:**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Poor Richard's Almanack)≫ (1732-1758).

프랭클린은 미국의 창설에서 선임 인물이었다. 자기가 독립 선언서를 기초하는 것을 도왔을 때 그는 70살이었고, 후에 그는 헌법을 기초하는 것을 도왔다. 그의 서명은 양쪽 다에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랭클린을 보수주의자로 간주하는데, 그렇지만 그의 독립 옹호와 자유에 관한 그의 함축성 있는 저작들은 그에게 자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 한 자리를 받게 한다. 혁명의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방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간의 일시적인 안전을 손에 넣기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할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프랭클린은 확실히 종교적 자유주의자였다. 청교도로 길러져, 그는 여전히 신자였지만, 모든 조직된 종교를 거부했다. (예를 들면, 그는 자기의 장기간의 배우자와 결코 교회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존 로크**의 자연권 가설을 촉진했다.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는 썼다, '신법과 자연법에 따라 우리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프랭클린은 자기가 출간했고 자기를 부유하게 만든 신문들과 달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견해들을 개진했다. 그는 또한 법률들과 은행권들을 인쇄하여 돈을 벌기도 하였지만, 어느 쪽도 과다를 경고했으며, 다음과 같이 썼다. '적당한 양의 지폐는 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의 기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일 때, 그것은 가치가 떨어졌고, 유해하며, 민중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밀턴 프리드먼**이 두 세기 후에 재생시킬 논점이었다.

프랭클린은, 펜실베이니아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기의 새 국가의 프랑스 대사로서, 유럽에서 여러 해를 보내었다. 거기서 그는 **케네**와 **튀르고**의 중농주의 사상에 친숙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이 상업, 경쟁 그리고 자유 무역에 의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프랭클린은 그 정책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미국의 체제는 모든 국가와 보편적인 통상을 하고 어느 국가와도 전쟁하지 않는 체제이다.'

[27]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 스코틀랜드 철학자 및 역사가. **주요 사상:** 이성이 아니라 효용에 근거한 사회; 재산권들; 제한된 정부. **주요 저작:** ≪도덕론, 정치론, 그리고 문학론(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1742).

인간 오성(悟性), 인과 관계, 필요, 도덕, 정의, 경제학, 정치 이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데이비드 흄의 통찰들은 그를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또한, 자기 친구 **애덤 스미스**로부터, (흄이 자기를 자기의 '독단적인 혼수상태(dogmatic slumbers)'에서 깨운다고 표명한) **이마누엘 칸트**를 거쳐, **F. A.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주요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고무하기도 하였다.

흄은 자기의 회의적인 경험적 방법을 가지고 그 당시의 철학적 관행들에 반항하는 데 급진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관습적인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평화, 번영 그리고 정의가 최상으로 만족된다는 더욱 보수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흄은 열 살 혹은 열한 살에 에든버러 대학교에 들어갔다. 단지 23살에, 그는 자기의 기념비적인 ≪인간 본성론(Treatise of Human Nature)≫ (1739)을 시작했다. 비록 자기의 소문이 나쁜 종교적 회의론 때문에 대학교수직들이 거부되었지만, 자기의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48) 후에 그는 (스코틀랜드의) 변호사회(Faculty of Advocates)에 사서(司書)가 되도록 요청받았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인기도서 ≪영국의 역사(History of England)≫ (1754-62)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의 명성과 부를 만들었다. 1763년에 그는 파리 주재 영국 대사의 개인 비서가 되었는데, 거기서 그의 유명하게 매력적인 태도는 그에게 수많은 살롱 초대를 가져왔다. 그는 평생 무신론자인 채로였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회의적인 자기의 저작,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들(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1779)은 오직 사후라야 출판되었다.

흄은 도덕 감정의 기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공감*(empathy)이라고 말하곤 하는—*동정*(sympathy)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였다—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1759)에서 전개한 혁명적인 견해. 자연은 우리에게, 자선, 친절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 같은, 유용한 *타고난 미덕들*(natural virtues)을 주었다고, 흄은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큰 사회들에서 사는 것의 완전한 편익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재산권, 계약 그리고 정의의 존중 같은, *인위적인 미덕들*(artificial virtues)—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미덕들을 본능 때문이 아니라 효용 때문에 존중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도둑질과 폭력을 피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사회적 관행들 안에 아주 깊이 스며들게 되어 그것들은 습관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정부더러 이 이로운 질서를 창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시민 사회가 정부 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미덕들을 진척시키는 특정 규칙들은 관행의 문제였다. 재산이나 정의의 정확한 규칙들이 무엇인지는, 만약 그것들이 어지간히 잘 작동하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화를 확보하는 사법 제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사법 제도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정확한 법률들보다 더 결정적이었다. 사람들이 투자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계약에 관해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며, 기능하는 규칙들이—설사 정확한 규칙들이 사회들 사이에 다르다는 것이 당연할지라도—존재하여야 한다.

흄에게는, 번창하는 사회적 질서의 기초는, 일반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경험 때문에 연마되는, 기능하는 자생적 질서였다. 그는 **존 로크**의 것들과 같은 모든 *합리주의*(rationalist) 설명들을 거부했다. 이성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도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동기*

를 부여하지(motivate)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성은 단지 '감정의 노예(the slave of the passions)'일 뿐이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준 한 가지는 정부 권력을 제한할 필요였다. '정치 저자들이 금언으로 확립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어떤 통치 제도든 고안할 때 그리고 헌법의 여러 견제와 통제를 설정할 때, 모든 사람이 악한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에서 사익 말고는 어떤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8]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1723-1816): 스코틀랜드 사회 이론가. **주요 사상:** 자생적 질서; 분업; 혁신과 성장. **주요 저작:** ≪시민 사회 역사론(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

퍼거슨은 자기의 ≪시민 사회 역사론≫ (1767) 때문에 종종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에 독창적인 공헌들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자생적 질서에 관한 그의 함축성 있는 구절로 기억되고 있다. '대중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움직임은, 심지어 계몽 시대로 불리는 시대에서도, 미래에 대해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국가들은 참으로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어떠한 인간 계획의 실행도 아닌 시설들을 우연히 만난다.'

그는 **토머스 홉스**의 전쟁 같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개념을 거부했고,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처럼)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social) 동물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도 지금까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나는 가족, 언어 그리고 도덕 규범에 따라—요컨대, *사회*(society)에 의해—형성된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애덤 스미스**가 후에 전개할, *분업*(division of labour)의 개념을 개설(槪說)했다.

> 장인은 자기가 어떤 일이든 그것의 특정 부분에 자기의 관심을 더 많이 국한할 수 있을수록 자기의 생산물들이 더 완전해지고 더 대량으로 수중(手中)에 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제조업에서 모든 사업가는 자기가 자기 직공들의 업무들을 더 많이 세분할 수 있고 자기가 별개의 물품들에 더 많은 일손을 고용할 수 있을수록 더 많이 자기의 비용이 줄어들고 자기의 이윤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통해,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창조적인 다양성, 효율 그리고 혁신의 세계를 낳는데, 이것은 성장과 번영에 연료를 공급한다. 그러나 퍼거슨은 분업이 전적으로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계급 층화와 사회적 긴장을—그리고 만약 안전이 전적으로 전문적인 군인 직업에 맡겨진다면, 잠재적 폭정을—초래할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29]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스코틀랜드 철학자 및 경제학자. **주요 사상:** 인간의 공감과 자생적 질서; 중상주의에 대한 공격; 자유 무역으로부터의 상호 이득; 생산성; 분업; 보이지 않는 손; 시장들은 자원들을 생산적인 용도들로 돌린다; 정의; 제한된 정부. **주요 저작:**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었다. 책들과 아이디어들의 열렬한 수집가로서, 그는 윤리학, 법학, 문학, 정치학 그리고 과학 철학에 관해 쓰고 강의하였다. 오늘날 그는 개척적인 경제학자로서 가장 잘 기억되고 있다.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그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는 자유 시장, 공개경쟁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그에게 명성을 가져온 것은 윤리에 관한 스미스의 이른 책, ≪도덕 감정론≫ (1759)이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성직자들과 통치자들이 내린 독단보다도 윤리의 더 견고한 기초를 추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rational)' 대안들을 찾았다. 대조적으로, 스미스는 도덕성이 인간의 사회 심리의 특징이라고 암시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타고난 (오늘날 우리가 공감(empathy)이라고 말하곤 하는) *동정심* (sympathy)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기쁨과 고통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존경을 얻을 방식들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그 책이 시작하듯이,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의 본성에는 명백히 몇몇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관심을 두게 하고, 비록 그가 그들의 행복을 보는 즐거움을 제외하고는 그것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그에게 필요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타고난 감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게 되고, *불편부당한 구경꾼* (impartial spectator)이 찬성하도록 우리의 이기심을 억제하게 된다. 이런 억제는 잘 기능하는 사회적 질서를 낳는 것을 돕고, 그다음 이것은 지속한다고, 스미스는 관찰한다.

그 책은 즉각적인 성공작이었다. 그것은 버클루 공작(Duke of Buccleuch)의 계부를 자극하여, 그 젊은 공작을 가정교사로서 가르치고 그를 유럽에 데리고 다니도록, 스미스를 평생 소득으로 고용하게 하였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스미스는 가장 탁월한 유럽 사상가들과 의견들을 토론할 수 있었고, 다른 상업 및 규제 제도들에 관해 무한한 사실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는 ≪국부론≫이 될 것을 쓰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새롭고, 체계적이며, 최신의 경제학 접근법으로 엮었다.

스미스의 시대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경제 체제는 *중상주의*(mercantilism)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부를 그것의 금 및 은 비축량으로 측정하였다. 정책은 가능한 한 많이 다른 국가들에 팔고 그들로부터 가능한 한 적게 삼으로써 그 비축량을 불리는 데로 돌려졌다. 수입은 관세와 규제로 억제되었다. 수출은 보조금으로 장려되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쪽 다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파는 사람들은 확실히 현금을 얻지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급하는 돈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재화를 얻는다. 어느 쪽도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스미스는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의 금과 은이 아니라 그것의 거래와 상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척도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교환했는지—우리가 오늘날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라 부르는 척도—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상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참으로, 우리는 전문화—분업(division of labour)—로 가능해진 막대

한 생산성 이득을 통해 우리의 생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핀 공장의 예를 사용하여, 스미스는 생산을 많은 전문 작업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게 생산을 수천 배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자신의 소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자기들의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다음 다른 것들에 능숙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전문화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생산자들은 또한 자기들의 나머지 약간을 공장과 도구 같은 자본재들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생산성—과 국부—을 더욱더 증대시킨다.

이것은 엄청나게 협동적인 체제인데, 비록 누구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롭도록 재화를 생산하고 교환한다. '우리가 우리의 정찬을 기대하는 것은 고깃간 주인, 양조업자 혹은 빵 굽는 사람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으로부터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의도하지 않고도,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궁극적으로 전 사회를 부유하게 하고 증진하기도 한다.

> 모든 개인은 . . .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증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 . .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한다. 그리고 그 근면을 그것의 산물이 가장 크게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방식으로 지휘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만 의도하는데, 그는 이 경우, 많은 다른 경우들에서와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 의도의 일부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이 계획되지 않은 협동은 아주 널리 이로워서 그것은 알려진 전 세계를 포함한다. 심지어 단순한 양털 외투도—목동에서부터 실 잣는 사람, 염색업자, 선원, 도구 제작자 그리고 소매업자에 이르기까지—수십 개의 국가로부터 수천 명의 전문가의 노동을 포함한다고, 스미스는 설명한다.

거래의 또 하나의 계획되지 않은 편익은 그것이 자원들을 그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자동적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물건들이 희소할 때, 소비자들은 그것들에 대해 기꺼이 더 많이 지급한다. 그것들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이윤이 있으므로, 생산자들은 더 많이 만들어 낸다. 공급 과잉이 있을 때,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가치가 더 높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로 돌린다. 따라서 산업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에 집중된다. 그래서 어떤 규제와 계획도 없이,

>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의 명백하고 단순한 체계가 저절로 수립된다. 모든 사람은 . . .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게 놔두어진다. . . . 주권자는 어떤 인간 지혜나 지식도 결코 충분할 리 없을 의무, 사인들의 산업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고용들로 돌릴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유 무역과 경쟁이 있을 때만 자동적이다. 정부들이 혜택받는 생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이나 독점권을 내줄 때나, 그들을 관세 장벽 뒤에 보호할 때는, 소비자들이 착취된다. 자기들이 의존하는 필수품들의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다.

재산권들을 보호하는 사법 제도도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려면, 그들은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 번영하는 국가들은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가진 국가들이다. 이것은—상인들이 시장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독점, 조세 우대, 통제 그리고 기타 특권들을 얻는 데 입법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는—미묘한 종류의 도둑질, 오늘날 우리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방위, 사법, 기간 시설 그리고 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들을 계속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해야지, 그것들을 일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하여간, 인간들은 자기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고, 이들은 당국의 계획들을 좌절시킨다.

> 체계의 사람은 . . . 손이 장기판 위에 다른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아주 쉽게 자기가 거대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거대한 장기판에서 모든 단일의 말이,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로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0] 리처드 프라이스(Richard Price) (1723-1791): 웨일스의 비국교도 목사, 팸플릿 저자 및 급진주의자. **주요 사상:** 여성들의 권리들; 정부의 계약적 기초; 선거 개혁; 공채에 대한 반대. **주요 업적:** ≪국채의 주제에 관한 대중에의 호소(Appeal to the Public on the Subject of the National Debt)≫ (1772); ≪시민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소견(Observations on the Nature of Civil Liberty)≫ (1776).

프라이스는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국과 논쟁할 때 그가 그들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오늘날에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스승으로 가장 잘 기억되는데, 그녀는 여성들의 권리들에 관한 그의 견해들을 발전시켰다.

비국교도 목사로서, 프라이스는 군주들이 통치할 신권(神權)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에게서 위탁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정당한 군주들은 영국의 군주들인데, 이들은 국민과의 명시적인 계약, 즉 1689년의 권리 장전의 구속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혁명가들(과 후에 프랑스 혁명가들)이 똑같은 종류의 계약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 (1791)의 많은 부분은 그의 논거들에 근거하였다. 그는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의 친구가 되었고, 예일 대학교로부터 명예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시민권이 제의되었(으나 거절하였)다. 프랑스에 관해, 그는 **튀르고**와 서신 왕래를 하였고 프랑스 혁명가들을 지원하였지만, 공포 정치의 완전한 공포가 드러나기 전에 사망했다.

프라이스는 또한 영국의 악명 높게 부패한 의회 선거 제도의 개혁을 찬성하고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주장도 하였다. 국채의 존재에 대한 그의 1771년의 공격은 [아들]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1759-1806) 수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십 년 후에, 그것을 줄일 채무 상환 기금(sinking fund)을 설립하게 하였다.

[31]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독일 철학자. **주요 사상:**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개인들; 권리

들과 자유를 지키는 데로 제한되는 국가; 도덕적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을 요구한다; 도덕 원칙과 정치 원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권리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관행적이다; 민주적이 아니라 계약적이고 제한된 것으로서의 정부; 법의 지배. **주요 저작:** ≪순수 이성 비판(Critique of Pure Reason)≫ (1781); ≪도덕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Morals)≫ (1797)

칸트는 대개 형이상학과 지식 이론에 관한 그의 견해들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는 또한 윤리학과 정치 이론도 탐구했다. 그는 자유를 보편적인 권리로 지지했고, 사람들을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보았으며, 개인들을 다른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 *수단*(means)으로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가를 권리들과 자유를 지키는 데로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자유주의자로 나타내는데, 하기야 다른 점들에서는 그가 보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긴 하다.

칸트에게, 도덕의 기초는 이성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야—자유롭게 우리의 견해들을 제안하고 주장하며, 자유롭게 그것들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들(과 우리)은 도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불릴 수 없다. 도덕 법칙은, 어떤 사람에게 만약 처벌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훔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즉 그것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의 명령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universal law)으로서 적용되는 것을 기꺼이 보는 방식들로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이성은 우리에게

말한다.

정치도 또한 보편적 원칙들에 따라야 한다. 칸트는 정부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다른 권리들이 생기는) 자유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만 사회가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들을 포함해서) 권리들은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들이지, 자연법 일부가 아니다. 만약 어떤 예외라도 있다면, 그것은 자유 그 자체이다. '*자유*(freedom)(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구속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는 . . . 자기의 인간성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유일한 원초적 권리이다.'

칸트는 *법치 국가*(Rechtstaat) 혹은 '정당한 국가(just state)'가 무슨 모습일지를 탐구한 첫 번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다수결 규칙이 소수파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일 리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히려, 그것은 입헌적일—계약적이고 법에 따라 제한되어, 자유 그리고 각자의 평등한 시민권과 사법권을 인정할—것이다. 주권자도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비록, 많은 자유주의자와 달리, 칸트가 저항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그는 조세로 자금이 조달되는 안전망을 지지하는 주장을 하였고, 극단적인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곤경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행동들에 책임을 지지 못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보장들을 넘어서는, 국가는 우리의 행동들을 지시할 어버이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나를 강제하여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할지 모르는 특이한 방식으로 행복하게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는 썼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최선인 것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32] 튀르고[안-로베르-자크 튀르고, 드 론 남작](Turgo[Anne-Robert-Jacques Turgo, Baron de Laune]) (1727-1781): 프랑스 경제학자 및 경세가. **주요 사상:** 균형 예산; 규제 해제; 주관적 가치론. **주요 저작:**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1769-70).

볼테르의 친구이고, 중농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튀르고는 자기 시대의 가장 저명한 자유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재능 있는 경제학자여서, 1774년에 그는 국가 예산의 감사원장(Controller-General)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적자를 삭감하고 무역을 자유화했다. 경제학에서 한 매우 독창적인 공헌들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진보의 이론에 관해서도 썼다.

튀르고는 리모주(Limoges)의 징세 관리로 임명되었을 때 자기의 자유주의 사상을 집행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부역*(賦役 · corvée)(정부 사업들에 대한 무급 노동)을 폐지했고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들과 운하들에 자금을 댔다. 감사원장으로서, 그는 루이 16세에게 '무(無)파산, 무조세 증가, 무차입'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 상인들이 멀리 있는 관리들보다 시장들의 더 나은 판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곡물에 대한 가격 통제를 폐지했다—비록 흉작이 가격 증가와 그 결과에 따른 불안을 일으켰지만. 그는 기업의 규제를 해제했고, 금요일에 고기를 파는 오텔 디외(Hôtel-Dieu)의 독점 특권을 중단했으며, *현물 부역*(corvée en nature)(사람들이 귀족 지주들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무급 근로)을 종식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은 정적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는 프랑스의 대규모 군사 지출을 비판한 후에 자기 지위를 잃었다.

진보에 관해, 튀르고는 우리가 한 개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천 개의 실수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의 실수들을 막기 위해 깊은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자기 이익이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그리고 자유 시장들에서는 개인 이익이 항상 일반 이익과 일치한다고 믿었다. **볼테르**처럼, 그는 계몽 입헌 군주제를 믿었다. 그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들의 불관용을 막기 위하여 국립 학교들의 체제를 지지했다.

경제학에서, 튀르고는 이자율들이 저금의 부족이나 풍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간, 그리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고리대금업(usury)'에 대한 예로부터의 편견에 도전했다. 그러므로 빌려주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자금 제공자들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모험사업들을 찾아내고 수반되는 위험들을 부담하는, 숙련되고 활동적인 기업가들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실상, 생산자들이 투자할 자금을 요구하고 자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저금의 대안적인 용도들(오늘날 우리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시하는, 자본 시장이다. 높은 이자율은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저 가장 위험스럽고 장기적인 모험사업들에 대한 자본의 가격일 뿐이다. 그러한 시장 압력들은 저금을 유용한 사업들로 효율적으로 돌린다.

한 세기 이상 후에, **카를 멩거**,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폰 비저(Friedrich von Wieser) (1851-1926) 그리고 **F. A. 하이에크**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고도로 독창적인 견해들을, 한계 효용에 관한 그리고 사람들이 대상들에 부착하는 주관적 가치에 관한 튀르고의 덜 개발된 견해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튀르고는 **니콜라 드 콩도르세**의 선생으로서 추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콩도르세는 튀르고의 운명

후에 자유 무역, 강제 노동의 폐지 그리고 자유 사회에 관한 튀르고의 사상에 대해 여전히 거리낌 없는 옹호자였다.

[33]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 (1729-1803): 스칸디나비아 정치인 및 경제학자. **주요 사상:** 자유 무역; 자기 이익; 자유 언론; 규제 해제. **주요 업적:** ≪국가적 이득(The National Gain)≫ (1765).

핀란드에서 태어나고, 그다음 스웨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쉬데니우스의 1765년의 팸플릿 ≪국가적 이득(Den Nationale Winsten · The National Gain)≫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1776)에서 자세하게 전개할 견해들의 다수를 간단하게 개설했다. 스미스처럼, 그는 중상주의 수출 보조금을 해로운 것으로서 거부했고, 자유 무역, 상업 그리고 공업을 요구했다. 경제의 지도 원리는 자유라고, 그는 주장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거래에 종사하고 임금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기 이웃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생산함—전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창출함—으로써만 이득을 번다. '모든 개인은, 만약 법률들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국가적 이득을 가장 증가시킬 수 있는 장소와 거래를 발견하려고 한다.'

다른 저작들에서, 쉬데니우스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자유주의 견해들을 탐구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 한 세기 전에, 진리가 사상의 경쟁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유 언론을 이해(理解)와 진보의 핵심 기반으로 만들었다.

의회 의원이자 개혁가로서, 쉬데니우스는 지역 상인들에 대한 거래 제한들을 완화하는 운동에 능동적이었다. 그는 또한, 검열 제도를 폐지

하고 사람들이 공무에 관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며 정부 정보를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통과에 노력하기도 했다.

[34] 조지프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 (1733-1804): 영국 화학자, 물리학자, 비국교도 및 자유주의 이론가. **주요 사상:** 자유 언론; 종교적 관용; 시민권과 정치권; 노예제 반대. **주요 저작:** ≪통치의 첫째 원칙들에 관한 에세이(Essay on the First Principles of Government)≫ (1768).

프리스틀리는 오늘날 그의 산소 발견과 그의 전기에 관한 저작 때문에 기억되고 있지만, 그 자신의 시대에는 그는 또한 그의 논쟁적인 자유주의적 견해들 때문에도 알려져 있었다. **리처드 프라이스**의 영향을 받아, 그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교환을 지지했고, 비국교도들(Dissenters)—영국 국교회(established Church)에서 이탈한 종교 집단들—에 대한 관용과 평등권들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프리스틀리 자신과 같은) 비국교도들은 공식적으로 공직, 대학 그리고 군대에서 제외되었다. 수행된 것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그런데도 그러한 차별에 분개했다.

자기의 ≪통치의 첫째 원칙들에 관한 에세이≫ (1768)에서, 프리스틀리는, 당연히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인하는, *시민권들*(civil rights)과, 정체(政體)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에게 부여되는, *정치권들*(political rights)을 구별했다. 그는 시민권들이 가능한 한 넓게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생활들에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다고(후에 **F. A. 하이에크**에 의해 다듬어진 견해), 그리고 정부가 오직 공공 영역에만 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프리스틀리에게는, 교육과 종교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들이고 국가

의 볼일이 아니므로, 확고히 사적 영역에 속했다.

프리스틀리는 종교적 편협에 반대하는 자기의 논거들을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 관용을 요구하는 데 적용했다. 그는 여러 개혁 운동에 활동적이어서, 관계(官界)의 부패를 폭로하였고 (프라이스처럼) 의회 개혁, 노예무역의 폐지 그리고 미국 독립 혁명가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는 그의 프랑스 혁명 지지는 그에 대한 폭력을 유발했고, 그를 재촉하여 미국에 이민해서 자기의 말년들을 보내게 하였다.

6 혁명가들과 급진주의자들

1700년대 중반까지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영국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고 자기들의 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방식에 더욱더 불만스러워지고 있었다. (법률 문서, 신문 그리고 많은 다른 인쇄물들이 런던에서 만든 종이에 인쇄되어야 하고 영국 통화로 수입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1765년의 인지 조례(Stamp Act)는 위기를 초래했다. 그것은 동의 없는 과세(혹은, 대중적인 구절로, *대표 없는 과세*(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로 보였다. 이것은—식민지 개척자들이 자신들을 그 일부라고 생각했던—영국 국민의 예로부터의 권리들을 우롱한 것이었다.

영국 정부가 징벌적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들에게 전단을 열었을 때, 식민지 개척자들은 반란을 전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들의 논거들을 찰스 1세와 국회와의 싸움(1642-46, 1648-52) (Civil War)의 사건 및 명예혁명의 사건과 씨름했던 영국 자유주의 철학자들에게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새로운 공화국을 형성하는 데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 장전에 의존하곤 했다.

미국 독립 혁명이 자유주의자들을 응원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뒤의 프랑스 혁명은 여론을 갈랐다. 처음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함께, 사정이 유망한 것 같았지만, 다른 당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다툼에 따라, 한 폭정이 더 잔인한 폭정으로 그저 대체되었을 뿐이다. **콩도**

르세와 **벵자맹 콩스탕** 같은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정체(政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고 헌법들을 통해 그것들을 어떻게 억제할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영국 자유주의자들은, 많은 보수주의자와 더불어, 선거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프랑스의 혼란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국가의 역할과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도덕 발달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온상(溫床)에서, 급진적 사상이 갑자기 생겨났다. **제러미 벤덤**은 공공 정책의 기초로서 완전히 새로운 도덕 체계를 제안했다. **윌리엄 고드윈**은 정부들이 도대체 필요한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드윈의 아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그 당시에는 아주 논쟁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들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산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으로도.

[35]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 영국계 미국인 팸플릿 저자, 언론인 및 논객. **주요 사상:** 미국 독립 혁명의 옹호론; 개인주의; 종교적 및 인종적 관용; 도덕적 평등; 공화주의의 자유주의; 시민 사회. **주요 저작:** ≪상식(Common Sense)≫ (1776);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 (1791-92).

영국에서 퀘이커교도 자녀로 태어나, 페인은 (자기가 런던에서 만난 **벤저민 프랭클린**의 제안에 따라) 미국에 이민하였는데, 주로 빚을 피하고 자기가 영국에서의 박해라고 본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인기 있는 책들, 팸플릿들 그리고 신문 잡지를 통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엄청난 대중에게 가져왔다.

그의 ≪상식≫ (1776)은 미국의 혁명적 분위기를 묘사했다. 약 50만 부가 팔렸다. 그것은 부패한 영국 정부의 반자유주의적인 조치들에 반대하는 자기의 주장을 함축성 있게 진술했고, 독립이 이제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세계에 모범이 될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공화국으로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강했다.

그 후 1790년에, 페인은 혁명의 프랑스를 방문했고, 에드먼드 버크의 반(反)혁명적 ≪프랑스에서의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을 논박하고 부패한 군주 국가들과 제도들을 몹시 꾸짖는, ≪인간의 권리≫ (1791-92)로 추가적인 성공을 획득했다. 그의 새 책은 백만 부가 팔렸고 영국 당국을 재촉하여 그를 난동 교사죄로 기소하게 하였다. 그는 프랑스 정치에 연루되었지만, 그 시대의 파벌주의에 휘말려 들었다. 그는 투옥되었고 처형을 그저 간신히 벗어났을 뿐이다.

페인은 개인주의를 옹호했고 모든 사람의 도덕적 평등에 근거하여 (토착 아메리카 종족들과의 공존을 포함하는) 관용을 설교했다. 그러나 자기의 퀘이커교도 뿌리에 충실하게, 그는 공화주의를 평등주의와 결합했다. 그가 입헌 정부를 원했지만, 누진세와 복지 프로그램을 가진 입헌 정부였다. 그가 사적 소유를 옹호했지만, 공동선으로 완화된 사적 소유였다.

사회는 정부와 같지 않다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협동할 욕망 탓으로 우리는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비공식적 협회들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것을 위해 정부들은 필요 없고, 참으로 그것들이 간섭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자연권들을 침해한다. 그러나 (재산권과 같은) 다른 권리들은 그런데도 그것들을 지키는 데 정부에 의존한다. 최상의 정부 형태에

관해서는, 페인은 공화국들이 일반적으로 군주국들보다 더 평화롭다고 주장했고, 미국을 위해 그는 대의 및 입헌 공화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떤 정부든 권력은 우리의 시민권들을 확실하게 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는 국민의 상식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36]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 이탈리아의 형벌 개혁가 및 철학자. **주요 사상:** 처벌 이론; 형벌 개혁; 법률 개혁. **주요 저작:**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On Crimes and Punishments)≫ (1764).

베카리아는 밀라노에서 예수회 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몽테스키외**를 읽은 후에 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생애 후기, 그는 밀라노의 경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 개혁을 촉진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자기의 짧은 책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1764)로 가장 잘 기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러미 벤덤의 칭찬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법률 체계와 형벌 체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베카리아는 법과 처벌의 적합한 목적이 사회 계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지만, 교육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진정한 이익이 사회 계약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처벌은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어기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공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기는 사람들에게 해(害)나 '눈에는 눈(eye for an eye)' 보복을 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문, 비밀 기소, 자의적이고 가혹한 처벌, 그리고 사형을 비난했다. 처벌은 범죄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했다.

최대한의 억지(抑止) 효과를 위해, 범죄가 신속해야 하지만 반드시 가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들을 단순화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법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고, 교육을 향상하며, 미덕을 보상할 것이다.

[37]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박식가, 입헌주의자 및 미국 대통령. **주요 사상:** 미국 독립 혁명의 지적인 기초들; 타고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 정부의 계약적 기초; 전제적 정부를 떨쳐버릴 권리; 권력 분립; 자유 언론; 종교적 관용. **주요 저작:** ≪독립 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공저) (1776); ≪버지니아주에 관한 기록(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785).

제퍼슨은 예술, 과학 그리고 정치 철학을 포함하여 많은 주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읽었고, 미국의 가장 큰 개인 장서를 축적하였다. 그가 유명한 많은 이유 가운데서, 그는 미국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것으로 가장 잘 기억되는데, 그는 그것에 **존 로크**와 **앨저넌 시드니**의 사상을 삽입했다. 그의 전문(前文)은 로크의 견해를 함축성 있게 요약했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이 자기들의 창조주에 의해 일정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정당한 정부는 국민과의 계약에 의존한다.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한 정부를 떨쳐버리는 것은,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파수꾼들을 임명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그들의 의무이다.'

제퍼슨은 공공 권력과 사적 권력 양쪽 다 불신했고, 계속해서 (**몽테스**

키외를 따라) 권력이 분립되는 헌법을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또한 정부의 권력을 억제하는 방법들로서 공공 교육과 자유 언론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는 한 사람의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종교적 불관용을 반대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존 스튜어트 밀**이 후에 *무해 원칙*(no harm principle)이라고 부르는 견해) 믿었다.

희한하게도, 제퍼슨과 그의 동료인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는 그들 둘 다가 작성하기를 도왔던 독립 선언서의 50주년 기념일인 1826년 7월 4일에 서로의 몇 시간 안에 사망했다.

[38] 니콜라 드 콩도르세[마리 장 앙투안 니콜라 드 카리타, 콩도르세 후작](Nicolas de Condorcet[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 (1743-1794): 프랑스 수학자, 과학자 및 정치이론가. **주요 사상:** 공공선택 문제들; 여성 참정권; 인종적 평등. **주요 저작:** ≪흑인 노예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Negro Slavery)≫ (1781) ≪과반수 결정들의 확률에 대한 해석학의 적용에 관한 에세이(Essay on the Application of Analysis to the Probability of Majority Decisions)≫ (1785).

콩도르세는 선거 결과들에 관한 그의 수학적 연구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콩도르세 역설*(Condorcet Paradox), 즉 사람들이 A를 B보다(가위를 보보다) 그리고 B를 C보다(보를 바위보다) 선호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런데도 C를 A보다(바위를 가위보다) 선호할지 모르고, 그래

서 선거들이 안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지 모르는 '가위, 바위, 보' 문제에 자기의 이름을 부여했다. 콩도르세는 가장 선호되는 전반적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회들의 투표를 하는 *콩도르세 방식*(Condorcet Method)을 고안했다. 이런 공헌들 때문에, 그는, 현대 시대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되는, 공공선택학파(Public Choice School)의 한 선구자로 간주된다.

콩도르세는 중농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주의 경제를 지지했다. **튀르고**는 그를 파리 조폐국(Paris Mint)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으로 임명했다. 그는 입헌 정부, 무료 공교육 그리고 여성 참정권을 지지했다. 노예 폐지론자로서, 그는 모든 인종에 대한 평등한 권리들을 요구했다. 프랑스 혁명 후에는 그는 계몽된 합리주의 정부를 기대했고 교육 및 기타 개혁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혁명을 망쳐놓은 당파적 분쟁들에 휘말려 들게 되었고, 체포되었으며, 감옥에서 죽었다.

[39] 제러미 벤덤(Jeremy Bentham) (1748-1832): 영국 철학자 및 사회개혁가. **주요 사상:** 공리주의. **주요 저작:** ≪도덕과 입법의 원리(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벤덤은—도덕적 행동 기준이 *권리들*(rights)이 아니라 창출되는 행복이나 불행의 양이라는—자기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윤리 철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선악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것은 국가가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벤덤은 양성 간 평등을 포함하여 많은 자유주의 원칙들을 옹호했다.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률들을 자유주의화하는 호소문(이 주제에 관

한 최초의 체계적 논거)을 썼는데, 그것들이 사적 행동들에 대해 균형이 맞지 않는 공공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 동물 학대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범죄자 처우와 싸웠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고 국교도들도 아닌 사람들에게 교육을 개방하는 한 방법으로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가장 저명한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인 **존 스튜어트 밀**을 가르쳤고 고무(鼓舞)하였다.

그러나 벤덤은 관습법을 법령들로 '성문화하기(codify)'를 원했고,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한 공격들을 썼다. 권리들은 '타고난(natural)' 것이 아니라 입법자들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지복(至福)의 일반 질량(the general mass of felicity)' (즉 그것들의 효용)에 기초하여 할당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에게는, *자연권들*(natural rights)은 '그저 허튼소리(nonsense), 타고난 불가침의 권리들은 수사적인 허튼소리—호언장담하는 허튼소리—일 뿐'이었다.

[40]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미국 입헌주의자 및 미국 대통령. **주요 사상:** 재산으로서의 권리들; 낮은 단일 세율의 세금(flat tax); 자의적 권력의 비판; 헌법적 견제와 균형. **주요 저작:**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 (1787-88).

매디슨은 미국 헌법의 주(主)기초자였고, 그것이 **몽테스키외**에 의해 제안된 권력 분립을 수용하도록 확보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이런 문제를 ≪연방주의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의 '모든 단어(every word)'가 권력과 자유 사이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만, 헌법들

의 유일한 실제 힘은 '그것들[헌법들]이 사적 생활에서 모든 국민에 의해 감시되는 경계'라고 그는 주장했다.

매디슨은 권리들에 관해 혁신적인 견해를 취했는데, 그것들을 일종의 재산으로 서술했다. '사람이 자기의 재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듯이, 그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리들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될지 모른다.' 그에게는, 정부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것은 자유의 기초인데, 왜냐하면 재산은 생명, 자유 그리고 언론·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에 침입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꼭 같이, 그들이 우리의 권리들에 침입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디슨은 '재산의 권리들과 권리들에 대한 재산을 똑같이 존중할' 정부를 요구했다. 그래서 과세는, 그 자체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므로,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누진 과세와 재분배는 부당하—고 비효과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근로 유인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의견, 종교, 신체, 노동 그리고 여가에 대한 정부 부과들도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징병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에 대해 가진 재산을 침해하여, '나머지 사람들에 봉사하기 위해 한 계급의 국민을 자의적으로 몰수하는 것들'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것은 자의적인 규제, 특권 및 독점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직업들의 개방적인 선택과 자기들이 생산한 것의 자유로운 사용을 거부한다.

[41] 캐롤라인의 존 테일러(John Taylor of Caroline) (1753-1824): 미국

정치인 및 작가. **주요 사상:** 자연권들; 제한된 국가 하에서의 자치. **주요 저작:** ≪미국 정부의 원칙들과 정책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1814).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테일러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농업과 정치를 위해 그것을 포기했다. 그는 새로운 영농 방법들을 개척했고, 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도 근무했으며, 자기 친구 **토머스 제퍼슨**의 '공화주의(republican)' 접근법의 지도적인 지지자가 되었는데, 이 접근법은 중앙 권한에 대한 엄격한 한계를 옹호했다. 그는 제한되고 지방 분권화된 주에 사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재산 소유자들이라는 미국적 이상을 개설(槪說)했다. 그의 사고는 개인의 권리라는 자유주의 사상, 좋은 정부라는 공화주의 사상, 공동체에 대한 보수주의적 애착 그리고 권력과 금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적 의심을 융합시켰다.

테일러는 사람들을 선과 악의 혼합으로 보았지만, 고결한 원칙들에 기반들 두는 입헌 정부가 자기 이익과 무지의 나쁜 효과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그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준다고 걱정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대체로 이롭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대의 체제에서 국민을 주권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그것들 중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연권들이 객관적인 도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들은 정부 이전에 존재했는데, 그러므로 정부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고, 그것들을 강제, 폭정 그리고 무지에 대한 방패로서 유지하여야 한다. 그는 계급이나 부의 분열

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정했고, 그것들을 권력의 남용에서 생긴 특권과 부패에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분리할 수 없다고, 테일러는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지폐를 농민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은행업자들과 제조업 자본가들로 부를 재분배하는 세금으로 보았다. 그는 높은 세금과 보호주의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안한 국립 은행도 공격했는데, 그것을 부자들의 특권을 만족시킬 견제 받지 않는 기관으로 보았다.

[42] 앙투안 데스튀트 드 트라시(Antoine Destutt de Tracy) (1754-1836):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주요 사상:** 재산권들; 주관적 가치; 거래로부터의 이득; 반(反)개입주의; 보조금과 국가 독점의 해로운 효과들. **주요 저작:**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관한 논평(Commentary on Montesquieu's 'Spirit of the Laws')≫ (1808); ≪천재론, 그리고 몽테스키외의 저작(Essay on Genius, and the Works of Montesquieu)≫ (1808); ≪이데올로기 원리(Elements of Ideology)≫ (1817-18).

드 트라시는 자기 작위를 포기하고 정치에 들어간 귀족이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뒤를 이은 공포 시대에 가까스로 처형을 모면했다. 그러나 자기의 긴 투옥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 **존 로크**와 기타 자유주의자들을 읽었다.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문제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일되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장-바티스트 세**, **콩도르세**, **스탈 부인** 그리고 기타 사람들과 더불어, 그는 *이데올로그*

(Ideologues)라 불리는 철학 단체를 형성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대중화했고 공화주의 정부와 자유 시장들을 지지했다.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저작들을 칭찬했고 그것들을 번역시켰다.

사회는 교환들의 끊임없는 연속이라고, 드 트라시는 설명했다. 양쪽 다 이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각각이 포기하는 것의 가치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얻는 것의 가치보다 더 적다. '내가 임금을 얻으려고 나의 노동을 줄 때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노동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을 것보다 그 임금을 내가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지급하는 그는 내가 그에게 주는 서비스를 그가 보답으로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교환 경제를 그렇게 대단히 이롭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가들에 의해 더욱더 생산적으로 되는데, 그들은 자본을 축적 및 투자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다시 재투자한다.

드 트라시는 또한 인플레이션의 해악들에 관해서도 썼는데, 그는 그것을, 지폐에 의해 가능하게 된, 당국의 사기로 보았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저축자들에 과세하며, 경제 활동을 약화하는 불확실성을 일으킨다고, 그는 한탄했다. 똑같은 이유로, 정부는 이자율을 통제하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의 특권을 얻는 회사들을 사악한 것으로 서술했고, 정부가 창설한 독점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사고팔, 우리의 자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특히 필수품에 대해서는, 해롭다. 공공사업은 다른 가치 있는 사업들을 구축(驅逐)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자유 방임 경제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지, 권력자들의 이익들에 봉사하도록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43]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 영국 도덕 및 정치 철학자. **주요 사상:** 무정부주의; 공리주의; 도덕적 평등. **주요 저작:** ≪정치적 정의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1793).

비국교도 성직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고드윈은 공리주의의 초기 옹호자이자 *무정부주의*(anarchism)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상상하듯이, 폭동을 일으키고 폭탄을 던지는 성향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정부 권한 없이도 번창할 수 있다는 믿음)의 최초의 근대 제안자였다. 그는 또한 역사서들도 쓰고 아동용 도서들도 출판했다.

소문이 나쁜 고드윈의 생활과 사상은 그를 악명 높게 하였다. 그는 남녀평등권 옹호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결혼했고 낭만주의 시인들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 바이런 경(Lord Byron) (1788-1824), 로버트 사우디(Robert Southey) (1774-1843)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와 친구가 되었는데, 후자는 그의 빚을 전부 갚고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의 미래 작가, 그의 딸 메리(Mary) (1797-1851)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 고드윈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그녀의 다양한 불륜 관계들과 자살 시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자서전을 썼는데, 이로 인해 그는 상류사회에 외면당했다.

≪정치적 정의에 관한 탐구≫ (1793)에서, 고드윈은 모든 정치 제도들을 공격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점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출생과 계급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했다. 군주정은 부패하고 귀족주의적 특권은 부당하다. 참으로, 어떤 형태의 정부도 의존과 무지를 영속화함으로써 사회를 부패시킨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고드윈은 법률, 소유권 그리고 기타 제도들의 완전한 전복을 주장했다. 이 *무정부 상태*(anarchy)—권력의 결여를 의미—는 강요(compulsion)가 아니라 토론(discussion)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것은 자유 언론 및 솔직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기술 진보는 그것을 발견하는 데 쓸 더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준다. 도덕적 이해(理解)는 정치의 필요를 대체할 것이다. 행동들은 합리적인 공리주의 원칙들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정의(justice)가 어떤 의미라도 있다면,' 그는 썼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전체의 이익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44]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 영국의 여성 권리 옹호자. **주요 사상:** 여권(女權)주의; 평등권들; 공화주의. **주요 저작:** ≪남성 권리들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Men)≫ (1790); ≪여성 권리들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1792).

윌리엄 고드윈의 아내(이자 그들의 딸 메리 셸리의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생활을 한 급진적인 사상가였다. 그녀는 소설가이자 초기 여권주의 정치 철학자였는데, 그녀는 남성의 권리들이 평등하게 여성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견해

들은 **리처드 프라이스**의 설교들로 고취되었는데, 그는 그녀를 급진적인 출판업자 조지프 존슨(Joseph Johnson)에게 소개하여, 그녀가 자기의 견해들을 더 널리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였다.

≪남성 권리들의 옹호≫ (1790)에서, 울스턴크래프트는 귀족주의 체제를 공화 정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고,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전통주의를 진보와 합리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공격했다. ≪여성 권리들의 옹호≫ (1792)에서, 그녀는 여자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얼마나 불가결한지와,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그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여성 교육을 옹호했—고 그것이 남자들의 것과 '똑같은 모델을 따른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자들은 사회가 미(美)와 정숙과 기타 잘못된 중산 계급 가치들에 집중함으로써 억제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현세기의 교양 있는 여자들은,' 그녀는 썼다, '그들이 더 고상한 야망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미덕으로 존경을 요구해야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그저 몹시 사랑을 고취하고 싶어 할 뿐이다.'

[45] 제르멘 드 스탈(Germaine de Staël) (1766-1817): 스위스계 프랑스 지식인 및 소설가. **주요 사상:**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대의 정부; 권리들의 기초로서 사유 재산; 입헌 군주제; 반(反)절대주의; 지방 분권. **주요 저작:** ≪프랑스 혁명의 주요 사건들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s on the Principal Events of the French Revolution)≫ (1817).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드 스탈은 자기 시대의 지도적인 지

식인들과 작가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국제적이었고 최고 수준에 있었다. 그녀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1821)와 티격태격했고, **토머스 제퍼슨**과 서신 왕래를 했으며,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 (1777-1825)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재기 넘치는 개성과 지성, 그리고 소설가와 정치 사상가로서의 명성은 그녀를 독일, 영국, 스웨덴,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의 살롱들(salons · 과거 상류 가정 응접실에서 흔히 열리던 작가, 예술가들을 포함한 사교 모임)의 인기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요한 괴테(Johann Goethe) (1749-1832),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1759-1806) 그리고 **벵자맹 콩스탕**을 포함하는 당시의 지도적인 인물들과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 어느 동시대인이 말하듯이, '유럽에는 세 개의 강대국이 있는데, 영국, 러시아, 그리고 스탈 부인이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스위스 은행업자 자크 네케르(Jacques Necker) (1732-1804)는 루이 16세 (1754-1793)의 재무 대신이었고 자유, 정부 그리고 헌법에 관한 책들의 저자였다. 네케르가 왕실 근무에서 면직된 후, 가족은 스위스로 이사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비록 그녀의 나이의 두 배지만—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올린 스웨덴 외교관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정치적 위기에 관해 쓰기 시작했지만, 나폴레옹의 첩자들이 그녀의 활동들을 감시하여, 그녀가 자기의 국외 생활을 계속하게 하였다.

1814년 그녀는 부르봉 왕정복고 하의 파리로 돌아왔고 1817년에는 ≪프랑스 혁명의 주요 사건들에 관한 고찰≫을 완성했다. 그 책은 근대 프랑스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은 그 혁명이, 한 세기 전에 영국에서 무혈 혁명을 낳았던, 바로 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드 스탈은, 자의적인 투옥과 추방같이,

프랑스 군주들에 의한 많은 권력 남용들을 혁명의 부분적인 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적 혼란 후에 보나파르트가 잡은 절대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적이었다.

프랑스는 자의적 권력에 의해 통치되었지, 법에 따라 통치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들을 해결할 수 있을 유일한 체제는 입헌주의, 정치적 온건, 대의 정부, 법의 지배 그리고 사유 재산의 자유주의 체제이다. 경제적 번영은, 자유 언론과 자유로운 출판으로 강화되고, 정치적 대표자들을 피치자들의 의지에 묶어 두는, 법의 지배,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다음 이것은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자유 외에는 어떤 것도,' 그녀는 썼다, '사회 질서에 이익이 되게 영혼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46]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 프러시아 철학자, 교육학자, 외교관 및 언어학자. **주요 사상:** 도덕성 발달에 필수적인 자유; 야경국가. **주요 저작:** ≪국가 행동의 한계에 관하여(On the Limits of State Action)≫ (1850).

훔볼트는 **존 로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의 사후의 책, ≪국가 행동의 한계에 관하여≫ (1850)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에세이 ≪자유론(On Liberty)≫ (1859)은 훔볼트의 견해들을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였다.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그는 썼다. 인간들의 가장 높은 목적은 자기 수양과 도덕성 개발이다. 자유는 이 목적에 필수적인데, 배울 광범위한 경험들과 선택지들

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참아야 한다. '자유는 웅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그는 썼다. 그러나 자유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립적인 사람조차도 태도의 획일성에 의해 자기의 발전이 좌절되고 방해된다.'

훔볼트에게는, 리버티(liberty)[라는 자유]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의 권리들과 능력들에 의해서만 제한되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자기들의 개인성을 개발할 '가장 절대적인 자유(the most absolute freedom)'를 누리고 다른 누구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오직 *야경꾼*(night-watchman)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를 침해에서 보호하지만, 우리의 자기 개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47] 벵자맹 콩스탕[앙리 벵자맹 콩스탕 드 르베크](Benjamin Constant[Henri Benjamin Constant de Rebecque]) (1767-1830): 스위스계 프랑스 소설가, 정치인, 정치 작가 및 활동가. **주요 사상:** 정부를 억제할 헌법들; 견제와 균형; 불법의 정부에 저항할 권리. **주요 저작:** ≪모든 정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 원칙들(The Principles of Politics Applicable to All Governments)≫ (1815).

콩스탕은 자신을 '자유주의자(liberal)'로 부른 최초의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었다. 여행을 많이 한 그는 독일과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애덤 퍼거슨**과 **애덤 스미스**의 사상들을 발견하였다. 비록 입헌 군주제와 입법부의 귀족적 상원의 신봉자였을지라도, 그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특히, 콩스탕은 헌법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기* (empower)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억제하기*(restrain)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 정치조차도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폭정으로 바뀔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했었듯이, 권력은 자기를 억제하기 위해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콩스탕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것은 동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대중의 동의를 잃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전 권한을 잃고, 그것의 강제력은 정당하지 않게 된다. 국민은 자기들의 자유들을 학대하는 정부들에 저항할 권리—정부 권력에 대한 또 하나의 소중한 억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오직 그곳까지만 데리고 간다. 사람들의 바쁜 생활들은 그들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가의 시간을 거의 남겨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voice)를 내는 것보다 *자유* (freedom)가 그들에게 더 소중하다. 콩스탕은 기본적인 자유들의 긴 목록을 작성했다. 개인적 자유, 종교적 자유, 자유 언론과 의견, 재산권들, 그리고 당국자에 의한 자의적인 결정들로부터의 면제를.

[48] 장-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1767-1832): 프랑스의 실업가 및 경제학자. **주요 사상:** 세의 법칙; 공급측 경제학; 자유주의적 진보 유인들. **주요 저작:** ≪정치 경제론(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1803).

('공급은 자기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어느 20세기 경제학자에 의해 요약된) 그의 이름을 딴 법칙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는 리옹의 신

교도(Protestant) 가정에 태어났다. 상업에서 생활할 운명이어서, 그는 영국에서 설탕 상인들을 위해, 그다음에는 프랑스에서 보험업자들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그가 프랑스 재무 대신의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바뀌었고, 다른 정부직들이 이어졌다—가 결국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원칙들을 해설하는) 그의 저작들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를 화나게 했고, 그 때문에 그는 사업으로 복귀하여, 큰 면직 공장을 운영하였다.

세의 법칙은 생산이 모든 수요의 원천이라고(**제임스 밀**과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더 이른 필자들이 이미 암시했었던 어떤 것) 암시한다. 세가 설명하듯이, 개인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성공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에만 돈을 번다—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들이 다른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살 여유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자유주의 결론이 있다. 첫째, 생산성과 투자는 번영을 높이는 유일한 길들이지만, 정부 지출과 규제는 실제로 그것을 손상할지 모른다. 둘째, 경제는 자율적이다. 만약 한 시장에 과잉생산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개입이 없이도 균형으로 돌아올 것—인데, 생산자들이 덜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거나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살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는 또한 화폐 억제도 옹호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 통화 팽창)은 상대 가격 신호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후에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F. A. 하이에크**가 취급한 문제). 그는 기업가들이 혁신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에 투자할 유인을 얻도록 화폐적 안정, 사유 재산, 규제되지 않는 가격, 경쟁, 낮은 세금 그리고 균형 예산을 옹호했다.

[49]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영국 경제학자, 주식 중개인 및 정치인. **주요 사상:** 경제 이론; 자유 무역; 비교 우위. **주요 저작:** ≪정치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관하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리카도의 경력은 성공적인 중개인이자 투기자로 시작되었다. 그는 프랑스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도록 시장 경기자들을 오도함으로써, 그리고 그다음 주식들과 증권들을 싸게 삼으로써, 1백만 파운드를 벌었다고 한다.

경제학자로서의 그의 경력은 그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76)을 읽었을 때 시작되었다. 스미스의 견해들에 엄밀한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는 지대, 임금, 이윤, 과세 그리고 가치의 이론에서 중요한 신개발품들을 만들었다. 1809년에 그는 영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은행권들 과잉 발행의 결과라고 주장했—고 이로써 그는 초기 통화주의자가 되었—다. 스미스처럼,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고, (밀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들이 국내 생산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지대를 올린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사고에 대한 리카도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아마도 (지금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로 알려진) 그의 상대 비용들의 이론(theory of comparative costs)이었을 것이다. 국가들은 자기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자기들이 생산했을지도 모르는 그 밖의 것들의 면에서) *상대적으로*(relatively)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에 전문화함으로써 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설사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absolute) 면에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에 전문화하고 장사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낫다. 이 원리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논거의 주요 기초들 중 하나가 되었고 여전히 그렇다.

[50]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역사가, 정치학자 및 철학자. **주요 사상:** 법률 및 교도소 개혁; 공리주의; 관용과 자유 언론; 대의 정부; 의회 개혁. **주요 저작:** ≪정치 경제학 원리(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1821); ≪정부, 법제, 출판의 자유, 교육, 그리고 교도소와 교도소 규율에 관한 에세이(Essay on Government, Jurisprudence, Liberty of the Press, Education, and Prisons and Prison Discipline)≫ (1823).

제임스 밀의 어머니는, 이 제화공 아들의 장래 가망을 향상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서, 그에게 엄격한 교육을 제공했고 심지어 성을 그것이 덜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들리게 하려고 밀른(Milne)으로부터 밀(Mill)로 바꾸기조차 했다. 제임스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저명한 그리스어 학자가 되었고, 자격증을 가진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재능은 가르치고 쓰는 것에 있었다.

런던으로 이사하여, 그는 수출 보조금을 비판하는 팸플릿을 저술했고, 평론들과 잡지들에 단골 기고자가 되었다. 간단하고, 명료하며, 논리적인 문체로, 그는 정치, 법 그리고 교육에 관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을 위해 표제항들을 썼고, (범죄 행위가 빈약한 교육에 기인한다고, 그리고 교도소들이 범죄자들을 재교육시켜야지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 개혁에 관한 논문들

을 썼다. 그는 ≪영국령 인도의 역사(The History of British India)≫ (1818)에 관해 방대한 3권으로 된 책을 썼고, 영국 지배에 대한 자기의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있는 인도 행정 기관(Indian civil service)에 들어갔다.

그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는 **제러미 벤덤**을 만났는데, 벤덤은 종교적 관용, 법률 개혁, 자유 언론, 자유로운 출판 그리고 민주적 개혁에 대한 그의[제임스의] 신념들을 공유했다. 그는 벤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벤덤 공리주의의 지도적인 옹호자가 되었는데, 벤덤의 거친 견해들을 널리 대중적인 철학으로 바꾸었다.

밀의 ≪정부론(Essay on Government)≫ (1820)은 광범위한 정치 개관이다. 공리주의 원칙들을 사용하여, 그는 정부가 공동체 안의 개인들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지해서 살고 싶을 것이므로(그리하여 그 사람들의 행복이 감소한다), 정부는 그러한 착취를 제한함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군주제와 귀족제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착취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 그러므로 대의 정부가 최상이다.

그러나 개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들에 관한 최상의 판관이고, 대표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이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억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밀은, 빈번한 선거, 짧은 임기 그리고 더 광범위한 선거권—비록 자기 아들 **존 스튜어트 밀**에 실망스럽게도 그가 여성을 위한 투표권을 포함하지 않았을지라도—을 포함하는 급진적인 개혁에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 밀의 견해들은 1832년 개혁 법안에 이르는 급

진적 의회 개혁의 옹호론을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7 개혁의 시대

미국에서, 19세기 전반부는 노예제 반대 운동들과 사상들의 현저한 증가를 목격했다. 많은 노예 폐지론자들은 또한 여성의 평등권들과 정치적 참가를 지지하기도 했고, 성의 불평등한 대우의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인종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은 종교적 원칙들에 호소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법에나 아니면 미국이 세워진 자유주의 원칙들에 호소했다. 그러나 어떤 노예 폐지론자들은 여성의 권리들을 노예제 반대 운동에 해독을 끼칠 수 있을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으로 보았다. 하여간, 노예제는 미국에서 1865년에 폐지되었지만, 여자들은 1920년까지, 그들의 투표권이 헌법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영국에서는, 1772년의 획기적인 법원 판결은 노예제가 거기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1808년까지는, 의회는 국제 노예무역을 불법화했었고, 영국 속령들에서도 노예제를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1833년의 노예제 폐지법(Slavery Abolition Act)으로 성공했다.

자유주의 *경제* 사상도 역시 구질서를 바꾸고 있었다. 혁명 후 프랑스에서는, 더 큰 사회적 이동성으로 **프레데리크 바스티아**와 같은 몇몇 사상가들은 독점들과 보호무역주의가 왜 계속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급속하게 산업화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리처드 코브던**과 **존 브라이트**가

마찬가지로 농업 보호들이 더는 공익에 이바지하지 않고, 그것의 토대를 침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철도들은 그러한 개혁주의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될 수 있게 하였다. 산업 혁명이 가져왔었던 모든 엄청난 사회 변화들과 함께, 그때는 국가의 역할에 관해 국가적 및 국제적 논쟁을 할 때였다.

[51] 윌리엄 엘러리 채닝(William Ellery Channing) (1780-1842): 유니테리언파 목사, 신학자, 노예 폐지론자 및 사회 개혁가. **주요 사상:** 성 평등; 생명권; 노예제의 폐지. **주요 저작:** ≪노예제(Slavery)≫ (1835).

채닝은 여성 운동의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었으며, 최초로 공개적으로 성 평등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것을 대개 종교적 원칙들에 근거하였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신의 눈에는 평등하다는 것을 영혼의 보편성이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사회에 반영되는 것을 '본능, 이익 그리고 강압'이 막았다고 말했다.

채닝은 또한 책들과 설교들로 노예제 반대 운동에도 착수했다. 재산권들의 본질상,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비록 그가 여전히 흑인들이 감독 없이 노예 해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지라도, 카리브해에서 영국의 평화로운 노예제 폐지는 그를 설득하여 또한 미국에서도 즉각적인 노예 해방을 요구하게 하였다.

[52] 사라 그림케(Sarah Grimké) (1792-1873): 미국 노예 폐지론자 및 여성 참정권 운동의 지도자와 **[53] 안젤리나 그림케**(Angelina Grimké)

(1805-1879):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 및 참정권 확장론자. **주요 사상:** 노예 폐지론과 여성의 권리들. **주요 저작:**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조건(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Condition of Women)≫ (사라, 1839); ≪남부의 기독교 여성에 대한 호소(An Appeal to the Christian Women of the South)≫ (안젤리나, 1836).

사라 그림케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게 된 저명한 미국 노예 폐지론자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예 소유 가정에 태어나, 그녀는 (불법적으로) 노예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도왔다. 북쪽으로 필라델피아로 이사하여, 그녀는 퀘이커교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안젤리나는 여성의 조건에 관해 신문사들과 성직자들에 편지들을 쓴 것 때문에 퀘이커교도 지도부와 충돌하였다. 사라의 1839년의 책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조건≫은 널리 판매되었다. 그녀는 여성 해방이 노예제 반대 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자들도 또한, 권리들과 책임들을 가진, 이성이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노예 폐지론자들은 그림케 자매들의 급진적인 여권주의(女權主義 · feminism)를 도움이 되지 않는 혼란으로 보았다.

안젤리나도 역시 저명한 노예 폐지론자였고 여성 권리 운동가였다. **휘호 흐로티위스**를 따라, 그녀는 '모든 노예 소유자가 인간 도둑(man-stealer)인데,'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그가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 가운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예 소유자들은 2백만 사람들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는다. 맨 처음 노예를 생포하는 사람은 강도질을 저지르지만, 노예 소유자도 '바로 그 범죄를 끊임없이 영속시킨다,'라고 그

녀는 말했다.

[54] 프레데리크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1801-1850):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및 자유 무역주의자. **주요 사상:** 보호무역주의 반대; 자유 무역과 투자; 기회비용. **주요 저작:** ≪경제학적 궤변들(Economic Sophisms)≫ (1845); ≪국가(The State)≫ (1848); ≪법(The Law)≫ (1850).

열 살까지는 양친이 없는 고아가 되어서, 바스티아는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었고, 자기 삼촌의 수출 기업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그는 조세와 규제가 상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배웠다. 그의 삼촌은 프레데리크가 24살 때 사망했고 그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동산들을 남겼는데, 이것들로 그는 철학, 역사, 정치 그리고 정치 경제학에 대한 자기의 지적 연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는 치안 판사(Justice of the Peace)로서 그리고 나중에 1848년 혁명 후에 국민 의회(National Assembly)의 자유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가장 잘 기억되는 것은 탁월한 경제 및 정치 논평자와 팸플릿 저자로서이다. 약간은 ≪경제학적 궤변들≫ (1845)에 모여 있는 그의 저작들은 대개 대중적인 에세이들과 풍자들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뒤엎었고, 자유 시장들의 편익들을 증명하였다. 그의 에세이들은 그것들의 신랄한 기지와 예리한 주장 덕분에 인기도서가 되었다—종종 과장과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에 의거하였고, 그 안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논리적이지만 명백하게 우스꽝스러운 그것들의 결론들에까지 가지고 갔다.

유명한 예는 ≪양초 제조업자들의 청원(The Petition of the Candle-Makers)≫ (1846)이었는데, 이것은 양초 제조업자들과 수지(獸脂) 생산업자들의 동업자 단체가 국민 의회(Chamber of Deputies · 하원)에 자기들을 불공정 경쟁에 대비해 보호해 달라고 청원하는 패러디였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는 경쟁자는 *태양*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초를 사용하여 자기들의 산업과 그것이[산업이] 발생시키는 고용을 증대시키도록 사람들이 낮 내내 자기들의 블라인드들을 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우화에서,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철도의 건설이 그들 사이 재화들의 이동을 장려할 것이지만, 그다음 양측의 생산자들이 값싼 수입품들로부터 자기들의 산업들을 구하도록 확실히 관세를 요구하여, 소비자들을 상태가 더 낫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의 유명한 논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That Which Is Seen and That Which Is Not Seem)≫ (1850)은 '깨어진 유리창의 우화'—1914년에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Friedrich von Wieser) (1851-1926)에 의해 전개되고 지금 경제학의 표준적인 원리가 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의 초기 진술—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부주의한 소년이 상점 창문을 깬다면, 그것은 유리 장수에게 6프랑 가치의 일을 창출—하고 그는[유리 장수는] 이제 지역 경제에 쓸 6프랑을 더 가지며, 또한 다른 지역 사업들도 증대—한다고, 바스티아는 말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창문 깨기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비록 바로 이 원칙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제 제도들의 태반을 규정할지라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상점 주인이 이제 지역 경제에 쓸 6프랑을

덜 가져서, 이득을 완전히 무효로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높*일* 것은 자유 시장들과 자유 무역이라고, 바스티아는 생각했다. 그는 프랑스의 자유 무역 협회(Free Trade Association)의 지도자가 되었고 **리처드 코브던**과 서신 왕래를 했다. 그는 자유 무역과 상업이 수입을 발생시킬 것이고 후자가 자본과 노동 양쪽 다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고 근로 대중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1848)에서, 바스티아는 국가를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살려고 하는 거대한 허구'라고 비판했고, ≪법≫ (1850)에서 그는 자유 사회를 규정할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법체계를 개설(槪說)했다. 개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신체,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권리들—법률들과 정부들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국가의 목적은 단지 이런 권리들을 보호할 '공동 무력(common force)'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국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돈과 재산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그것은 '법적 약탈(legal plunder)'일 것이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할 뿐인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예를 들면, 자기가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는—정부는 논리적인 정지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권자의 불활성(不活性), 법의 권력, 그리고 소위 민주적 입법자들의 무오류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는, 대중이 '도공(陶工)에 대한 점토(粘土)같이' 자기들 지배자들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국가주의일 것이다.

바스티아는 자기 생애 중 가장 지적으로 생산적일 때, 49세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55] 해리엣 마르티노(Harriet Martineau) (1802-1876): 영국 사회 이론가 및 정치 경제학자. **주요 사상:**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허구적 설명들. **주요 저작:** ≪정치 경제학 해설(Illustrations of Political Economy)≫ (1832-34).

해리엣 마르티노는 그녀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학적 주제들에 관한 책들과 에세이들을 많이 산출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의 여성 관점은 그 당시의 필자들 사이에선 드물었고, 그녀의 저작들은 여자들에 대한 태도와 소녀들의 교육을 바꾸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녀는 사회학자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의 저작을 번역했(고, 아마 틀림없이 개선했)으며, 종종 최초의 여성 사회학자로 여겨진다.

그녀의 아버지의 섬유 기업의 도산은 그녀가 전업 작가가 되도록 재촉하였다. 그 당시의 여성에게는 이례적으로, 그녀는 자기의 저술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었—고 그녀의 책들은 소설가이자 운동가인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의 그것들보다 몇 배나 더 인기가 있었—다.

마르티노의 ≪정치 경제학 해설≫ 시리즈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관한 허구적 표현 방법을 가지고 1832년에 시작됐다. 그것은 곧 성공과 갈채를 얻었고, 스미스를 국제적으로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것의 뒤를 제임스 밀, 제러미 벤덤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도에 관한 다른 허구적 해설들로 이었다. 이런 저작들은 가정 경제가 어떻게 더 넓은 경제 주제들을 반영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의 여자들을 경제학의 세계 속으로 데려왔다.

미국에 대한 오랜 방문 때, 마르티노는 **제임스 매디슨**과 많은 지도적인 뉴잉글랜드 노예 폐지론자들을 만났다. 그녀는 소녀들의 교육에 관해 연구하고 썼으며, 그 당시의 규범들이 어떻게 소녀들을 불충분하게 교육받게 하고, 수동적으로 하며, 남자들에 복종하도록 내버려 두는지를 한탄했다.

사회학자로서, 그녀는 가족, 종교 그리고 인종을 연구했다. 그녀는 사회가 일반 사회 법칙들에 따라 형성된다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여성의 역할을 포함하여, 과학, 인구, 그리고 종교적 및 사회적 제도들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 리처드 코브던(Richard Cobden) (1804-1865): 영국 제조업자 및 정치인과 **[57] 존 브라이트**(John Bright) (1811-1889): 영국 개혁가 및 정치인. **주요 사상:** 자유 무역의 부 창출 편익들; 보호무역주의 반대론; 맨체스터 자유주의; 곡물법들의 폐지. **주요 저작:** ≪어느 맨체스터 제조업자에 의한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England, Ireland and America, by a Manchester Manufacturer)≫ (코브던, 1835); ≪의회 개혁 연설들(Speeches on Parliamentary Reform)≫ (브라이트, 1866).

리처드 코브던은 세계 섬유 생산 중심지인 맨체스터의 캘리코 염색 기업(calico printing business)에 대한 자기 주식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그의 국제적 여행들과 그의 **애덤 스미스** 독서는 그에게 자유 무역의 장점들을 확신시켰다.

1838년 코브던은, 자유 무역 운동(Free Trade Movement)의 지도적인 연설자가 되어 있었던, 존 브라이트와 함께 반(反)곡물법 동맹

(Anti-Corn Law League)을 설립했다. 곡물법들(Corn Laws)은 수입되는 밀에 대한 높은 관세들이었다. 표면상 영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 그것들은 빵의 가격을 밀어 올렸지만, 힘 있는 지주들에 의해 옹호되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지대를 올렸다. 그 동맹은 개혁을 위한 주요 운동 집단이 되었는데, 팸플릿들을 출판하였고 전국에서 집회들을 개최했다.

코브던은 농업 보조를 종식하는 것이 시골 지역들의 빈곤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농민들과 상태가 좋은 일반 시골 주민 양쪽 다로부터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리하여 국가들 사이에 평화와 이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브던과 브라이트의 접근법은 *맨체스터 자유주의*(Manchester Liberalism) 혹은 *맨체스터학파*(Manchester School)로 알려지게 되었다. 1840년대에, 두 사람은 의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브라이트는, 코브던 논거들의 뒷받침을 받는, 경이적인 개혁주의 연설자가 되었다. 1846년에, 감자 수확물에서 흉작과 줄기마름병 후에, 그들의 노력은 성공했고 곡물법들은 폐지되었다.

코브던은 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상업을 개방하는 것을 도왔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자기의 자유 무역 견해들을 설교했다. 브라이트는 근로 계급을 더 많이 포함하는 헌법 개혁들에, 그리고 아일랜드 가톨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었다.

[58]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주요 사상:** 헌법 개혁들; 양원제 정부;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의 필요. **주요 저작:**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와 1840).

드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의 자기 관찰들에 토대를 둔 자기의 두 권의 ≪미국의 민주주의≫ (1835와 1840)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의 초기 저작으로서, 그것은 미국 정치의 강점들과 약점들, 특히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을 탐구했고, 혁명 후 프랑스의 민주적 재구조화를 위한 교훈들을 도출해 냈다.

드 토크빌은 귀족 노르망디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들은 프랑스 혁명 동안 영국으로 도망갔지만, 후에 프랑스로 돌아왔다. 비록 그의 양친은 여전히 군주제 지지자였을지라도, 알렉시는 1814년부터 프랑스를 통치한 입헌 군주제의 적극적인 비판자가 되었다. 1848년 혁명 후에는, 그는 새 정부에서 잠시 근무하였고, 새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귀족 배경이지만 자유주의적인 견해들은 그가 엘리트주의(elitism)와 대중영합주의(populism) 간에, 그리고 자유와 평등 간에, 목격한 긴장에 반영되어 있다. 그가 자유주의적인 의회 정체를 옹호했지만, 그는 민주주의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에 의해 주조된 '다수의 횡포(the tyranny of the majority)'라는 구절을 대중화했—다.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 그는 양원제 의회와 일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요구했다. 더욱 일반적으로, 그는 정치 체제들의 다양성과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요구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연구는 미국의 교도소 제도를 조사할 위임을—비록 이것이 주로는 미국 사회와 정치를 연구할 구실이었을지라

도—얻었을 때 시작되었다. 똑같은 탐구 정신에서, 그는 또한 영국, 알제리 그리고 아일랜드도 방문했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협에 관해서도 알려고 노력했다. 민주적 평등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왔던 자신감을 그가 찬탄했지만, 옛날의 사회적 계층제들의 쇠퇴가 민주주의를 억제되지 않게 내버려 뒀다고 그는 걱정했다. (아무리 잘 모르고 있어도)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이 중요한 사회에서, 도덕적이건 정치적이건, 유일한 권위는 다수파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은 다수파에 대항하거나, 그것에 대해 자기들의 권리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중이 개인들을 압도하는 것은 더욱 있을 법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민주적 평등은 확대되는 중산 계급의 물질주의와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넓은 사회 건강에 관해 더 적게 생각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즉 자기 몰두)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생각 없는 대중영합주의로 부지중에 빠질 것이다. 다수결주의의 독재는 발명과 자기표현을 질식시킬 것이다.

드 토크빌은 미국이 또한 평등을 향한 과도한 충동이지만 자유에 대한 불충분한 헌신으로도 고통받는다고 느꼈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들*(social values)을 민주주의에 주입할 새로운 종류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self-interest rightly understood)'—사회적 가치들, 예견 그리고 자제에 의해 온건하게 된 것—이어야 한다.

고삐 풀린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억제는 *시민 사회*(civil society)였는데, 드 토크빌은 그것이 미국에서 강력함을 발견하였다. 그

는 미국인들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신학교들을 설립하기 위해, 여관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들을 건설하기 위해,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지구상 정반대 지점들에 보내기 위해' 어떻게 끊임없이 단체들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병원들, 교도소들, 그리고 학교들을 설립한다.'

그는 미국의 헌법적 틀이, 자기의 독립적인 사법부, 지방 분권화된 의사 결정, 양원제 정부 그리고 일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에서의 민주적 헌법의 훌륭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귀족 뿌리를 반영하여) 그는 너무 많은 권력이 입법부에 귀속되어 있고, 거기서 짧은 선거 주기가 이류(二流)의 입법자들을 낳는다고 느꼈다. 프랑스는 더 강한 행정부를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결사의, 종교의 그리고 출판의 자유라고, 그는 생각했다.

[59]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 (1805-1879): 미국 노예 폐지론자 및 언론인. **주요 사상:** 노예 폐지; 여성의 권리들; 소극적 저항. **주요 저작:** ≪해방자(The Liberator)≫ (1831-65).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상선 선원인 자기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윌리엄의 독실한 침례교도 어머니가 그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채로 놔두었을 때 그저 유아일 뿐이었다. 열세 살에, 몇몇 성공하지 못한 모험사업들 후에, 그는 ≪뉴베리포트 헤럴드(Newburyport Herald)≫ 주필의 도제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그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기의 20대에 그는 자기 자신의 신문을 얻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그는 그것을 ≪뉴베리포트 자유 신문(Newburyport Free Press)≫이라

불렀는데, 하기야 그것은 후원자들과의 사설 논쟁들 때문에 파산했다.

개리슨은 친(親)절제 및 친(親)개혁 신문의 출판자와 주필로서 보스턴으로 이사했고, ≪노예 해방의 천재(Genius of Emancipation)≫의 저자 벤저민 런디(Benjamin Lundy) (1789-1839)를 만났는데, 런디는 그를 노예 폐지 운동에 끌어들였다. 개리슨은 뉴잉글랜드 노예제 반대 협회(New England Antislavery Society)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해방자≫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도적인 노예 폐지론자 신문이 될 것이다.

개리슨은 노예제가 모든 개인의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미국 노예들을 서아프리카로 옮기는 것을 옹호했지만, 이 아이디어를 포기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제안자들은 그것을 자유 흑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여자들이 노예제에 반대하는 청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들에 대한 논쟁을 점화했다. ≪해방자≫는 **그림케 자매**의 논설들을 실었고 노예 해방의 지도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이것과 개리슨의 반(反)헌법주의는—그는, **프레더릭 더글러스**와 더불어, 미국 헌법이 본질적으로 노예제를 지지한다고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예 폐지론자 운동을 분열시켰는데, 그들 중 약간은 이 주의(主義)들이 노예 폐지론 메시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걱정하였다. 분열들은 개리슨이 직접적인 행동과 폭력을 거부하여 더 깊어졌다.

비록 평화주의자였지만, 개리슨은 급진적이고 솔직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나의 말의 혹독함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혹독할 이유가 없는가? 나는 진실만큼 혹독하겠고, 정의만큼 비타협적이겠다. . . . 그리고 나는 심문의 대상이 *되겠다*.' 참으로, 그는 매우 솔직해서 조지

아 노예 주(州)는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1835년,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수천 명의 폭도가 그가 연설하고 있던 어느 보스턴 빌딩을 둘러쌌고 밧줄로 그를 거리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다.

노예제가 폐지된 후, 노예제 반대 운동은 개리슨이 그것의 목적이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을 때 다시 분열되었다. 그는 물러났지만, 민권들과 여성 참정권 같은 다른 개혁 운동들에 여전히 연루되었다. 유럽에서, 그는 **존 브라이트**, **존 스튜어트 밀**,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다른 자유주의자들을 만났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에 반대해서, 그는 상업이 모든 계급에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고, 자유 무역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할 것을 옹호했다.

[60]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 철학자 및 개혁가. **주요 사상:** 선택과 책임; 다수의 횡포; 무해 원칙; 온정주의의 문제들; 자유 언론; 자유 결사; 생활양식 자유; 대의 정부; 연방주의; 공리주의. **주요 저작:** ≪자유론(On Liberty)≫ (1859); ≪대의 정부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1); ≪공리주의(Utilitarianism)≫ (1863).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이 **제러미 벤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가르쳤다. 그의 교육은 맹렬했다. 세 살에 그는 그리스어를 배웠다. 여덟 살에 라틴어를 배웠다. 열 살까지는 그는 모든 고전 저자 저작들을 읽을 수 있었다. 열두 살까지는 그는 논리학과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네 살까지는 그는 과학과 수학의 강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속 학습(accelerated learning)은 자기의 대가를 치렀

다. 스무 살에 그는 신경 쇠약을 겪었는데, 후에 그것을 자기가 진정한 어린 시절을 가지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비록 그가 경험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이성을 철저히 배웠고 종교나 기타 '불합리한(irrational)' 사상에 노출되지 않았을지라도, 성년에 그는 합리성에 우선하여 인간의 다양성, 자발성, 개인성, 독창성 그리고 고유성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빌헬름 폰 훔볼트**와 같이, 밀은 인간들의 개인적 및 도덕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유를 이것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행동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코 배우고 발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인간들은—예를 들어, 자기들의 생활양식에 대해—선택할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정의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인간성을 적합하게 행사하기 위해, 그들은 선택할 다양한 선택지들이 필요하다. 유럽에 그것의 '진보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발전'을 제공한 것은 유럽의 다양성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사야 벌린은 밀의 ≪자유론≫ (1859)을 '공개적이고 관용하는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관점에 관한 가장 명백하고, 가장 솔직하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해설'이라고 불렀다. 밀은 (**드 토크빌**같이), 자유에 대한 옛날의 위협들이 군주제와 귀족제였지만, 새로운 위협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한다. 다수파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문화도 형성하고, 사람들을 자기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면한 양(industrious sheep)'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밀은 *자유*(liberty)를 책에서 일찍부터 정의했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

를 끼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는 주장했다. 가족들, 집단들 그리고 정부들은 똑같은 무해(無害) 규칙(no-harm rule)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자기들의 동료 누구의 행동 자유에든 간섭하는 데서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이다. . . . 문명 공동체의 어떤 성원에게든,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를 막는 것이다.

해(害)는, 밀에게는, 물리적 해를 의미했지, 그저 모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물리적 해는 명백히 알 수 있지만, 모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엄밀하게 그어지지 않는다면 그 규칙은 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온정주의(paternalism)—어떤 사람의 자유를 '그 사람 자신을 위하여' 간섭하는 것—도 반대했다. 이런 근거들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기가 너무 쉽다. 심지어 의도가 좋은 통치자들도 국민에게 실제로 좋은 것을 잘못 아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선택을 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해 원칙은 또한—(밀의 유명한 예에서) 꽉 찬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물리적 해를 일으키는 *위험*(risk)에도 적용된다. 그것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다칠 수 있게 하는 데—예를 들어, 연못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까지도, 만약 그것을 쉽게 막을 수 있다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밀은 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디에 놓여 있는지—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혹은 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는지—규정하지 않았다.

밀은 무해 원칙이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우리의 기본권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는 결사의 자유와 기호, 취미 그리고 생활 계획에 대한 자유를 옹호했다. 그는 또한 개방된 담화(open discourse)가 우리의 지적 및 사회적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하기도 했다. 자유 언론을 검열하거나 막는 것은 위험하다. 검열된 의견이 실제로 사실일지 모르거나, 그것이 허위지만 진실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의견들에 대한 그것의 도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견들이 강건하도록 확실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전받지 않는 채로인 의견들은, 도덕적 혹은 지적 힘이 없는, 순전한 독단으로 될 것이다.

≪대의 정부에 관한 고찰≫ (1861)에서, 밀은 제한 및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의 지지를 개설(槪說)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규모 복잡한 공동체에 실행할 수 없다고, 그는 조언했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책 질문들이 자세하게 토의될 수 있게 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정치 과정에 관여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한 민주주의는 지방적 쟁점들이 지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연방* (federal)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방의 소수파가 지방의 다수파의 변덕에 대비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중앙 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요 역할은 다수파에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촉진할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밀은 자기의 마음의 친구(이자, 후에, 아내)인 **해리엣 테일러**에 의해 이 접근법으로 끌렸을지 모른다. 그는 확실히 그녀의 여권주의를 공유했다.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1869)에서, 그는 여

자들이 왜 완전한 평등을 누려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밀은 또한 자기 스승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는 행복이 쉽게 측정되고 계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양하고 그들의 계산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higher)' 기쁨과 '더 낮은(lower)' 기쁨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Better Socrates dissatisfied than a pig satisfied).' 더 높은 기쁨이 선호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양쪽 다 시험해 본 누구도 더 낮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암시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수정될지라도, 밀의 공리주의는 *권리들*(rights) (벤덤은, 더욱 시종일관하게, 그것들을 '허튼소리(nonsense)'라고 무시했다)에 관한 그의 옹호와 불화하는 것 같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권리들을 사회적 효용이나 일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는가?

[61] 해리엣 테일러 밀(Harriet Taylor Mill) (1807-1858): 영국 여권주의자 및 개혁가. **주요 사상:** 여성 교육과 선거권; 근로자 공동 소유권. **주요 저작:** ≪여성의 참정권 부여(The Enfranchisement of Women)≫ (1851).

해리엣 테일러는 여자들이 가사 업무에 적합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인습을 깨뜨렸고, 대신 그들의 참정권 부여와 독립을 찬성하는 주장을 하였다. 가정에서 남성 지배는 교육과 개인적 발전을 위한 여자들의 기회들을 차단했다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투표를 포함하는) 정치

권력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법률들이 계속해서 남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니테리언 교도로 길러진 해리엣은 존 테일러(John Taylor)(1787-1849)와 결혼했는데, 그때 그녀는 18살이었고 그는 이미 39살이었다. 그것은 불행한 결혼이었고, 곧, 그녀는 **존 스튜어트 밀**과 (그 당시 아주 소문이 나쁜)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존 테일러가 사망한 2년 후에 결혼했다.

선거, 행정 관청 그리고 법조계에서 여성의 정치적 평등에 대한 급진적 요구인 ≪여성의 참정권 부여≫ (1851)는 밀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비록 그가 그녀를 저자로 인정했을지라도 그렇다. 그는 비슷하게 그녀가 많은 신문 논설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률을 비판하는 한 팸플릿의 원저자나 공저자임을 밝혔다. 보편적인 교육과 산업의 근로자 공동 소유권을 옹호하는, 밀의 ≪정치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의 한 장도 역시 그녀의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다. 해리엣이 자기 남편의 저작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는 그녀의 사망 후 그녀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비슷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중 어느 쪽이 펜을 잡는지는 . . .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62]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 (1808-1887): 미국 무정부주의자, 노예 폐지론자 및 법률 이론가. **주요 사상:** 규제 해제와 경쟁;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노예제와 헌법; 무정부주의. **주요 저작:** ≪노예제의 위헌성(The Unconstitutionality of Slavery)≫ (1845).

스푸너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비(非)졸업자들에게 긴 수습 기간을 부과하는 주 법률들을 무시했—다. 그는 그러한 법률들이 가난한 경쟁자들로부터 부유한 졸업자들을 보호한다고 불평했고, 계속해서 변호사, 의사 그리고 기타 전문직들의 모든 면허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것을 계약 자연권의 부정으로 보았다. 그는 심지어 미국 우체국의 독점에 도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우편 회사를 창설하기조차 했다—비록 정부가 법적 이의 제기들로 경쟁을 격퇴했을지라도.

스푸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제에 반대했다. 예를 들어, 고리대금 금지 법률들로 빌려주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 수반되는 더 높은 위험과 안전 결여에 대해 자신들에게 보상하도록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창업들이 더 적었고, 경쟁이 더 적었으며, 오직 기성 소수만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스푸너는 개인들의 개인적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그것들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범죄들*(crimes)은 어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해할 의도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들이지만, *악덕들*(vices)은 어떠한 그러한 악의도 함축하지 않고, 오직 행동하는 사람만이 (잠재적으로) 해를 입는다. 법에서는 '범죄적 의도가 없이는 범죄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결코 그러한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악덕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것은 폭정에의 문을 열 것이다. 악덕들과 범죄들 사이의 이 명백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개인의 권리, 자유 혹은 재산과 같은 것, 자기 자신의 신체와 재산의 통제에 대한 한 사람의 권리와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 . . .

더군다나, 개입하는 것의 장기적 결과들은 종종 명백하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에, 어디서 악덕이 끝나고 미덕이 시작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에서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장기적 행복과 불행을 촉진하는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만약 이 큰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내버려 두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론지었다,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이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각자의 전 권리가 그에게 부정된다.'

오늘날, 스푸너는 그의 1845년의 책 ≪노예제의 위헌성≫으로 가장 잘 기억되고 있다. 많은 노예 폐지론자들은 미국 헌법이 법적으로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오직 헌법 개정이나 비(非)노예 주들의 새로운 연합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스푸너는, 건국자들이 그것을 기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었건, 실제 원문은 노예제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탈퇴해서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노예 주들(slave states)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는 남북 전쟁을, 주들에게 정부를 떨쳐 버릴 그들의 자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합중국을 보존하려는, 강제적인 중앙 집권주의 시도로서 반대했다.

그러한 견해들은 스푸너의 무정부주의를 강화했다. 1870년 그는 헌법이, 논리적으로, 오직 그것에 서명한 사람들만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이고, 그래서 현대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자연법과 피치자들의 동의에 어긋나, 강제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헌법은 명백히 폭정에 대비한 방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배심원단들이 법정에 진술된 의론들에 대해 재정(裁定)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정당성에 대해서 재정하기도—그

리고 심지어 그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법률 아래서 기소된 어떤 사람을 유죄로 결정하기를 거부하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3]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미국 철학자, 노예 폐지론자, 조세 저항자 및 무정부주의자. **주요 사상:** 시민 불복종; 무정부주의; 노예 폐지론; 과반수 투표의 불의. **주요 저작:**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1849).

소로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Concord)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의 아버지는 연필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거기에 그가 관여했다) 그의 어머니는 캐나다로 탈출하는 도망 노예들을 보호하는 노예제 반대 개혁가였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잠시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다가, 나중에 수필가이자 연설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의 아이들의 가정교사를 하는 권유를 받아들였는데, 에머슨은 그에게 급진적 사상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첫사랑은 시골이었다. 자기의 책 ≪월든(Walden)≫ (1854)에서 서술되었듯이, 그는 숲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로 물러났다. 그는 또한 자기가 (특히 노예제와 전쟁에 관한) 그것의 가치들을 경멸한 정부에서 '물러나서 떨어져 서 있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투옥되었다. 비록 어느 친구가 그를 대신해서 그 세금을 납부했을 때 곧 석방되었을지라도, 이 삽화적(揷話的)인 사건은 그를 고무하여 ≪시민 불복종≫ (1849)을 쓸 생각이 들게 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강건한 무정부주의를 개설했다. '전혀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이다,'라고, 그는 썼다. '정부의 권한은

. . . 피치자들의 시인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나, 헨리 소로는 내가 가입하지 않은 어떠한 법인 사회(incorporated society)도 구성원으로서 간주되고 싶지 않다.' 정당성이 있는 정부는, 자기처럼, 그것에 충성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들은 단지 행동, 거래 그리고 진보에 대한 장애물들만 창설했다고, 그는 썼다. 그는 과반수 규칙을, 정의가 아니라,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판했다. 정당성이 있는 국가는, 다수파의 권력이 아니라, 개인들의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부당한 법률들은 위반되어야 한다. 심지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도 정부 불의들에 대한 동의를 함축한다.

[64]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 (1818-1895):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 폐지론자 및 개혁가. **주요 사상:** 노예 폐지론; 인간 선택과 책임. **주요 저작:**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merican Slave)≫ (1845); ≪나의 속박과 나의 자유(My Bondage and My Freedom)≫ (1855);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삶과 시대(Life and Times of Frederick Douglass)≫ (1881).

더글러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탈출하여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퀘이커 시(Quaker city・필라델피아의 속칭)로 갔고, 거기서 그는 노예 폐지론 단체들에 가담했으며, 목사와 저명한 노예제 반대 연설가가 되었다. 1800년대 중반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했고 노예 폐지론 대의를 논했다.

비록 주로 운동가였을지라도, 더글러스는 노예제가 인간 책임의 원칙

을 위반한다는 자유주의 논거를 전개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으면 개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여성의 정치권들을 촉구하기도 했고, 정부들이 인류의 반의 지력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소유권, 자기 자신의 노동을 사용할 권리, 제한된 정부 그리고 자립이라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유 재산을 지지했고, 참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인간의 의무로 보았다.

비록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이 초기 친구가 되었을지라도, 더글러스는, 국가가 어떻게 노예제를 시인했—고, 심지어 노예 폐지 후에조차도, 법률들과 (노동조합 같은) 제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인종적으로 차별했—는지를 고려하면, 개리슨의 평화주의 무정부주의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가가 자기가 일으켰었던 불평등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토지 무상 불하의 형태로의 *배상*(restitution)과 미국 헌법의 더 엄격한 고수를 요구하였다. 그의 비전은 평등과 자유였다. '흑인에게 공정한 경기를 제공하라,'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라.'

[65] 구스타브 드 몰리나리(Gustave de Molinari) (1819-1912): 벨기에 자유 시장 경제학자. **주요 사상:** 무정부 자본주의; 국가, 권력 그리고 특권의 비판; 민간 경비. **주요 저작:** ≪안보의 생산(The Production of Security)≫ (1849); ≪내일의 사회(The Society of Tomorrow)≫ (1899).

머리 로스버드에 따르면, 몰리나리는 *무정부 자본주의*(anarcho-capital-

ism)—정부 없는 경제적 자유—의 최초의 옹호자였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프레데리크 바스티아**의 숭배자로서, 그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자유방임의 지도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언론인이자 경제학자로서의 긴 생애에 걸쳐, 그는 자유 무역, 최소 국가, 평화 그리고 노예 폐지론의 사상들을 촉진했고,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군사주의를 경고하였다.

철저한 개인주의자로서, 그는 **존 로크**와 기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긴 안보에 대한 국가 독점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자연적으로 상호 보호를 위해 발생한다는 신화적 통념에 도전하여, 그는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다. 오히려, 만약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그저 자기들을 방어하는 데 전문 제공자들을 고용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할 일이다. 안보나 기타 공공 서비스들이 왜 달라야 할까?

독점은 강압에 의존한다고, 몰리나리는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독점 가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사적 독점이 집합적 독점으로 대체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강압에 의존한다. 그리고 가장 해로운 독점은 안보인데, 왜냐하면 안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대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들을 다른 사람들에 강요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강제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압의 국가 독점이 전쟁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촉진하는*(promotes) 이유이다.

사람들은 강압의 사용에 대한 약간의 의회 통제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강제 때문에 떠받쳐지는 독점이다. 입헌적 약탈도 여전히—자기들의 지배자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의 통치 권리에 대한 사람

들의 신뢰 토대를 침식하는—약탈이다. 그러나 사회적 장치들은 또한 공포보다 효용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보호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매매 계약을 맺을 것이고, 효율의 편익과 돈에 대한 가치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데이비드 프리드먼**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66]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영국 사회학자 및 박식가. **주요 사상:** 자유와 진보; 조화로운 사회들의 진화; 정치적 권리들; 보통 선거권. **주요 저작:** ≪사회 정학(Social Statics)≫ (1851); ≪인간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 (1884).

집에서 교육받은 스펜서는 철도 토목 기사로 일한 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가담했다. 그는 자유 무역, 자유 방임 그리고 제한된 정부에 대한 그 잡지의 지지를 공유했지만, 그의 관심들은 인간 사회 심리학으로 향하였다. 그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을 발표하기 몇 년 전에 진화론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윈과 달리, 그는 자연 선택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고, *획득된*(acquired) 특질들이 전달된다고[지금 라마르크설(Lamarckism)이라고 알려진 실수] 믿었다. 그는 또한 진화론을 심리와 문화에 확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윈이 진화를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본 곳에서, 스펜서는 '완전한 사회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의 우리의 진화적 진보를 상상했다. 인간 사회들은 단순하고, 계층적이며, 호전적인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협동적이며, 산업의 것으로 진화했었다고, 그는 암시했다. 그 결과, 개개 인간들은 덜 공

격적인 동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適者) 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구절을 주조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스펜서였다. 이것으로 그는 '사회적 다윈주의자(Social Darwinist)'—'사람들을 어리석음의 효과들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적인 효과는 세상을 바보들로 채우는 것이다,'와 같은 다른 포괄적인 언급들로 보강되는 인상—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사회적 진화론자였을지라도, 스펜서는 사회적 다윈주의에서 멀어졌고, '(최)적자(fittest)'가 반드시 '최상의 것(best)'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펜서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자*(liberal utilitarian)였다. 진화는 협동과 같은 유용한 성격 특성들(character traits)을 촉진한다고, 그는 ≪윤리학 원리(The Principles of Ethics)≫ (1879-93)에서 설명했다. 이것은 집단의 생존과 복지—와 그러므로 그것 안에 있는 개인들의 생존과 복지—에 이롭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그는 자유 사회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빨리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실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더 많은 재료를 진화에 준다고, 그는 설명했다. 개인의 자유는 또한 도덕적 평등, 평등한 정의, 그리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의 사상들과도 관련되어 있었고, 이것들은 다시 이 성공적인 진화와 그러므로 일반 행복에 이바지하였다. 이 사상들은 개인들과 사회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자유주의적인 사법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용하는 사회들은 번창하는 사회들이다.

그러므로 스펜서에게는, 효용은 —개인의 권리들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근거지를 둔*(based in)—매우 자유주의적인 개념이었다. ≪인간 대 국가≫ (1884)에서, 그는 해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

어로서 권리들을 지지하는 강건한 주장을 하였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한 침해에 대해 우리의 도덕적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부*(government)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다음 정부 그 자체가 우리의 도덕적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들*(political rights)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할 충동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더는 사람들을 감히 그들의 정신을 위해 강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그들을 그들의 물질을 위해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가 다른 것만큼 쓸모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서.'

스펜서는 국가를 제한할지 모르는 여러 정치권을 고찰했다. ≪사회 정학≫ (1851)에서, 그는 보통 선거권을 본질적인 정치권으로서 옹호했는데, 하기야 차후의 ≪윤리학 원리≫ (1879)에서 그가 그것을 '과잉 입법(over-legislation)'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단념하기는 했다. 그가 원래 근본적인 것으로 본 또 하나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끊을—그것에 돈을 붓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그것의 편익을 받지 않을—자유였다. 그러나 다시 만년(晩年)에 그는 이 생각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사회 정학≫에서 그는 사적 토지 소유가 대부분 사람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리학 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포기했다.

비록 스펜서가 경험에 기초하여 자기 견해들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런데도 그는, '모든 사람의 같은 자유에 의해 제한되는 각자의 자유는 그에 따라 사회가 조직되어야 하는 규칙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근본 원칙에 여전히 충실했다.

[67] 존 엘리엇 케언스(John Elliott Cairnes) (1823-1875):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학자. **주요 사상:** 경제학적 방법; 불완전 경쟁; 노예제의 경제적 결함. **주요 저작:** ≪정치 경제학의 성격과 논리적 방법(The Character and Logical Method of Political Economy)≫ (1857); ≪노예 권력(The Slave Power)≫ (1862).

아일랜드 맥주 양조업자의 학구적 성향의 아들이었던 케언스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Dublin)에 들어갔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지만, 개업하지 않았고, 경제 문제들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한 저명한 친구가 그에게 정치 경제학 학과장(Chair of Political Economy) 자리를 얻어 주었다.

그의 강의들은 ≪정치 경제학의 성격과 논리적 방법≫ (1857)으로 출판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케언스는 그의 제자였다)의 ≪정치 경제학 원리≫ (1848) 이래로 정치 경제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인 그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개진했다. 정치 경제학은 *과학*(science)이고, 그래서 사회 체제들과 사실들에 관해 중립적이라고, 케언스는 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대상을 가지고 자연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실험할 수 없고, 그래서 경제학은 결코 수학적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연역적이어야 하고, 기정사실들로부터 원리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 자신 사실들에 능숙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캘리포니아에서의 금 생산에 관한 자기의 연구로 그는 자기 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폐 분석인

것에서 *화폐 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을 부활시키게 되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그 이론을 백 년 후에 부활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케언스의 사실적인 노예제 분석으로 그는 그것의 단점들을 강조하게 되었다. 노예제는 기술 혁신을 억제하고, 토지를 혹사하며, 기업을 억누르고, 궁극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그의 책, ≪노예 권력≫ (1862)은 영국 여론이 미국의 남부 연방(Confederacy)에 등을 돌리게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케언스는 , 계급 제도 때문에, 노동이 어떻게 그다지 이동성이 있지 않은지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 모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는 오히려 비경쟁적인 산업 집단들의 모음이다. 이 견해들은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의 현대적 취급을 자극했다.

[68] 에드워드 앳킨슨(Edward Atkinson) (1827-1905): 미국 반(反)제국주의 운동가. **주요 사상:** 노예 폐지론; 반제국주의; 자유 무역. **주요 저작:** ≪과세와 근로(Taxation and Work)≫ (1892).

자금 부족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앳킨슨은 보험과 면제조에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또한 개선된 스토브, 알라딘 쿠커(Aladdin Cooker)를 발명하기도 했고, 미국 예술 과학 협회 회원(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반제국주의, 노예 폐지론 그리고 자유 시장들의 자유주의 사상들—그가 자기의 행동주의를 통해 그리고 은행업, 자유 무역, 경쟁, 규제 그리고 지폐의 해악들을 포함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 및 경제 주제들에 관한 막대한 작품 양의 논문들과 팸플릿들을 통해 추구한 사상

들—을 결합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스페인-미국 전쟁 후 미국 대통령들 윌리엄 매킨리 (1843-1901)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1858-1919)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 정책들에 충격을 받아, 앳킨슨은 미국 반제국주의 연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그것의 지도적인 활동가이자 팸플릿 저자가 되었으며, 해외에서 미국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에게 반제국주의 팸플릿들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탈출한 노예들을 돕는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노예 폐지론자 존 브라운(John Brown) (1800-1859)의 무장 반란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하기도 했다. 그의 사망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차례의 소화불량'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69] 조제핀 버틀러(Josephine Butler) (1828-1906): 영국 사회 개혁가 및 여성 참정권론자. **주요 사상:**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노예 해방; 성매매방지법률들의 개혁. **주요 저작:** ≪여성의 교육과 고용(The Education and Employment of Women)≫ (1868).

사회 개혁가로서, 조제핀 버틀러는 여성 교육과 공중위생을 향상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자유주의적 여권주의*(liberal feminism)를 강력한 힘으로 만들었고, 정책 결정자들과 맞섰으며, 어려운 사회적 쟁점들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운동가로서, 그녀는 차후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 힘을 줄 정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전개했다. 그녀가 쓴 작품은 약 아흔 권의 책과 팸플릿을 포함한다.

버틀러는 수상 얼 그레이(Earl Gray) (1764-1845)의 사촌이었던 어느

개혁가이자 노예 폐지론자의 딸이었다. 그녀가 결혼했을 때, 교회 교사로서의 그녀 남편의 일로 그녀는 리버풀로 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가족복지 문제들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구빈원(救貧院 · workhouse)에서 소녀들을 구하여, 그들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주었고, 아동 성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12살만큼의 어린 창녀들의 노예무역을 발견했었다. 이 경험으로부터, 그녀는 영국의 법적 성관계 승낙 나이를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결국 성공한 운동을 이끌었다.

그녀의 두 번째 운동은 전염병에 관한 법률들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육군과 해군에서 성병의 확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게 항구들과 군인 마을들의 여자들을 체포하여 그들에게 강제 건강 진단을 받게 하는 권력을 주었다. 만약 그들이 저항하거나 감염의 기미를 보이면, 그들은 투옥될 수 있었다. 버틀러는 이것이 젊은 여자들에 대한 경찰 괴롭힘을 조장하고, 인구의 반에게서 그들의 법적 권리들을 빼앗지만 다른 반은 감염의 확산을 멈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자들이 투표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한 여성이 그러한 '외설적인(indelicate)' 주제들에 관해 말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버틀러는, 공개회의들에서조차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다시, 그녀의 운동은 인식을 높였고 결국 성공했다.

덧붙여서, 버틀러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자들의 '타고난(natural)'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이 수백만의 미혼 여자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여성 고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분투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재촉하여 여자들만의 뉴넘 대학(Newnham College)을 설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 근대 시대

19세기 중반까지는, 세계는 무역 확대의 보상을 거두고 있었다. 미국과 아시아의 면화는 영국의 거대한 섬유 산업에 원료를 대었고, (증기력과 수력에 기반을 둔) 자동화는 그때 세계 여기저기에 수출되던 의복과 직물의 가격을 대폭 삭감하였다. 증기력은, 재화들과 사람들 양쪽 다에 대해, 여행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목재와 석탄 같은 원료들은, 차, 커피 그리고 이국적인 향료와 같은 외국산의 사치품들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해마다, 무역하는 세계는 더 부유해지고 있었다.

부와 더불어, 사회와 정치에 관해 생각할—그리고 무언가 할—여가가 생겼다. 영국은 이미 노예제를 종식했고, 자기의 의회를 개혁했으며, 보호주의 곡물법들을 폐지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논쟁을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급속한 산업화는 가족들과 사회 제도들에, 그리고 도로와 강 같은 공공 기반 시설에, 긴장을 초래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social)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는—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하는*(enabling)—광범위한 감정이 자랐다. 급격한 변화는 어떤 운동가들을 무정부주의(국가 없는 사회)와 공산주의(자원들의 집합적 소유) 같은 새로운 사상들 쪽으로, 다른 운동가들을 도로 보수주의적인 과거로, 몰았다. 반면 새로운 경제 및 진화 이론들은 정치 및 사회 사고를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들로 데리고 갔다.

[70] 액턴 경[존 댈버그-액턴](Lord Acton[John Dalberg-Acton]) (1834-1902): 영국 가톨릭 역사가 및 정치인. **주요 사상:** 권력은 부패한다;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개인;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자유를 보존하는 데서의 사상의 중요성. **주요 저작:** ≪자유의 역사와 기타 에세이들(The History of Freedom and Other Essays)≫ (1907).

비록 액턴이 자유주의자이기보다 보수주의자였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말,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로 자유주의자들의 가슴에 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

액턴은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그리고 개인이 최고 가치라는 사상을 전개하는 데 여러 세기가 걸렸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다.' 그것은 '권력과 다수파, 관습과 여론의 영향력'에 대비한 보호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헌신적인 가톨릭교도로서, 그는 *자유*(liberty)와 *방종*(licence)을 예리하게 구별했다. '자유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권리이다.'

액턴은 미국 헌법의 연방 구조를 개인적 자유의 보호자로서 찬양했다. 그는 남부 연방(Confederacy)을 그것이 중앙 집권화된 정부—만약 견제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이것이 쉽게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에 반대하여 주들의 권리들을 방어하기 때문에 지지했다.

그러나 헌법만으로는 자유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는 우리의 제도들이 뿌리박혀 있는 사상에 달려 있다. 심지어 자유주의 제도들조차도 만약 그것들이 개인들의 가슴과 마음에 살아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퇴화한다. 비록 정부의 제도들이 형태에서 자유주의적인 것 같을지 몰라도, 그런데도 그것들은 반드시 실제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71] 오버론 허버트(Auberon Herbert) (1838-1906): 영국 정치인 및 개인주의 철학자. **주요 사상:** 주의주의(主意主義); 유일한 정부 역할인 보호. **주요 저작:** ≪국가에 의한 강제의 옳고 그름(The Right and Wrong of Compulsion by the State)≫ (1885); ≪주의주의자 신조와 주의주의의 간청(The Voluntaryist Creed and a Plea for Voluntaryism)≫ (1906).

카나번 백작(Earl of Carnarvon)의 차남인 허버트는 영국 육군에 복무했고 잠시 자유당(Liberal Party) 하원 의원이 되었다. 허버트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 그는 자유 시장들과 자발적 협동을 정치보다도 진보에 대한 더 나은 경로로 보게 되었다.

> 좋고 나쁜 것, 주의 깊은 사람들과 부주의한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을 똑같은 방침으로 대우하고, 거대하고 성가신 그것들의 규모, 그것들의 복잡성, 그것들의 공식적인 중앙 관리 때문에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기구를, 정당 조직들을, 법령들(Acts of Parliament)을, 거대한 다루기 버거운 체계들을 믿는 것을 거부하라.

허버트는 정부가 '자기의 정당한 의무들에 엄격하게 국한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강압과 사기에 대비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강압의 사용의 유일한 정당화 근거라고, 그는 주장했다. 정부들은 국민에게 징병이나, 의무 교육이나, 심지어 조세조차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aggress upon)'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수입은 자발적으로 모금되어야 한다.

> 강압(force)은—그것이 무슨 형태를 취하건—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상(補償)할 수 없다. 그것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아무것도, 지속할 아무것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에게 물질적 번영을 줄 수조차도 없다. . . .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의 능력들의, 자기들의 마음과 몸의, 자기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유일한 진정한 소유자들이라는 점을, 당신이 새로운 사회를 오직 자기 소유권, 자치, 그리고 자기 지도(self-guidance)라는 하나의 진정한 기초에만 세울 것이라는 점을,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선언하라. . . .

허버트는 자기의 주의주의(主意主義 · voluntaryism)를 촉진하기 위해 강연했고, 논문들을 썼으며, 정기 간행물들(하나는 ≪자유로운 생활(Free Life)≫이다)을 출간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t)'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국가 정부(national government)—비록 매우 제한되고 자발적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것일지라도—의 필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그것이 다수파에 의해 조종되는 공화주의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다수파에 속하는 것이, 강압을 물리치는 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강압을 사용할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소유권의 원칙은 '개인도, 다수파도, 정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유의 권리들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의미했다.

'권력은 당신이 사람들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나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들 중 하나'라고 허버트는 생각했다. 그래서 **벤저민 터커**가 그를 '이름만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른 것은 약간의 정당화 근거가 있었다.

[72]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미국 언론인 및 경제학자. **주요 사상:** 토지 가치세. **주요 저작:**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헨리 조지는 선실 급사(ship's boy)와 인쇄업자 조수로 사회에 나왔다. 그러나 그는 경제학을 독학했고, 상급 언론인이 되었으며, 그다음, 대개 자기의 책 ≪진보와 빈곤≫ (1879) 덕분에, 중요한 경제학자이자 개혁가가 되었다.

조지는 대부분의 과세 형태들이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노예제와 같고 사람들이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잡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관세는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을 높이고 기성 독점 회사들을 경쟁에서 보호한다. 오직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만이 효과에서 중립적일 것인데, 왜냐하면 (**데이비드 리카도**가 언급했듯이) 토지는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의 '생산(production)'은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것을 정당하게 소유하지만, 그들은 토지를 만들어 내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자원들은 전체 공동체에 평등하게 속해야 한다고 조지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는, 자유 시장들과 자유 무역이 대중들을 빈곤에서 끌어올리는 최상의 방식들이라는 것이다.

[73] 카를 멩거(Carl Menger) (1840-1921):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주요 사상:** 오스트리아학파 경제 이론; 방법론적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주요 저작:**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 (1871).

멩거는 프라하와 빈에서 공부했고 그 후에 상업 기자가 되었다. 그 역할에서, 그는 주류 '고전학파(classical)' 경제학의 가르침과 현실 세계 작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1867년에 그는 새로운 접근법,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 (1871)를 쓰기 시작했다. 그저 33살 나이까지는, 그는 빈 대학교에서 경제 이론 학과장이 되었다. 그는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로서 기억되고 있다.

멩거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재화들의 총생산이나 그것들의 총수요와 같은 사물들의 전체 집합들에 집중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그들은 헛되이 이 총량들 사이에 ['균형(equilibrium)'과 같은] 기계적 관련들을 탐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방법론적 집합주의*(methodological collectivism)라고 불렀다. 실제로 경제생활을 움직이는 것은 개개 사람들이 어떻게 개개 재화들을 평가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가치들에 따라 행동하는지 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개인들의 가치들과 행동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그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부른 접근법.

이 새로운 방법의 주요 부분은 *주관주의*(subjectivism)였다. 많은 경제학자는 한 재화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그것의 가치

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의 양이라고—생각했다. 멩거는 재화들이 그 자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인들*(individuals)이, 자기들의 특정 필요와 선호에 따라, 그것들에 관한 자기들 자신의 (그리고 다른) 평가들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주관주의 가치론*(subjective theory of value)이라고 부른다.

이 접근법들로 멩거는 한계 효용의 개념(지금 주류 경제학의 중심적인 교의)을 전개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품인 물이 대개 쓸모없는 것인 다이아몬드보다 왜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지에 관한 고전적인 역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가치가 재화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양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멩거의 개인주의와 주관주의로 그는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F. A. 하이에크**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추종자들은) 개입주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경제는 상호 적응들의 과정이지, 서투르게 만지작거릴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번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고, 그는 관찰했다. 개입주의는 그 협력을 붕괴시키고, 부조화를 일으키며, 후자는 더 많은 개입의 요구를 재촉—하고 붕괴에 더욱더 많이 연료를 공급—한다.

[74] 브루스 스미스(Bruce Smith) (1851-1937): 오스트레일리아 정치인 및 작가. **주요 사상:** 보수주의적인 전통과 자유주의적인 전통; 간섭하는 정부에 대한 반대. **주요 저작:** ≪자유와 자유주의(Liberty and Liberalism)≫ (1887).

중앙 런던에 가까운 로더하이드(Rotherhithe)의 잉글랜드 항구 도시

(English port)에서 태어난 스미스의 가족은 멜버른으로 이주했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그 후 자기 아버지의 해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1887년에 한 논쟁 후에 의절 당했다. 그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업으로 했고 연방 의회의 의원(1901-1919)이 되었다. 사업에서, 그는 노동조합들과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했고, 빅토리아주에 (노사의) 조정국(Board of Conciliation)을 창설했다—비록 그가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사용자 단체들을 창설하기도 했을지라도.

36살에, 스미스는 ≪자유와 자유주의≫ (1887)를 썼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판된 최초의 주요 자유주의 연구이다. 크고 학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책으로서, 그것은 철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보수주의 전통을 개관한다. ≪개인의 자유, 사기업 그리고 재산의 권리들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의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항의≫라는 그것의 긴 부제를 가지고서, 스미스는 그것을 자기가 부르듯이 더 많은 '간섭 입법(meddling legislation)'을 지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새(new)' 리버럴들에 대한 강경한 반론으로서 쓰려고 하였다. 스펜서, 주의주의 그리고 맨체스터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일생을 통하여 자유 무역과 자유 방임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한 여성 운동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백호(白濠)주의(White Australia) 정책의 비판자이기도 했다.

[75] 벤저민 터커(Benjamin Tucker) (1854-1939): 미국 출판업자,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및 이기주의자. **주요 사상:** 무정부주의; 재산권들; 개인적 자유; 규제와 정부 제공의 종식. **주요 저작:** ≪자유(Liberty)≫

(1881-1908).

터커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무정부주의 사상을 뜻밖에 만났다. 그는 상호 부조론자(mutualist)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 (1806-1856),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라이샌더 스푸너**와 같은 급진적인 사상가들의 책들과 논문들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데 착수했다. 1881년과 1908년 사이 그는 영향력 있는 무정부주의 저널 ≪자유(Liberty)≫를 발간했다. 이 경력의 경과 중에, 그는 그 자신 유형의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를 전개했다.

비록 그가 자신을 '사회주의자(socialist)'라고 불렀을지라도, 그는 어떠한 집합적 권위의 관념에도 적대적이었다. 그는 '무정부주의적 근로자들(anarchistic workers)'이 자기들 자신의 노동 과실들을 소유해야 하고 그것을 권력과 특권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고리대금업, 럼주(酒), 결혼, 매음,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다른 것들 . . .'에서조차도 자유로이 거래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을 올린다고 그가 말한) 은행 규제, (오직 그것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유권을 주어야 하는) 토지, (소비자들에 대한 수입품들의 비용을 올리는) 관세 그리고 (실물 재산과 달리, 아이디어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특허권들을 포함하는 여러 시장 '독점들(monopolies)'을 종식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또한 방위와 안보에 대한 국가 독점에 반대하고, 경쟁적인 제공자들 사이의 자유 시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만년에 터커는 부의 집중, 정치적 중앙 집권화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떻게 사회를 덜 개인주의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더 비관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머리 로스버드**와 20세기 후기의 다른 무정부-자본주의자들(anarcho-capitalists)에게 영감을 주었다.

[76] 볼테린 드 클레어(Voltairine de Cleyre) (1866-1912): 미국 무정부주의적-여권주의자(anarcha-feminist). **주요 사상:** 무정부주의; 성 역할과 결혼의 비판. **주요 저작:** ≪직접적인 행동(Direct Action)≫ (1912).

드 클레어는 국가, 교회, 그리고 결혼의 권위에 반대한 다작의 시인, 작가, 수필가 그리고 연설가였다. 그녀는 오늘날 자기의 에세이 ≪직접적인 행동≫ (1912)으로 가장 잘 기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항의 운동들 때문에 널리 인용된다.

미시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드 클레어의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프랑스 자유주의자 **볼테르**를 따라 지었다. 그녀의 가톨릭 교육은 그녀를 무신론으로 몰아붙였고, 그녀는 **토머스 페인**, **토머스 제퍼슨**,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그녀는 울스턴크래프트에 관해 쓰고 강의했다), **라이샌더 스푸너**,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벤저민 터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녀는 터커의 무정부주의 저널 ≪자유(Liberty)≫에 논문들을 썼다. 만년에 그녀가 상호 부조론(mutualism)으로 표류했지만, '형용사들 없는 무정부주의자'로서 끝났고, 정부 없는 어떠한 비폭력 체제도 옹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 권위에 대한 그녀의 거부는 시카고의 헤이마킷 스퀘어(Haymarket Square)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심화하였는데, 거기서

무정부주의자들은 더 일찍이 파업 참가자들의 군중 속으로 발포하였던 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폭탄이 투척 되었고, 경찰이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난했으며, 몇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드 클레어는 이것을, 당국에 의한, 죄 없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사법 살인으로 보았다.

드 클레어는 또한 여권주의자(feminist)였다. 그녀는 초기 사회화가 아이들을 부자연스러운 성 역할로 강제하여, 자제하는 소녀들과 자기주장이 강한 소년들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결혼은, 결과적으로, 여자들을 저당 잡힌 노예(bonded slaves)로 만든다. 대신 남자들과 여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유로운 존재로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주로 무정부주의자(anarchist)로 간주했고, 사회적 및 시민적 질서—'질서에 대한 이 조롱, 정의에 대한 이 졸렬한 모조품'—가 양성 모두 억압한다고 믿었다. 해결책은 단지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내가 살았던 대로, 나는 죽는다,' 그녀는 자기의 마지막 날들에 썼다, '천국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지배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유로운 정신, 무정부주의자로서.'

[77] 앨버트 J. 녹(Albert J. Nock) (1870-1945): 미국 리버테리언 작가. **주요 사상:** 급진적 반국가주의; 국가의 반(反)사회적 본질. **주요 저작:** ≪우리의 적, 국가(Our Enemy, The State)≫ (1935).

자기 시대보다 오늘날 덜 널리 알려진 문필가인 녹은 한 세대의 개인주의자들과 개인주의 작품들에 영감을 주었다. 잠시 안수 목사로서 봉사

한 철강 근로자의,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들로서, 그는 자유주의, 친자본주의 그리고 반전 잡지 ≪국민(The Nation)≫의 편집인과, ≪자유인(The Freeman)≫의 창간 편집인이 되었다. 이 역할들에서, 그는 **수잔 라폴렛**을 발견했고 고무했다. 후에, ≪인간사(Human Events)≫,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 그리고 대학 간 개인주의자 협회(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s)가 숭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녹의—자연적 자유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회를 요구하는—급진적인 반(反)국가주의 접근법은 **머리 로스버드**와 기타 리버테리언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시장들과 사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국가는 문명과 도덕을 향상할 수 없다고, 녹은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사정을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변함없이 정복과 몰수에 자기 기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우리의 적, 국가≫ (1935)에서 설명했다. 그것이 인정하는 유일한 권리들은 그것 자신이 부여하는 것들이었다. 이 지배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는 정의(正義)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하였고, 자신을 법 위에 유지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스스로 독점들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금지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자유를 억압했는데, 왜냐하면 그것[경제적 자유] 없이는 어떤 다른 자유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국가에 당신을 위해 일할 권력을 주는 것에 비례해서,' 그는 경고했다, '당신은 그것에 당신*에게* 일할 권력을 준다.' 국가가 더 약할수록, 그것은 범죄들을 저지를—혹은 '집합화[집산화], 제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깃발 숭배(flag-worship)'의 해악들을 조장하는 전쟁들을 시작할—권력을 더 적게 가질 것이다.

녹은 채권에 더하여 채권을 쌓아 올림으로써 대공황을 일으킨 데—이어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식의) 경기 부양책(pump-priming)'을 쓴 데—대해 1920년대의 미국 행정부들을 비난했다. 그는 또한 '뉴딜(New Deal)' 구제책을—일시적이라고 선전됨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그가 경고한—정부 권력과 통제를 확대할 구실로서 매도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 집권화, 규제, 소득세, 국가 복지 그리고 의무 교육을 반대했다. 국가 교육은 국가에 대한 굴종적인 숭배와 사상, 행위, 생활양식 및 신념의 획일성을 촉진한다고, 그는 한탄했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 *훈련*(training)이라는 것이다. 국가 복지 수당은,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사기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너무나 평범해서 그것들이 심지어 인지되지도 않는 잘못된 결과들이 있다.

녹은 자유의 미래에 관해 비관적이었고, 자신을 '잔존자(remnant)'—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지만, 현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작은 소수파의 한 사람—로 보았다. 그때까지는, 가장 좋은 방침은 자신을 위대한 사상들로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는 것이라고, 그는 암시했다.

9 자유 경제와 사회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기는 신흥 경제학 분야에 많은 사태 진전들을 가져왔다. 경제학자들의 자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는 자기들의 학문 분야를 자연 과학과 대등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리학자들이 자연 현상들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들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형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scientific)' 사회주의, 중앙 계획 그리고 산업의 국가 통제라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였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 방임에 대한 그것의 강조와 더불어, 더욱더 구식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과 기타 국가들은—이들을 자기들 자신의 국가들의 흥미진진하고, 대담하며, 합리적인 모형들로 본 서양 지식인들의 완전한 지지와 더불어—공산주의가 되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이긴 바로 그 집합주의가 이제 '평화에 이기(win the peace)'—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 주택, 보건, 교육 그리고 고용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의 사회주의 비판들은 그것의[사회주의의] 행진을 늦추거나 그것의 감정적인 인기거리에 대응하는 일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몇 안 되는 남은 자유주의자들은 불꽃을 계속 살려 놓기 위해 **F. A. 하이에크**의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들에 모였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는, 그들이 집합주의

실험에 관해 예측했던 비참한 결과들이 실제로 똑똑히 보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그들은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의 현실 모습들과 더 일치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접근법들을 전개하는 데 종사하려고 하였는데, 사건들이 정말 역전할 때,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78]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주요 사상:**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규제에 대한 반대론; 사회주의 계산의 불가능성; 경기 순환; 경화. **주요 저작:** ≪화폐와 신용의 이론(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1912); ≪사회주의(Socialism)≫ (1922); ≪자유주의(Liberalism)≫ (1927); ≪인간 행동(Human Action)≫ (1949).

미제스는 자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F. A. 하이에크**와 **머리 로스버드**를 포함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지도적인 인물이 되었다.

미제스는 자유 방임을 지지하는 강건한 주장을 했고, 자유 시장들, 분업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경제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들이 시장 경제를 *방해하기*(hamper)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혼란의 물결들을 일으키고, 잉여와 부족을 일으키며, 후자는 고칠 추가적인 개입들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했다. 이것들은 그다음에는 또 다른 원치 않는 결과들을 얻고, 후자들은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여, 결국 전 시장 과정이 질식된다. 이것은 그다음에는 자

유주의적 사회 질서의 기초들을 침식할 것인데, 왜냐하면 자유는 사유 재산과 자유 무역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들은 전혀 개입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미제스는 (**F. A. 하이에크**와 같이) 사회생활을 온건한 사회주의자로서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카를 멩거**의 ≪경제학 원리≫ (1871)를 만났는데,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는 카를 멩거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주관주의*를 채택했고, 전개했으며, 체계화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집합주의* 접근법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연 과학들의 성공을 모방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총수요, 총공급 그리고 물가 수준과 같은 측정치들 사이에 기계적 관련들을 찾았고, 그 지식을 더 '합리적인(rational)' 경제 체제들을 계획하는 데 사용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사실상 단지 통계적 그룹들일 뿐인 이런 것들 사이에는 과학적 관계들이 없었다. 실제 개개 사물들은 서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통계량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참으로, 매우 다른 재화들과 서비스들—사과, 벽돌, 미용, 치즈, 구두, 유리 제품, 금전 등록기 그리고 버스 여행—을 함께 묶음으로써, 이 총량들은 밑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단지 *숨길*(conceal) 뿐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다만 수백만의 개별 가격들만 있고, 각각이 시시각각 오르고 내릴 때, 물가 '수준(level)'을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실제로 경제생활을 움직이는 것은 수백만의 다양한 사람들의 특정 가치들과 행동들이라고, 미제스는 말했다. 그러나 인간 가치들은 방정식들에서 측정되고 계산될 수 없다. 사람들은 경제 변화들에 다른 방식들로 반응한다. 설탕 가격의 증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사재기하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소비를 삭감하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양한 경제 현상들에 걸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제스는 많은 신선한 통찰들을 낳았다. 예를 들어,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화폐는 생명이 없는 *교환 수단*(medium of exchange)이었다. 미제스에게는, 화폐는—다른 것들과 같이, 그것의 유용성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경제재*(economic goods)였다. 그것의 가격[즉 다른 재화들의 면에서의 그것의 *구매력*(purchasing power)]은 어떤 다른 경제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시장력들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의 지갑이나 은행 계정에) 곧 소용에 닿게 간직하기로 하는 금액은 그것이 미래 구매를 하는 데 얼마나 유용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들이 그것을 더 유용한 것으로 간주할수록, 그것의 구매력은 더 높이 오른다. 덜 유용할수록, 그것의 구매력은 더 낮게 떨어진다. 개인 가치들과 행동들에 관한 그 통찰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기들의 *방법론적 집합주의*를 가지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경기 순환은 또 하나의 적절한 사례였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이러한 호황-불황의 삽화적 사건들의 기원을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고 하는 수단인 저리 신용(easy-credit) 정책들에 거슬러 올라가 찾았다. 슬프게도, 낮은 이자율의 *잘못된 신호*(false signal)는 차입, 지출 그리고 투자에 연료를 공급—하지만, 바로 그 낮은 이자율은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억제—한다. 저금이 없이는, 호황은 자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투자 계획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지폐는 은행들에 그러한 비참한 순환들을 일으킬 너무 많은 재량을 준다고, 미제스는 생각했다. 오직 금과 같은 경

화만이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와 신용의 이론≫ (1912)에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미제스는 또한 우리에게 자본과 이자의 본질에 관한 더 나은 이해도 주었다. *이자*(interest)는 저축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수익(return)'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오히려, 그것은 관련 개인들이 *미래*(future)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내일 생산을 증대시킬지 모르는 어망, 쟁기날 그리고 기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오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부에—달려 있다. 이 대체 관계는 모든 경제 계산들에서 *시간*(time)의 결정적 중요성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과 가치들—은 주류 접근법에서 간과되었다.

그리고 비슷하게, 오직 통계적 총량들에만 집중함으로써,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capital)을 균일한 어떤 것으로 잘못 다루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느* 자본재에 투자하는지—*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가 결정적이라고, 미제스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총량이 우연히 얼마나 크건 작건, 잘못된 자본재에 대한 투자—*과오 투자*(malinvestment)—는 [그것을] 쇠약하게 한다. 오직 개인주의 방법만이 이것을 드러낸다.

≪사회주의≫ (1922)에서, 미제스는 시장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 소유 아래서는, 공장들과 장비 같은 생산 투입물들은 결코 사지거나 팔리지 않고, 그래서 결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투입 가격들이 없이는, 우리는 많은 가능한 생산 과정 중 어느 것이 가장 값싼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사이에서 선택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지 못한다. 불가피하게, 지나치게 비싼 과정들이 선택될 것이고, 자원들이 낭비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시

장 경제는 생산자들에게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도록—그래서 낭비를 줄이고 절대로 필요한 자원들을 다른 목적을 위해 손대지 않은 채로 보존하도록—경쟁적인 압력을 가한다.

이 통렬한 비판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as if)' 시장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원들이 배분될,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제스는 시장 사회주의가 오직 그것이 모방할 실제 시장 가격들이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 사회주의가 더 널리 확산할수록, 그것이 생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사회주의는 그저 자신을 질식사시킬 뿐이다.

[79]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 (1885-1972): 미국 경제학자 및 윤리학자. **주요 사상:** 다른 자유들에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 시장과 정치 양쪽 다 결함이 있다; 개입주의는 이익보다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요 저작:**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1).

프랭크 나이트는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경제학의 창시자였는데, 이것은 그의 학생들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 그리고 **제임스 뷰캐넌**을 포함했다. 그는 또한 (프리드먼, 스티글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F. A. 하이에크**와 함께)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창립자 회원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주의 부활의 선봉이었다.

나이트는 성직자를 목표로 공부하면서 학창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끝마쳤다. 그의 고전적인 학위 논문,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 (1921)은 전혀 예상될 수 없

는 사건들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예상될 수 있지만, 그 규모와 영향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없는 사건들의 *위험*(risk)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들과 공정들을 조종하는 기업가들의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다른 자유들에 기본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는 그 자체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을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 시장들은 그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의 상반되는 야망들을 관리하는 데 다른 체제들보다 더 낫다. 그러나 시장들은 절대 완전하지 않다. 자유 방임 정책들은 그저 자기들의 흠들을 교정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뿐일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또한, 시장들은 모든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개인적 갈등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이것은 정부가 자유에 한계들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갈등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견이 다른 정치 사회를 그저 떠나기만 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므로, 타협이 요구된다. 그것은 그다음에는 달성하는 데 민주적 토론과 대의 정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장들과 꼭 같이, 경쟁하는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전투이고, 다수의 똑같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시장들에 대한 심지어 의도가 좋은 정치 개입들조차도 쉽게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양쪽 다* 결함이 있다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나이트는 결론지었다. 우리는 명백한 문제가 있고 명백한 성공 가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사정이 이러하다면[명백한 문제가 있고 성공 가망이 있다면] 행동하기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예민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80] 이사벨 패터슨(Isabel Paterson) (1886-1961): 캐나다계 미국인 언론인, 소설가, 평론가 및 무정부주의 철학자. **주요 사상:** 법률들에 질식당하는 창의성; 규제는 힘센 기업을 장려하고 독점을 창설한다. **주요 저작:** ≪기구의 신(The God of the Machine)≫ (1943).

이사벨 패터슨, **로즈 와일더 레인** 그리고 **아인 랜드**는 미국 리버테리어니즘의 세 '어머니(mothers)'로 알려지게 되었다. 온타리오의 외딴 매니툴린 섬(Manitoulin Island)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홉 자식 중 하나인 패터슨은 대개 (레인같이) 독학했고, 10대에는, 웨이트리스, 장부 계원 그리고 속기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저임금 일자리들을 잡았다. 그녀는 1910년에 결혼했지만 (다시 레인같이) 십 년 미만 후에 갈라졌다. 그녀는 미국에서 쓰기 및 편집 일자리들을 잡았고, 빠르게 승진되었으며, 자기의 신랄한 위트로 이름이 알려진 영향력 있는 문학 평론가가 되었다. 그녀는 또한 서부극들과 역사 소설들도 썼다.

1943년(레인의 ≪자유의 발견≫과 같은 해)에 출판된 그녀의 책 ≪기구의 신≫은 개인주의 철학의 창립 교과서였다. 그것에서, 그녀는 어떤 나라들이 번영하는 채로지만 다른 나라들이 침체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전자의 경제적 및 법적 원칙들로 개인의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로마 제국은 자기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창의성을 해방한, 자기의 개방적인 제도들, 상업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때문에 확대되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패터슨에 따르면, 독점들은 대개 정부들이 부여한 특권들에서 생겼다. 반독점 법률들은 이것을 종식하지 못했다. 참으로, 싸게 파는 생산자들이 '약탈적 가격 책정(predatory pricing)'으로, 값이 비싼 생산자들이

‘가격 바가지 씌우기(price gouging)’로 그리고 시중 가격과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 생산자들이 ‘가격 고정(price fixing)’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때, 논의를 자기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것은 기성의,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다.

우리는 정책들을 그것들의 결과들에 따라 판단해야지, 그것들의 의도들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대부분 해(害)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지, 우연이나, 실수나, 태만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썼다. ‘그것은 유덕한 목적을 향한 높은 이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래 유지된, 신중한 행동들의 결과이다.’

패터슨이 정기 칼럼을 썼던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에서, 그녀는 **아인 랜드**를 만났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책들을 홍보했지만, 1948년 한 논쟁의 일로 헤어졌다. 직후, 패터슨은 ≪트리뷴≫에서 교묘히 해고되었다. 사회, 복지 그리고 경제 문제들에서 더 작은 정부에 대한 그녀의 요구들은 당시의 분위기와 어긋났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녀는, 자기가 ‘사기(swindle)’라고 서술한, 최근 수립된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미국의 국가 연금 제도)으로부터 급부금을 받기를 거절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었었다. (레인도 따랐는데, 하기야 랜드는 유명하게 그리고 논쟁적으로 급부금을 받기로 했다.)

[81] 로즈 와일더 레인(Rose Wilder Lane) (1886-1968): 미국 언론인, 소설가 및 정치 이론가. **주요 사상:** 개인의 자유들의 국가 침식; 자유로운 사람들의 창의성. **주요 저작:** ≪자유의 발견(The Discovery of Freedom)≫ (1943).

로즈는 ≪초원의 작은 집(Little House on the Prairie)≫ 책들의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일더(Laura Ingalls Wilder) (1867-1957)의 딸로 사우스다코타에서 태어났다. 대개 독학한 그녀는 1909년에 결혼했고 일련의 서기, 글쓰기 그리고 신문 일자리들을 잡았다. 1915년에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회보(San Francisco Bulletin)≫에 입사하였는데, 거기서 그녀는 곧 숙련된 편집자이자 필자로 평가되었다. 1918년까지는, 그녀의 결혼은 끝났었고 그녀는 ≪하퍼스(Harper's)≫와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 같은 전국 잡지들에 단편 소설들, 논문들 그리고 비평들뿐만 아니라, 소설들과 전기들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성 작가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광범위한 여행 중에, 직접 소련의 폭정과 양차 대전 간 유럽에서의 관료적 억압을 보았으므로, 그녀는 자기의 젊은이 특유의 사회주의를 취소했다. 경제 계획은 자유와 번영의 친구가 아니라고, 그녀는 결론지었다.

> 나는 이제 근본주의자 미국인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개인주의, *자유 방임* 그리고 약간 억제된 자본주의 무정부 상태가 인간 정신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또한, 나는 당신에게 상대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가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혹은 물질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어떤 다른 경직성보다 더 나은—그리고 심지어 물질적인 면들에서도 더 생산적인—이유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녀의 후속 저술의 많은 부분은 국가가 개인 자유들을 침식하는 것에 자기가 느낀 실망 증가를 강조한다. 그녀의 아주 오래가는 책, ≪자유의

발견≫ (1943)은 다수 의견에 반대해서 행동함으로써 진보를 촉진하는 개인들의 중요성을—그리고 국가 계획과 규제가 그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보여준다. 그녀는 이 견해를 계속한 **아인 랜드**에게 친구이자 좋은 조언자가 되었다.

레인은 뉴딜을 '잠행적 사회주의(creeping socialism)'로 공격했다. 그녀는 지역제 법률들을 재산권들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대 운동하였고, 사회 보장을 위한 세금들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자 칼럼 및 편집 일자리를 포기했으며, 이 원천 징수의(pay-as-you-go · 선급의) 연금 제도를 '폰지 사기(Ponzi fraud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창의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유지했고, (세계 인구가 그것의 현재 수치의 1/3 미만이었던 때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혁명은 그저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알 때, 22억 인구의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방출될 것이다. 1억이 미국을 만들었다. 22억은 무엇을 할까?'

[82]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 독일 경제학자. **주요 사상:** 질서 자유주의와 독일 경제 기적. **주요 저작:** ≪경제학의 질서(The Order of Economics)≫ (1937).

오이켄은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의 아버지로서 기억되는데, 이것은 전후(戰後) 경제적 침체를 뒤집는 것을 도왔고 독일 '경제 기적(economic miracle)'(*Wirtschaftswunder*)을 창출한 독일 신자유주의 사상이다.

학구적인 가정에 태어난 오이켄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베를린 대학교와 그다음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경제학의 프라이부르크학파(Freiburg School)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것은 넓게 자유주의적이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들을 억제하는 데 정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30년대 후기에, 히틀러에 반대한 오이켄과 기타 동료들은 나치당의 중앙 계획을 더욱 자유주의적인 경쟁 체제로 대체할 전후 경제 전략에 착수하는 데 자기들의 프라이부르크학파 원칙들에 의지하였다. 나치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오이켄이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이 처형되는 일을 겪었다.

그런데도, *질서 자유주의*는 후에 전후 경제 정책을 형성하고 '기적'을 해방할 것이다. 오이켄의 접근법하에서는, 국가는 재산권들, 공개 시장들 그리고 화폐적 안정에 근거지를 둔 자유주의적 경제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자유 방임이 아닐 것인데, 오이켄은 후자가 카르텔들과 기업 권력의 과도 집중을 낳을 것이라고 믿었다. 오히려, 국가는 경쟁을 촉진하고 회사들의 권력을 제한하리라는 것이다.

전후 독일의 중요한 영국-미국 부문들의 경제 관리청 장관(Economic Director)이었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는 *질서 자유주*의 접근법을 채택했고, 임금 및 가격 통제들을 폐지하였으며, 더 안정적인 통화(독일 마르크(Deutsche Mark))를 도입하였다. 몇 년 내에, 독일은 자기의 '기적의(miracle)' 회복을 누리고 있었다.

[83] 수잔 라 폴렛(Suzanne La Follette) (1893-1983): 미국 리버테리언 여권주의 언론인. **주요 사상:** 리버테리언 여권주의의 경제적 기초. **주요**

저작: ≪여성에 관하여(Concerning Women)≫ (1926).

라 폴렛은 서부 미국의 한 농장에서 길러졌다. 자기 사촌이 또한 상원 의원이기도 한 미국 하원 의원의 딸인 그녀는 잠시 국회에서 일했다. 뉴욕으로 이사한 그녀는 **앨버트 J. 녹**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의 단명의 잡지 ≪자유인(The Freeman)≫에 그녀를 고용하였다.

녹은 라 폴렛에게 ≪여성에 관하여≫ (1926)를 쓰도록 권했는데, 이것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 권리들의 옹호≫ (1792) 이래로 리버테리언 여권주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이었다. 그것은 여자들의 종속이, 노예제와 같이, 국가의 뒷받침을 받는 경제 제도들에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노동 입법, 최저 임금들 그리고 매음, 산아 제한 및 서출(庶出)에 대한 구속적인 법률들을 통하여, 여자들을 아주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두어서, 대부분 여자에게, 결혼은 유일한 선택지이다. 그러나 결혼 법률들은, 모든 권리를 남자 배우자에게 주고, 이혼을 어렵게 하며, 여자들을 의존적이고 재산 없이 내버려 둠으로써, 그 불리를 악화시킨다.

라 폴렛은 오직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만 여자들에 대해, 그리고 참으로 어떤 계급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경제적 평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여자들에게 남자들의 통제를 겪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이고 힘센 엘리트들에 의한 *모든* 개인 권리 침해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환상인 채로일 것이라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평등과 여자들을 위한 투표권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집단에 대해, 진정한 해방은 국가의 파괴를 함축한다.

1930년대에, 라 폴렛은 레온 트로츠키 (1879-1940)에게서 소련 독재자 조지프 스탈린 (1878-1953)에 의한 그에 대한 반역죄 혐의를 벗기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후에 ≪자유인≫을 리버테리언 반국가주의 문학 잡지, ≪새 자유인(The New Freeman)≫으로 부활시켰고, 말년에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의 초대 편집장[주간(主幹)]이 되었다.

[84] F. A.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 영국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 **주요 사상:** 경기 순환 이론; 계획의 비판; 인간 정보에 대한 한계; 합리주의의 오류; 자생적 질서. **주요 저작:**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 ≪자유의 헌법(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1973).

하이에크는 가장 지적으로 창의력이 풍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구적인 가정에 태어나, 그는 경제학, 철학, 정치학, 심리학 그리고 사상사에 관해 계속해서 썼다. 그의 노벨상은 이 범위를 반영했고, 경기 순환에 관한 그의 연구와 인간 사회에서의 자생적 질서에 관한 그의 설명에 대해 수여되었다.

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전체주의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회주의 계획에 관한 하이에크의 1944년 전시(戰時) 비판, ≪노예의 길≫은 그에게 대중적 명성을 가져왔다. 직후, 그는 몽 펠르랭 소사이이어티를 창설했는데, 이것은 꼬박 한 세대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마거릿 대처 (1925-2013), 로널드 레이건 (1911-2004)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나타난 새 동유럽 지도자들의 정책들을 특징지은

자유주의 사상들의 포럼이었다.

전시 복무 후에, 하이에크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경제학자로서 고용되었고, 1927년에 그 짝은 호황-불황 순환들을 탐구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이 순환들이 이자율을 너무 낮게 정하—고 과도한 차입, 투자 그리고 지출을 조장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야기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낮은 이자율은 또한 저축을 억제하고, 자금이 고갈될 때, 투자가 포기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실직되기도 한다. 하이에크는 후에 최선의 예방책이—사람들이 쉽게 더 건전한 통화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통화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currency)이라고 암시했다.

1930년대, 하이에크는 영국에 왔는데, —부분적으로 그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의 논쟁들을 통하여—전문 직업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케인스는 경제를 부양시킬 정부 지출을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이것이 오직 인플레이션, 분열 그리고 부채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견해들이 승리하였고, 하이에크는 관심을 사회 및 정치 철학으로 더 돌렸다. 그의 주요 통찰은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개념이었는데, 이것의 기원을 그는 **애덤 퍼거슨**, **애덤 스미스** 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았다. 인간 사회와 동물 사회는 명백한 규칙성들을 보여준다고, 그는 관찰했다. 그렇지만 누구도 꿀벌들의 사회나 인간 언어나 시장들의 작동들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것들이 유용하리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진화하고 지속하였다. 자생적 질서들은 우리가 일정한 규칙적인 행동 방식들—문법 규칙이나 시장들의 규칙 같은 *규칙들*(rules)—을 따를 때 생겼다. 종종 우리는 규칙들을 명확히 표현할 수도, 심지어 우리가 그것

들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성들은 진화된 지혜—우리가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정보나 지식—를 포함하고 있다.

개개 규칙들과 전반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그러한 질서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쉽게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이에크는 경고했다. 예를 들어, 경제 계획은 단지 최상의 결과를 발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고속으로 처리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계획자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에 심지어 접근조차 할 수 없다—왜냐하면 그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부분적이며,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생산할지 알기 위해서는, 계획자는—측정되거나 전달될 수 없는—사람들의 욕망과 *가치*(values)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수십 년 내내 중앙계획의 참담한 실패는 그 과제가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관한 충분한 증거이다. 그렇지만 자생적인 시장 질서는 이 모든 분산되고 부분적인 정보를, 국지적 수준에서, 매 순간, 처리한다. 우리는 어떤 공유된 목적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시장들은, 구매자들과 판매자들같이, 다른 목적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융화시킨다. (사실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 의견 불일치가 더 많을수록, 그들이 거래를 통해 협동하기가 더 쉽다.) 그러므로 시장 체제들은 계획된 질서들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하이에크는 말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연히 만났다. 사람들이 처음 재화들을 물물 교환하고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역과 상업을 통해 전 세계적인 협동 체제로 성장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물물 교환하고 화

폐 교환했을 때, *가격들*(prices)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격들은 그 체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혹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무슨 용도를 발견하는지, 혹은 그들이 왜 더 많이 원하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없었다. 상승하는 가격이 그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윤의 가망은 사람들의 정력을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로 끌어들이고, 자원들을 그것들의 가장 소중한 용도들 쪽으로 그리고 헛된 용도들에서 멀리 돌렸다—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야망을, 아주 자동으로, 조화시켰다.

이 자동적인 체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끊임없는 개선이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여, 공급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제품들을 차별화하려고 하였다.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선택을 통하여, 제품들은 더 좋아지고 더 값싸졌다. 시장들과 경쟁은 결코 '완전(perfect)'하지 않았고, 차별화, 발견 그리고 개선의 진화적 *과정*(process)이었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자생적 질서들의 작동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계획자들이 우리에게 일정 방식들로 행동하게 강요함으로써 어떤 미리 생각된 결과를 달성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규칙의 안내를 받는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고, 규칙들의 지혜를 상실하며, 전 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 관찰했듯이) 또한 자생적인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는 진화하고, 성장하며, 강해지기 위하여 종사할 혁신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우리는 진화적 과정에 연료를 공급할 것을 덜 가지고 있었다.

하이에크에게, 자유는 강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는, 명령들이 아니라, 규칙들에 근거하여 세워졌고, 우리는 국가에 오직 국민

이 그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만을 위해 제한된 강제력을 주었—지 그들이 특별한 방식들로 행동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또한 정부가 규칙들에 따라 제한되는 것도 필요했다. 하이에크는 이것을 *법의 지배*(rule of law)라 불렀다. 법들은 알려져 있고 확실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소급해서는 안 되며,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큰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을 남겨 두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정의*(justice)를 사회적 질서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규칙들로 보았다. 우리는 정의의 규칙들을 고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해야 했다.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달랐다—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미리 생각된 결과였다. 그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명백한 정류 지점이 없는 노예의 길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는 하여간 신기루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의견 일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가 분해되어 국가 지원을 얻기 위해 로비하는 경쟁하는 이익 집단들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에크에게, 사회주의 사회 비전은 실수였다. 자유주의적 정부는 단지 사회적 질서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하기만 할 것이다. *법*(law)은 정의의 규칙들을 *발견할*(discover) 우리의 시도였다. 정부들은 자기들이 전 사회의 운영을 *입법할*(legislate) 수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민주적 과반수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타당한

역할을 넘는 것을 허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특수 이익들이 만족될 수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재능이 방출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참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확실히 하는 헌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85] 카를 포퍼(Karl Popper) (1902-1994): 영국계 오스트리아 철학자. **주요 사상:** 권위주의의 역사주의적 근원; 허위 과학과 불관용; 관용의 중요성. **주요 저작:** ≪역사주의의 빈곤(The Poverty of Historicism)≫ (1945).

포퍼는 저명한 과학 철학자였는데, 그는 또한 정치 철학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젊었을 때 빈 대학교(거기서 그는 **F. A. 하이에크**의 친구였다)에서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그는 곧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단론과 폭력 사용을 거부하였다. 몇 년간 그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인 채로였지만, 평등주의를 자유라는 주요 정치적 가치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게 되었다. 비록 그가 계속해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국가의 역할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을지라도, '개방 사회(open society)'에서 그의 반권위주의와 개인주의, 이성, 관용, 평화 그리고 자유의 옹호는 그의 자유주의적 자격을 확립한다.

포퍼는 파시즘, 민족주의, 집합주의 그리고 중앙 계획에 관한 주요 비판들을 제시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그의 과학 철학에 근거하였다. 그는 '지식(knowledge)'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사실상 단지 *이론*(theory)일 뿐이고, 새로운 증거가 그것을 차후에 허위로 증명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일정 진리(certain truth)'를 안다는 독재자들

의 주장들은 공허했다. 유용한 생각들은 오직 *비*(非)권위주의적인 '개방(open)' 사회들에서만 번창했다. 이것은 관용을 필수적으로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리고 논쟁적으로),

> 무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만약 우리가 무제한 관용을 심지어 관용성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확대한다면, 만약 우리가 관용성이 없는 사람들의 습격에 대항해 관용하는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용하는 사람들은 말살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관용도 파괴될 것이다.

포퍼는 사회 과학들의 결함이 있는 방법들—개인들보다 집단들에 집중하는 것—이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개인들을 자기들[독재적인 지도자들] 자신의 정치 이념에 굴종하게 할 면허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것들은 또한 사건들이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 '법칙들(laws)'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암시했다—이것도 다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가짜 권위를 주었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했고, 역사 법칙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자만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은 항상 비참하였다.

포퍼에게, 정치적 질문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통치자들이 너무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정치 제도들을 조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의 해답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선거들에서 평화롭게 쫓아낼 수 있는 체제였다. 그것은 제한된 민주주의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것의 정확한 형태는 훨씬 덜 중요했다.

[86] 아인 랜드(Ayn Rand) (1905-1982): 러시아계 미국 소설가 및 윤리

학자. **주요 사상:** 객관적 사고를 통해 발견되는 진실; 생명에 기반을 둔 윤리; 윤리에 기초를 둔 정치 원칙들; 창조성과 진보는 자유가 필요하다. **주요 저작:** ≪원천(The Fountainhead)≫ (1943);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 (1957).

아인 랜드는, **이사벨 패터슨** 및 **로즈 와일더 레인**과 더불어, 현대 미국 리버테리어니즘의 지도적인 창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비록 그녀가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했고, 자신을 '급진적 개인주의자(radical individualist)' 및 '자본주의 지지 급진주의자(radical for capitalism)'라고 불렀을지라도. 셋 중에서, 랜드가 오늘날 가장 잘 기억되고 있는데, 대개 그녀의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소설들, 하워드 로어크(Howard Roark)가 자기의 급진적인 상상력을 훼손하는 관료들과 싸우는 ≪원천≫ (1943)과, 기업가들이 자기들의 기업들의 문을 닫고 자기들 자신의 사회를 세움으로써 집요한 정부의 숨 막힐 듯한 통제들에 대응하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1957) 때문이다. 이 소설들의 인기가 아주 커서 매년 그것들은 수천 명의 사람(특히 젊은이들)을 개인주의 사상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미국 국회 도서관의 1990년대 조사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명명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계 유대인 약국 주인의 딸인 랜드는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을 때 12살이었다. 그녀의 '부르주아(bourgeois)' 가족은 전투를 피해 도망쳤고, 볼셰비키는 그녀 아버지의 점포를 빼앗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산이 몰수되는 불의는 랜드의 차후의 저술의 많은 부분에서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혁명 후에, 랜드는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때 그렇게 불렸다—옮긴이 주) 국립 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그다음 국립 영화 예술 대학에서 영화 대본 쓰기를 공부했다. 그녀는 미국 영화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 비자를 얻었다. 할리우드에서 그녀는 미국 영화배우 프랭크 오코너를 만나 결혼했고, 1931년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녀의 첫 연극이 상연되고 있었던 뉴욕에서, 랜드는 **이사벨 패터슨**과 친구가 되었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만났다. 그녀는 소설들, 소련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억압을 서술한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 (1936)과, 냉혹한 전체주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앤섬(Anthem)≫ (1938)을 쓰기 시작했다. 곧, ≪원천≫ (1943)이 구전(口傳)의 성공작이 되었고 게리 쿠퍼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 무리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였다—그들 중 미래의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1926-)이 있었는데,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집합체(The Collective)'라는 별명이 붙은 한 집단에서 그녀의 사상을 만났고 토론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1957)는 비호의적인 서평들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서가 되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개인주의, 자유 방임 자본주의 그리고 자기 결정이라는 그것의 핵심 메시지들로 끌어들였다.

≪신지식인을 위하여(For the New Intellectual)≫ (1961)와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 (1964) 같은 그녀의 논픽션 저작들과 더불어, 랜드의 소설들은 그녀의 철학 체계, *객관주의*(Objectivism)를, *합리적 자기 이익*(rational self-interest)에 의거한 그것의 윤리 규범과 함께, 요약한다. 자기의 철학적 영웅들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와 **토마스 아퀴나스**같이, 랜드는 자명한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부터 자기의 체계를 도출했다. 그녀는 현실이 객관적이고 인간 마음 바깥에 있다고 단언했다. 의식은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성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인간 존재에 필수적이었고, 우리를 인간으로서 정의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성을 무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배반했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최고의 도덕적 목적은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행복—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들과 가치들의 합리적이고, 평화롭고, 장기적인 향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랜드는 종교, 집합주의 그리고 이타주의같이 자기가 불합리한 기초들이라고 본 것에 의거한 도덕률들을 비난했다. 평화와 진보는 자기희생에서 생기지 않았고 우리 자신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의 추구, 우리 자신 권리들의 단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권리들에 대한 우리의 존중에서 생겼다. 그녀의 말로, '나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영웅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개념인데, 그의 삶의 도덕적 목적으로서 그 자신의 행복을 가지고서, 그의 가장 고상한 활동으로서 생산적인 성취, 그리고 그의 유일한 절대자로서 이성을 가지고서다.'

합리적인 인간들은 자기들 자신의 행동들에 책임을 져야 했다—그런 행동들의 결과들에 책임을 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과실(果實)들에 권리가 있었다. 어떤 것도 정당하게 그들에게서 강압으로 빼앗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강압은 이성의 반(反)명제이고, 그들의 권리들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자기들 자신의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해 떠나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의 사람들같이—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을 것이고, 자기희

생의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각각이 상호 합의와 교환을 통해 다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재능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랜드의 영웅들은, 소설에서와 현실에서, 자기들의 개인성을 단언하고—이타주의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을 통해서—기술들을 발명하고, 예술과 문학을 창작하며, 아이디어들을 전개하고, 기업들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랜드는 우리의 인간성을 정의하는 이성이 *이기주의*(egoism)를 함축하고, 후자가 그다음에는 *자본주의*(capitalism)를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유 방임 자본주의를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과 일치하는 유일한 경제 체제로서 보았고, 따라서 그것들을 보호할 것 같은 유일한 체제,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 지위든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체제로서 보았다.

우리의 자연권들을 더 지키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랜드는 제한된 입헌 정부를 옹호했고, 리버테리어니즘을 그것의 무정부주의 경향들에 대해 비난했다. 이것은 **머리 로스버드**와 같은 다른 친(親)자유 활동가들과 그리고 객관주의자들 사이에 주요 불화들을 일으켰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군중을 따르지 않고 풍요롭고, 성취감을 주며, 독립적인 삶을 산다는 랜드의 낙관주의적 이상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든 종류의 자유 운동들에 끌어들인다. 격언이 말하듯이, '그것은 보통 아인 랜드로 시작된다(It usually begins with Ayn Rand).'

[87]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1997): 라트비아계 영국 철학자. **주요 사상:** 단일의 도덕적 혹은 정치적 진실은 없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주요 저작:**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

(1958); ≪자유에 관한 네 편의 에세이(Four Essays on Liberty)≫ (1969).

러시아 혁명 후에, 벌린의 가족은 영국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그는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자기의 어린 시절 고향 리가(Riga · 라트비아 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해진 공포는 폭정에 대한 평생의 혐오를 그에게 남겨 두었고, 그는 다원주의와 관용의 지도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어떤 단일의 모형이나 견해나 이데올로기도 인간 사상들, 가치들 그리고 역사의 엄청난 다양성과 활력을 요약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어떤 단일의 진정한 도덕 원칙도, 행동이 판단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기준도 없다. 삶은, 자유와 평등같이, 다르고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들 사이의 끊임없는 절충이다.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과학 법칙들에 따라 혹은 거대한 비인적(非人的) 힘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 삶과 인간 역사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자유의 두 개념 ≫ (1958)에서, 벌린은 *적극적*(positive) 자유와 *소극적*(negative) 자유를 구별했다.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극적 자유는 억제 없이 행동할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했다. 적극적 자유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없고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벌린이 양 개념에서 가치를 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도울 타고난 욕망이 있지만, 그는 적극적 자유 사상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초석인 소극적 자유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토대를 침식하도록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

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이 주제를 ≪자유에 관한 네 편의 에세이≫ (1969)에서 더 탐구했다.

[88]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 영국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및 법률 이론가. **주요 사상:** 거래 비용; 재산권들과 시장 결과들. **주요 저작:**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

자기 이름을 딴 정리가 있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런던 경제 대학에서의 코스의 시간은 그를 법률가보다는 경제학자가 되도록 설득했다. 그런데도, 그의 연구는 법률들과 제도들이 어떻게 시장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였다. 그는 ≪법과 경제학 저널(Journal of Law and Economics)≫의 편집인이 되었고 두 주요 논문에서의 그의 통찰들로 노벨상을 받았다.

≪기업의 본질≫ (1937)은 기업들의 규모와 구조가 어떻게—공급자들과 고객들을 발견하는 *탐색 비용*(search costs), *교섭 비용*(bargaining costs), 그리고 *계약들을 집행하는*(enforcing contracts) 비용과 같은 — *거래 비용들*(transaction costs)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술은 이런 비용들을 극적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의 웹 기반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의 성장이 보여주듯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들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 (1960)에서, 코스는 '완전 경쟁(perfectly competitive)' 시장들에서는 시장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자기의 정리를 개설(槪說)했다. 시장들은 재산권들이 잘 정의되지 않을 때 실패했는데,

이것은 (법적 분쟁의 비용과 같은) 거래 비용을 올렸다. 심지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가장 값싼 서로 이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공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서 다투기보다는 자기 이웃들에게 현금 보상금을 지급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규제가 아니라, 재산권들을 명백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래 비용을 삭감하고 시장 해결책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이 결론은, 삼림 관리에서부터 물 관리를 거쳐 방송 스펙트럼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환경 문제들에 관한 정책 논쟁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최소의 정부 개입으로 '공유 풀(common pool)'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89]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미국 경제학자. **주요 사상:** 화폐 수량설; 면허는 오직 생산자들에게만 이익을 준다; 스쿨 바우처; 생활양식 규제 반대론; 경제 개입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주요 저작:**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1962);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1980).

프리드먼은 전문직 면허에 관한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책에 관한 연구로 정부 규제와 경제 관리가 역효과를 낸다고 확신하게 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였다.

그러나 자기의 전문 직업적 생활의 대부분 동안, 그러한 자유주의적 견해들은 소수파에 속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정부 계획과 통제에 대한 확신으로 지배되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사상의 특별히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전달자였다. 그의 책 ≪자

본주의와 자유≫ (1962)와 그의 TV 시리즈이자 책 ≪선택의 자유≫ (1980)—둘 다 자기 아내 로즈(Rose)와 같이 썼다—를 통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 시장들, 개방 무역,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의 잠재력을 알게 되었다. 옛날의 중앙 집권주의 사고가 그것의 커지는 실패들 때문에 마침내 불신 되었을 때, 그것들을 대체했—고 수십억의 세계의 시민들의 일상생활 일부가 되었—던 것은 이런 사상이었다. '실질적으로 문명의 방향을 바꿀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몇 안 된다,'라고 전(前)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결론지었다, '밀턴은 그 아주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프리드먼은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헝가리 유대인 이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대로 일자리를 잡았고, 그의 어머니는 뉴욕의 노동자 착취 공장(sweatshop)에서 의류를 기웠다. (프리드먼은 후에 자기의 ≪선택의 자유≫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그러한 작업장들이 어떻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향상에의 사다리에 지극히 중요한 단(段)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가족은 집에서 반드시 영어로 말했고, 밀턴은 학교에서 뛰어났으며, 럿거스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대학생 지위를 얻었고, 후자에서 그는 **프랭크 나이트** 밑에서 공부했다.

다양한 정부 관직들 후에, 프리드먼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자기 친구 조지 스티글러 (1911-1991)—그 자신 후에 노벨상 수상자—에 합류했다. 그들은 ≪천장이냐 지붕이냐?(Roofs or Ceilings?)≫ (1946)에 관해 공동 연구하였는데, 이것은—집주인들이 자기들의 부동산을 덜 기꺼이 유지하고 세놓게 하고, 숙박 시설의 품질과 공급량 양쪽 다를 줄인다고, 그들이 주장한—임대료 통제들에 관한 신랄한 거부였다. 대략 같은

때에, 프리드먼은 ≪독립 전문직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Independent Professional Practice)≫ (1945)을 출판하였고, (의사,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규제로부터의 주요 수혜자들이, 규제가 보호하게 되어 있는 대중보다는, 개업자들 자신들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결국 더 빈약한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리고 다른 쟁점들에 관한 프리드먼의 연구는 자본주의가 대안들보다 더 큰 경제적 효율(과 더 많은 자유 및 민주주의)을 낳는다는 것이,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그를 확신시켰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프리드먼은—전후 시대에 특별히 중대한 문제였던—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쟁에 의욕적으로 착수했다. 그는 정부들이 자기들의 조세 및 지출 정책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고용을 증대하며, 경제 성장을 '미세 조정할(fine tune)'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스학파 통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들이 자기들이 유통하는 *화폐량*(quantity of money)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다른 도구들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화폐 정책은 매우 무딘 수단이고, 그래서 정부들은 그저 건전한 틀을 수립하기만 하고, 사태를 미세 조정하겠다는 어떤 생각도 포기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프리드먼을 대학 경제학자로부터 저명한 대중 지식인으로 바꾸었다. 그 책은 그 당시의 중대한 공공 문제들—경제 정책, 무역, 교육, 차별, 독점 그리고 빈곤—을 역점을 두어 다루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F. A. 하이에크**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것은 정부 개입이 비자유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

그리고 진보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서 상이성과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했고, 집중된 권력이 자유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단일세를 도입하고, 폰지식의 국민연금 제도들을 개인 저축 계정들로 바꾸며, 우편 업무를 민영화하고, 징병을 끝내며, 마약을 비(非)범죄화하는—그것의 정책 처방들은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30년 이내에, —≪선택의 자유≫에 반복된—이 모든 아이디어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집행되었다.

프리드먼의 급진적이지만 증거에 기반을 둔 견해들, 솔직하고 매력적인 그의 설명들, 그리고 논쟁에서 그의 쾌활함은, 빈번한 TV 출현들과 함께, 그를 매체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1966년부터 1984년까지 그의 정기적인 ≪뉴스위크≫ 칼럼들은 그를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정책 논평자들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것들을 최저 임금들이 왜 젊은 흑인들을 돕기보다 해칠지, 현행 정책이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를 동시에 낳을지(주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대기업이 자유 시장들을 말했지만, 정부 혜택들에 의존하여 번창했는지, 기타 등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정치인들과 정부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닉슨 행정부가 한 사반세기(四半世紀)의 고정 환율을 종식하고 미국 달러를 변동 환율제로 하는 것을 도왔다—인플레이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단지 경제를 훼손하기만 할 것이라고 그가 예측한 임금 통제와 가격 통제를 닉슨이 도입했을 때 그가 사임했지만.

그가 시카고 대학교를 퇴직한 후, 프리드먼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한 영화 제작자는 그가[프리드먼이] 자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들을 진술할 수백만 달

러짜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안했다. 각각의 반 시간짜리 단편(斷片)에서, 프리드먼은 미국에서 극동에까지의 세계 야외 촬영지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저 자기의 견해들을 자기의 평소의 유창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대본에 없이, 설명하기만 했다. 그 시리즈 ≪선택의 자유≫는 즉각적인 히트 작품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었다. 같은 이름의 책은 백만 부 이상 팔렸다. 그것들은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사상을, 구사고(舊思考)의 붕괴 후에 자기들의 나라를 이끌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거대한 새 청중에 가져왔다. '인도와 중국의 국민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논평했다, '그들이 자기들의 상황 개선에 대해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밀턴 프리드먼이다.'

[90]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 (1919-2013): 미국 경제학자와 **[91] 고든 털럭**(Gordon Tullock) (1922-2014):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및 법률 이론가. **주요 사상:** 공공선택학파; 유권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관리들의 기득 이익들은 시장 실패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주요 저작:**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 (1962);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 (털럭, 1976).

뷰캐넌과 털럭은 공공선택학파(Public Choice school) 경제학을 전개하고 촉진했는데, 이것은 투표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관리들의 자기 이익이 어떻게 정부 의사 결정의 본질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뷰캐넌은 이 주제에 관한 자기의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

뷰캐넌은 지방 테네시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 후 전시 복무를 하였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로 갔고, 거기서 저명한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그를 '시장 질서의 열성적인 옹호자(zealous advocate of the market order)'로 개종시켰다.

털럭은 자기의 전시 복무 후에 법학 학위를 받았고 외교부에 들어가, 극동의 여러 직(職)에서 일했으며, 그 후 버지니아 공대(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에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후에 뷰캐넌이 그와 합류했다. 경제학과 행정학에서의 자기들의 재능들을 모아, 그 짝은 공공선택 연구 센터(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를 설립했다(이것은 후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이사했다). 그들은 또한 선구적인 책, ≪국민 합의의 분석≫ (1962)을 공동 연구하고, 저널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을 창간하기도 했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흔하고 그것을 교정하거나 상쇄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지배적인 '후생 경제학자들(welfare economists)'의 순진한 가정들에 공공선택론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후생 경제학자들은] 공공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했다. 그렇지만 뷰캐넌과 털럭은 공공 의사 결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모든 지점에서 자기 이익에 의해 그리고 정치 제도들의 바로 그 본질에 의해 토대가 침식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선거들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올바른(correct)' 것이 아니라, (**콩도르세**가 보여주었듯이) 선거들이 행해지는 규칙들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단순 과반수결 규칙*(simple majority rule)은 결정하기 쉽게 하였—지만 그저 50% + 1만으로도 소수파를 착취할 수 있게 하였—다. *수정 다수결 규칙*(qualified majority rule) (말하자면, 2/3나 심지어 만장일치조차도)은 의사 결정을 더 어렵게 하였—지만 소수파를 보호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의 검증이 아니라, *경쟁하는*(competing) 이익들의 경기였다. 일정 결과들에 강력하고 공유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특수 이익 집단들은 자기의 이익들이 분산되어 있고 온건한 일반 대중보다 선거들에서 더 크게 지배하였다. 그들은 정치 의제를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당선시킬 연합들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회사들과 집단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거나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법률들과 규제들을 얻기 위해 운동하는, *지대 추구*(rent seeking)를 조장한다고, 털럭은 말했다. 참으로, 로비 활동에 대한 어지간한 투자는 특수 이익 집단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수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입법부에서 자기들의 의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또한 *로그롤링*(logrolling)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신이 나의 의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것을 지지해 주겠습니다,'라는 전략은 우리가 결국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법률들을 시행하는 관료들도 역시—예를 들어, 자기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혹은 심지어 부패의 기회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규정들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함으로써—그 과정에 자기들 자신의 동기를 부과했다.

이 정치 과정에서 생기는 정책은 그것이 해결할 생각이었던 문제보다 더 해로울지 모른다고, 뷰캐넌과 털럭은 결론지었다. 확실히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있지만, 또한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92] 머리 로스버드(Murray Rothbard) (1926-1995): 미국 경제학자 및 정치 이론가. **주요 사상:** 무정부 자본주의; 자유로운 통화 발행. **주요 저작:** ≪인간, 경제 그리고 국가(Man, Economy and State)≫ (1962);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For a New Liberty)≫ (1973).

로스버드는 무정부 자본주의(anarcho-capitalism)의 지도적인 설계자였다. 그는 강제에 관한 국가의 독점을 개인의 자유와 공공복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 국가는 '체계화되고 엄연한 강도질의 조직'이었고, 공공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률들은 입법자들인 '산적단(bandit gang)'을 위해 창안되었다. '과세는, 에누리 없이, 도둑질이다,' 그는 말했다, '비록 그것이 어떤 일반적으로 인정된 범죄자들도 필적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둑질일지라도.'

로스버드는 '조합 국가의 독점 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것이 민간 기관들에 의해 더 잘 제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무정부 자본주의 모형은 사람들에게 방위, 치안 그리고 사법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할 다양한 민간 보호 기관들의 출현을 마음속에 그렸다. 이것은 국가의 사법(司法) 독점과 강압 사용을 종식할 것이다. 국가의 강제력들은 비도덕적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국에 특권을 주고, **이마누엘 칸트**에 의해 개설(槪說)된 평등 대우의 도덕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로스버드는 생각했다. 예를 들어, 마약 사용자들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은 (자기 소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유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로스버드는 권리들에 관한 이런 개인주의 견해들과 국가에 대한 자기의 무정부주의적 거부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자유 방임 경제학과 융

합했다. 그는 통화 발행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미제스와 **F. A. 하이에크**가 설명했듯이) 거품, 호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황을 일으키는 신용의 과도 팽창을 조장하는, 특별히 파괴적인 사기라고 보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 그리고 법화를 반대했는데, 그는 이것들을 '합법화된 위조(legalized counterfeiting)'와 횡령으로서 무시했다. 대신 그는 100퍼센트 지급 준비 은행업, 자발적인 금본위제, 혹은 경쟁하는 민간 통화를 옹호했다. 그에게는, '리버테리어니즘은 폭력의 유일한 타당한 역할이 신체와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방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방위를 넘는 어떤 폭력 사용도 그 자체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적이라고 주장한다.'

10 오늘날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자유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와 그것의 뒤를 이은 몇십 년간 자유주의의 불꽃을 살려 놓으려고 열심히 일했다. 집합주의의 해로운 결과들이 명백해졌을 때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단점들과 자기들 자신의 접근법의 합리성에 관한 완전한 이야기를 그럭저럭 전개했었다. 그들은 또한 단일세, 독립적인 중앙은행, 개인연금 계획, 사설 중재, 전문직들의 규제 해제, 국가 산업들의 민영화, 자본을 소유하는 민주주의, 기타 등등 같은 자유주의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을 복위시킬 정책 무기들의 인상적인 병기고를 만들기도 했다.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졌을 때, 서양 대중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던지 스스로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자유주의 질서들의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주요 위협이 제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해로운 위협들—잠행하는 규제, 대중영합주의, 큰 정부 그리고 상승하는 정치 계급—에 의해 대체되었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해결할 문제들이 부족하지 않았다.

[93] 게리 베커(Gary Becker) (1930-2014): 미국의 경제학자. **주요 사상:** 사회 문제들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 **주요 저작:** ≪인적 자본(Human Capital)≫ (1964); ≪차별에 관한 경제학(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1971).

그 자신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지도적인 인사가 되었던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인 베커는 '미시경제 분석의 영역을 광범위한 인간 행동과 상호 작용에 확대한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는 비용, 편익, 가격 그리고 투자 같은 경제 원리들을 전통적으로 본능, 문화 혹은 감정의 문제들로 간주되었던 다양한 인간 생활 부분들에 적용하였다. 이것은 교육, 범죄, 이민, 마약, 장기(臟器) 이식 그리고 인종 차별을 포함했다.

이 분석은 공공 정책에 대해 중요한 함의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베커는 더욱 경쟁적인 시장들에서 소수파에 대한 차별이 더 낮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기업들이 차별하는 것을 막도록 설계된 법률들은 역효과를 내었다. 소수파만 고용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삭감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올림으로써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소수파 고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에 관해, 베커는 범죄성이 항상 어떤 정신적 결함의 산물인 것은 아니라고, 범죄자들이 체포, 유죄 판결 그리고 처벌의 가능성과 비교한 범죄로부터의 이득에 관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더 심한 처벌과 더 나은 집행이 더 심한 감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베커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관해 크게 진척시켰다. 교육은 문화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산성을 올리도록 설계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이기도 하다고, 그는 보여주었다. 그래서 교육의 수요는, 문화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인적 자본 투자들은 훈련, 작업 경험 그리고 심지어 건전한 생활양식도 포함한다.

베커는 자기의 접근법을 민주주의에, 특히 기득 이익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적용했다. 지대 추구자들의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손실도 지수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쥐어짜져, 그들은 격렬하게 반격할 것이다—정부가, 그리고 규제하고 혜택을 부여할 그것의 능력이, *제한되는* (limited) 것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논거.

[94]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 (1930-): 미국 경제학자. **주요 사상:**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경제 이론에서 동학의 중요성. **주요 저작:** ≪경쟁과 기업가 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1973); ≪발견, 자본주의 그리고 분배적 정의(Discovery, Capit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1989).

유대인 학자이자 랍비(rabbi)의 아들인 커즈너는 런던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케이프타운으로 그리고 그다음 뉴욕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밑에서 공부했다. 그는 경제사와 시장들의 윤리에 관해 썼지만, 자유주의 사고에 대한 그의 주요 공헌은 경제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그의 연구이다.

≪경쟁과 기업가 정신≫ (1973)에서, 커즈너는 신고전학파 완전 경쟁 모형을 오해시킬 만큼 정태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하는 행동들에 대응하여 자기들의 행동들을 조정하고 자기들의 계획들을 수정하는 *동태적인*(dynamic)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균형(equilibrium)'에 집중하—고 시장들이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지에 집중하지 않—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 사람들의 경제 행동들이 어떻게 이 끊임없는 상호 적응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조정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과정의 주요 부분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었는데, 거기서 사람들(반드시 전문적인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역시)은 시장에서의 공백들과 불일치들을 탐지하고 그다음에는 그것들을 채우고 교정하기 위해 행동했다. 이것은 그다음에는 경제적 적응과 조정이—모든 사람이 '완전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가정과 대조적으로—다른 사람들의 국지적 지식에 심하게 달려 있다고 암시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기업가적 정신이 번창할 올바른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하기도 했다.

≪발견, 자본주의 그리고 분배적 정의≫ (1989)에서, 커즈너는 이런 견해들에 따라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경제적 비판을 제공하였다. 기업가들은 새로운 자원들을 끊임없이 발생시킨다고, 그는 설명했다. 재분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항상 변하고 있을 때 재분배를 통해 지속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하여간, 대부분 사람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95] 줄리언 L. 사이먼(Julian L. Simon) (1932-1998): 미국 경영학 교수. **주요 사상:** 시장들은 어떻게 부족을 물리치는가;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인구. **주요 저작:** ≪궁극적 자원(The Ultimate Resource)≫ (1981); ≪자원이 풍부한 지구(The Resourceful Earth)≫ (1984).

사이먼은 세계의 자원들이 과잉 인구와 과도 이용 때문에 다 떨어지고 있다는 인습적인 견해의 주요 비판자였다. 실제로, 자원들은 더 싸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증대하는 부와 더 나은 기술은 새로운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낡은 자원들은 재사용을 위해 재순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희소한 자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금속들의 장기 가격들은 이 점을 예증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안정적이거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이먼은 주장했다. 그는 인습적인 견해의 지도적인 옹호자들 중 한 사람인 미국 생물학자 폴 R. 에얼릭(Paul R. Ehrlich) (1932-)과 에얼릭이 선택하는 어떤 바구니의 다섯 개 금속도 10년의 세월 후 떠 싸질 것이라고 유명한 내기를 했다. 그것들은 더 싸졌다. 십 년 후, 자발적으로, 에얼릭은 사이먼에게, 한 페이지의 계산 결과들을 동반하여, 그의[사이먼의] 상금을 보냈다.

사이먼은 증가하는 인구가 경제적 곤경을 일으킬 것이라는—토머스 맬서스 (1766-1834)에 의해 대중화된—견해를 거부했다. 그가 ≪궁극적 자원≫ (1981)과 기타 책들에서 설명했듯이, 증가하는 인구는 자원들의 소모가 아니라 사실상 희소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혁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제도들은 인간 마음들만큼 이것에서 결정적이고, 진정한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에 대한 너무 많은 제약이었다.

시장들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인 사이먼은 항공사들이 여행객들을 무작위로 '좌석에서 밀어내는(bumping)' 대신에 예약을 너무 많이 받은 항공편들을 떠날 현금 유인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결국 규제자들에 의해 허가되고 지금 항공업에서 관례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암시했다.

[96]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33-2012): 미국 정치학자. **주**

요 사상: 공공재 관리에서 자생적 질서. **주요 저작:** ≪공유지의 관리(Governing the Commons)≫ (1990).

공유 자원들이 어떻게 가장 잘 관리되는지에 관한 오스트롬의 노벨상 수상 연구는 그녀가 남 캘리포니아에서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자기 미래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의 조사에 대해 그의 조교를 했을 때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어업, 유전, 방목장, 삼림 혹은 상수도 같은—공유 자원들이, 국가 규제가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과도 이용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아프리카와 네팔에서의 연구들을 포함하는 오스트롬의 조사는 이것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사용자들은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하는 자기들 자신의 방법들—공공 정책 개입들이 쉽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해결책들—을 종종 찾아내었다.

오스트롬은 사회들이 *자발적인 시민 협회들*(voluntary civil associations)을 통하여 자기들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다고 보여주었다. 이것은, 효과적인 감시, 제재 그리고 분쟁 해결의 뒷받침을 받는, 사용자들 사이의 통신, 신뢰 그리고 협동에 달려 있다. 지방 상황들이 중대하므로, 결정들은, 전국 수준에서가 아니라, 지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다. 경찰이 한 예이다. 시들은 종종 작은 지방 경찰대들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믿었고, 그것들을 훨씬 더 큰 단위들로 통합했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이것이 돈을 절약하지도 범죄를 줄이지도 않는다고—사실상, 정반대라고—보여주었다.

지방적, '다중심(poly-centric)' 관리는 뒤죽박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작동한다고, 오스트롬은 결론지었다. 지방적 조건들과 관련

사람들 양쪽 다의 다양성은 더 높은 정부 기관들에서는 상실될지 모른다. 다중심 관리는 결정들이 더 빨리, 그리고 현장에 더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데서 국가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97] 월터 윌리엄스(Walter Williams) (1936-2020): 아프리카계 미국 경제학자 및 정치 이론가. **주요 사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리버테리어니즘;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로서의 자유 방임; 인종 법률들의 비생산적인 본질. **주요 저작:** ≪흑인들에 불리한 국가(The State Against Blacks)≫ (1982).

책들과 논문들의 많은 작품 양에서, 윌리엄스는 리버테리언 사회, 정치 및 경제사상의 지도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소유권의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 같은 많은 쟁점에 관해 강건한 태도를 보였다.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을 당신이 팔거나 거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장기(臟器)들을 파는 것을 금하는 법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도직입적이었고,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점이 효과적으로 위조에 대한 면허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자유 시장들과 자유 방임이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 고안된 것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훔치고, 약탈하며, 노예로 함으로써 부를 획득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대조적으로,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serving)으로써 부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

다.

자기의 책 ≪흑인들에 불리한 국가≫ (1982)에 진술된 윌리엄스의 연구는 (최저 임금이나 소수 집단 우대 조치 같은) 소수 집단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들이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올림으로써, 최저 임금은 고용주들이 더 빈약한 교육과 더 적은 기능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소수 집단들을 고용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하였다. 그러한 법률들은 편협과 차별보다 더 나쁘다—그 책의 저자가 그 자신 흑인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더 강력하게 된 비판—고, 그는 결론지었다.

[98]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 미국 철학자. **주요 사상:** 최소 정부 국가; 법적 제도들 이전 개인들의 타고난 도덕적 권리들; 재분배를 위한 합리적 계산은 없다; 나눠 가질 고정된 부 저장량은 없다. **주요 저작:**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이상향(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자기의 전문 직업 생활의 대부분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냈던 노직은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이상향≫ (1974)으로 가장 잘 기억되고 있다. 이 책의 타협하지 않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 옹호는 학문 기득권층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계약의 개인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로 당연히 제한되어 있다고, 노직은 주장했다. 그것은 부나 소득을 제한하는 데, 국민의 생활양식들을 지도하는 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데, 혹은 그들을 자해(自害)로부터 보호하는 데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장치도 자기의 개

개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도덕 국가가 아닐 것이다.

개인의 권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한계들이다. 그것들은 어떤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든 합의할지 모르기 전에조차도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든 도덕적으로 그것들을 침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자기들의 재산을 희생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촉진할 자기 자신의 선을 가진 사회적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만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마누엘 칸트**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개인들은 *목적*(ends)이지 *수단*(means)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을 학대할 수 없다. '우리 사이에 어떤 도덕적 균형 잡기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노직은 결론지었다. '큰 전반적인 사회적 선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들의 하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 도덕적으로 더 중대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의 정당화된 희생은 없다.'

노직이, **존 로크**같이, 자연권의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그는 다른 결론들에 도달했다. 예를 들면, 그는 권리들을 양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들을 노예로 하는 계약들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 제도들이 생기는 데 어떤 종류의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로크가 틀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애덤 퍼거슨**과 **애덤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인간 사회 심리 때문에 서로 이로운 장치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고 정말 생긴다.

머리 로스버드 같은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강압이 없으면, 생길 것이 다양한 민간 기관들일 것이고, 각각이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들을 보

호하는 방위 서비스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노직은, 그러한 다양성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자생적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생길 것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단일의 기관—실제, *국가*(state)—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만약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여전히 존중되려면, 이 국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개인들의 권리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강제, 도둑질 및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자발적인 계약들이 시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그 이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직은 이 최소 국가가 어떤 사람의 권리들도 침해하지 않고 달성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여전히 극대화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장치를 떠나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을 창설함으로써 더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무정부 상태, 국가 그리고 이상향≫은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맹렬한 반론이었는데, 후자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촉진하는 데 사회 계약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응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롤스는 말했다. 노직은 이것을 단지 롤스의 도덕적 편견일 뿐이라고 거부했다. 누구의 권리들도 침해되지 않는 한, 그의 '윌트 체임벌린(Wilt Chamberlain)'의 예가 보여주었듯이, 더 잘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도록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정당한(just)' 분배를 두고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는 제안했다. 그러나 윌트 체임벌린이라 불리는 농구 스타가 있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가 경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꺼이 지급한다. 그는 그날 밤을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끝내고, 그들은 그것을 조금 덜 가지고 끝낸다. 그 두

쪽은 이제 재정적으로 불평등하—지만 그 변화는 순전히 자발적이었—다. 만약 우리가 정당한 분배에서 시작하고, (이 사례에서와같이) 아무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분배는, 아무리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또한 정당함이 틀림없기도 하다고, 노직은 결론지었다. (재정적 평등과 같은) 어떤 특별한 분배든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국민의 권리들을 침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불의를 매일 반복해야 할 것이다.

부는 그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도록 *존재할*(exists) 뿐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노직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 숙련,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재능을 통해 *창출하는*(create)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치료제를 발견하는 의학 연구원들은 그것에 대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금을 과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직 이로운 가능성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노직 예들의 또 하나는 국가가 얼마나 작아야 한다고 그가 믿었는지를 보여준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은 변함없이 햇볕을 쬐며 빈둥빈둥 지내어 한 푼도 없다. 우리가 왜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조세를 통하여) 돈을 빼앗는 것을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강제 노동을 통해) 여가를 빼앗는 것보다 더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노직은 결론지었다. 과세는 노예제의 한 형태이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들의 침해이다.

[99]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Hernando de Soto Polar) (1941-): 페루 경

제학자. **주요 사상:** 발전에서 재산권들과 제도들의 중요성. **주요 저작:** ≪다른 길: 제3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혁명(The Other Path: The Invisible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1986); ≪자본의 신비(The Mystery of Capital)≫ (2000).

페루 외교관의 독자(獨子)인 데 소토와 그의 가족은 1948년 군사 쿠데타 후에 유럽에 망명했다. 그는 30년 후에 페루로 돌아왔고 자유와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Liberty and Democracy)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페루의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곤 한 싱크 탱크이다. 정책들은 번문욕례(繁文縟禮 · red tape)의 삭제들과 가장 가난한 페루 사람들 약간이, 비공식 혹은 '지하(black)' 경제의 함정에 빠지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들을 시작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재산권들의 확립을 포함했다.

과잉 규제와 재산권들의 결여는 사람들이 적법한 기업들을 창설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대신 비공식적 기업들을 창설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후자들은 확대될 수 없었다. 확대는 (종종 부패한) 당국의 주의를 끌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점포나 심지어 자기들의 땅이나 집에조차도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담보로 삼아 빌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자본은 *비생산적인 자본*(dead capital)이라고—실질적이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데 소토는 말했다. 정부들과 함께 일했으므로, 데 소토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에서 상당한 감소를 꾀하고, 재산 소유권들을 소규모 농민들과 기업가들에게로 보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약간의 가장 가난한 페루 사람들 사이에서 번영의 증가는 그 나라의

빛나는 길(Shining Path) 게릴라 운동 단체에서 지지를 빼앗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데 소토의 사무실들에 폭탄 공격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데 소토는 또한 선진국들의 국민이 재산권들, 법체계, 불편부당한 사법 그리고 정보에의 접근 같은 제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의 곤경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체계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들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한편 공개 정보는 거래에 필수적이어서, 사람들이 가격들, 신용도, 소유권 증서들, 그 외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 편익들은 부자들에게 국한되지만, 현대 시장 경제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향유되는 것에 달려 있다.

[100] 데어드러 맥클로스키(Deirdre McCloskey) (1942-): 미국 경제학자 및 역사가. **주요 사상:** 경제 성장에서 자유주의 가치들의 역할. **주요 저작:** ≪부르주아 미덕(The Bourgeois Virtues)≫ (2006); ≪부르주아 존엄성(Bourgeois Dignity)≫ (2010); ≪부르주아 평등(Bourgeois Equality)≫ (2016).

크리켓을 하는 전(前)마르크스주의자 데어드러 맥클로스키는 (도널드 맥클로스키(Donald McCloskey)로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53세의 나이에 여자로 전환했다. 그녀의 초기 출판물들은 가격 이론에 관한 그리고 경제학에서 수사학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요 영향은, 영국의 경제사에 관한 그녀의 연구 결과로서, 차후에 생겼는

데, 거기서 그녀는 지난 2세기 동안 경험한 거대한 경제 성장이 자본이나 제도들보다는 자유주의 사상—구체적으로, '부르주아 가치들(bourgeois values)'—의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맥클로스키는 최근의 경제 성장의 단순한 규모를 강조했다. 1800년에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3달러를 벌었다. 오늘날 그것은 33달러이(고 그 평균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큰 인구들에 의해 아래로 가중치가 주어진)다. 한편, 인구는 1800년 이래 7배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류가 자기가 그때 생산했던 부의 70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그저 물질적 풍요화만이 아니다. 증가하는 부, 수명 그리고 읽고 쓰기 능력과 함께, 그것은 또한 지적이고 문화적인 풍요화이기도 하다.

이 *대(大)풍요화*(Great Enrichment)는 1860년경 시작되었다. 그것은 14세기 흑사병 이래의 영국의 착실한 경제 성장에 의해서도, 18세기 후기에 시작된 산업 혁명에 의해서도, 영국의 제도들과 법의 지배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오직 사상만이 사정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다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풍요화는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 존엄성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부르주아 자유주의(bourgeois liberalism)'의 확산에서 생겼다. 그때까지 수 세기 동안, 상업(commerce)은 부패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 같은 필자들은 자유의 미덕들, 거래, 부와 자본의 축적, 그리고 그것[상업]이 보통 시민들에게 준 존엄성과 자존을 옹호했다. 돌연,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억제할 아무것도 없었다.

[101] 데이비드 D. 프리드먼(David D. Friedman) (1945-): 미국 무정부 자본주의 경제학자 및 법률 이론가. **주요 사상:** 무정부 자본주의; 사법(私法); 법들을 합의하는 데서의 국가의 불필요성; 리버테리어니즘의 실제적 편익들. **주요 저작:** ≪자유의 기구(The Machinery of Freedom)≫ (1973).

데이비드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neoliberal)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아내 로즈의 독자(獨子)이다. 그 자신의 아들, 패트리 프리드먼(Patri Friedman) (1976-)은 *시스테딩*(Seasteading · 공해상에 건설되는 영구 주거)에 관한 그의 연구로 알려진, 또 한 사람의 리버테리언 이론가이다.

프리드먼은 가격 이론과 기타 경제학 주제들에 관해 공헌했지만, 특별히 그의 *시장 무정부주의*(market anarchist) 법률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가 불필요 악이라고, 그리고 법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서비스들이 경쟁적인 민간 경제에 의해 더 잘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들을 생산하는 것은 자동차들과 식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만약 정부가 자동차들이나 식량을 생산하는 데 무능하다면, 당신은 왜 그것이, 그다음 당신이 그 자동차들과 그 식량을 생산할, 법체계를 생산하는 일을 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옹호하여, 그는 대부분 법이 이미 *사적*(private)이고, 대부분 위반이 (계약법과 관습법에서와같이) 국가가 아니라 사인들에 대한 것들(이고 사인들에 의해 고소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책 ≪자유의 기구≫는 이 주제를 탐구했다.

이 접근법은 다른 지도적인 무정부 자본주의자 **머리 로스버드**와 달랐

는데, 후자는 무정부 자본주의 공동체를 수립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로 법전(legal code)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또한 자기의 *결과주의적*(consequentialist) 시장 자본주의 옹호론에서 로스버드와 다르기도 했다. 로스버드가 개인들의 불가침 자연권들에 근거하여 무정부 자본주의를 정당화했지만, 프리드먼은, 당신이 정부 행동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때, 우리가 그것 없이 상태가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로스버드가 리버테리어니즘을 '혁명적(revolutionary)' 운동으로 보았지만, 프리드먼은 대신, 법 자체의 민영화로 끝나는, 정부 활동들의 점증적 민영화를 지지했다.

11 결론

자유주의 논쟁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논쟁이다. 그것의 초점은 개인의 자유를 최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세계는 순수 원칙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단순한 방정식들에 의해 관리될 수도 없다. 사건들은 종종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결코 자선심이 많지 않은 인간들의 행동들에서 생기는—그러나 항상 의도들에서 생기는 것은 아닌—예측 불가능한 결과이다. 우리의 최상의 정책은 인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익한 방향들로 조종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인간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다른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공간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렇게 다양한 세계의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협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것의 시작 위치는, 만약 그들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자기들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할 자유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그 질서를 유지할 독립적인 사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당국에 허가를 구할 필요 없이, 설사 자멸적이더라도, 자기들 자신의 목적들을 자기들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를 지지한다. 그들은 정치 당국이 시민들에게 간섭할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적 영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런 자유들을 억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 *매우* 타당한 진술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이다. 그들은 자유 경제 질서를 확신한다. 그들은 전 세계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 더 높은 기대 여명(餘命), 더 오랜 장기근속, 면역(免疫), 그리고—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과 세계 시장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자기들 노동의 과실들을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게 할 것이고, 전문화와 효율을 증대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를 통해 자기들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것은 자유주의 세계인가?

그렇지만, 복잡성, 불확실성, 변덕 그리고 다양성의 시대에, 많은 사람은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여전히 정부에 의지한다. 대응하여, 그런 정부들이 성장한다—그것들의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권력과 관직 제공이 그렇듯이. 모든 자유주의자는 그것의 위험들을 알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정당성 있는 권한의 한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유에 대한 지지는, 대개 향상된 여행, 교육 그리고 통신들—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창조적 소질을 이해하는 수세대의 재능 있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런 자유들의 옹호 주장

—덕분에, 전 세계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12 101개의 덧붙인 자유주의 인용문

[1]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서 걸어라.

노자

[2]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정치가 당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페리클레스

[3] 자유는 그것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확실한 소유물이다.

페리클레스

[4]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토마스 아퀴나스

[5] 자유인은, 자기의 힘과 재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자기가 할 의지가 있는 것을 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다.

토머스 홉스

[6] 자연권은 . . . 각자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유이다.

토머스 홉스

[7] 무언가 아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점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을 리 없다.

존 밀턴

[8] 정부들이 구성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유일한 목적은 정의와 보호의 획득이다. 그리고 둘 다를 준비할 수 없는 그것들은 국민에게, 자기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자신을 만족시킬 방식들을 취할 권리를 준다.

앨저넌 시드니

[9]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의 사유지에서 내쫓기고 다른 사람들의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을 리 없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소유지들을 안전하게 향유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 공동체에 가담하고 결합하기로 다른 사람들과 합의함으로써 행해진다.

존 로크

[10] 절대 권력이 사람들의 피를 순수하게 하고 인간 본성의 천함을 교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시대나 어떤 다른 시대의 역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

존 로크

[11]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몸의 노동과 그의 손의 일은 적절하게 그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좋다. . . . 그러므로 사람들이 국가들로 결합하고 자신들을 정부 치하에 두는 크고 주된 목적은 자기들 재산의 보호이다.

존 로크

[12] 아아! 권력은 날마다 자유를 침해하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성공한다. 그리고 그것들[권력과 자유] 사이의 균형은 거의 상실되었다. 폭정은 거의 전 지구를 독점했고, 인류를 철저히 공격하여, 세계를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인류가] 그 자체 파괴되거나, 아주 있음 직하게, 파괴할 다른 어떤 것도 남겨 놓지 않았을 때까지, 확실히 계속해서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토머스 고든

[13] 나는 인간에게 천성적인 상냥한 자질과 친절한 애정도, 그가 이성과 자제로 얻을 수 있는 실제 미덕들도, 사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점을, 그러나 천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사교적인 동물로 만드는 대(大)원칙, 견고한 기초, 예외 없이 모든 사업과 일의 생명과 지원이라는 점을, 거기서 우리가 모든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악이 끝나는 순간, 사회가, 비록 전체적으로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쳐짐이 틀림없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자신한다.

버너드 맨더빌

[14] 자연 상태에서는 . .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그들은 이 평등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사회는 그들이 그것을 잃게 하고, 그들은 오직 법의 보호에 의해서만 그것을 회복한다.

몽테스키외

[15] 변함없는 경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자기가 한계를 발견할 때까지 간다.

몽테스키외

[16] 정부의 기술은 한 국가의 2/3가 그것이 어떻게든지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머지 1/3을 위해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볼테르

[17] 사상의 자유 없이는 지혜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없이는 공중의 자유(public liberty)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18]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정부의 주요 기둥이다. 이 지지가 뺏길 때, 자유 사회의 헌법은 해체되고, 그것의 폐허 위에 폭정이 세워진다.

벤저민 프랭클린

[19] 어떤 종류의 자유든 모두 동시에 상실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 . . 그러나 만약 출판의 자유가 상실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상실됨이 틀림없다.

데이비드 흄

[20] 그러므로 왕들과 대신들이 민간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어 그들의 비용을 억제하는 척하는 것은 최고의 뻔뻔함이고 주제넘음이다. . . . 그들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씀씀이가 헤픈 사람들이다. 그들더러 자기 자신의 비용을 잘 돌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민간인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맡길지 모른다.

애덤 스미스

[21] 국가를 가장 낮은 미개에서 최고도의 풍요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평화,

부담되지 않는 세금, 그리고 견딜 만한 사법 행정 외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적인 일의 진행으로 발생된다.

애덤 스미스

[22]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자주 사회의 이익을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촉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애덤 스미스

[23]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모든 개인의 타고난 노력은 . . . 매우 강력하여, 그것은 홀로, 그리고 어떤 도움도 없이, 사회를 부와 번영에 이르도록 경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법률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흔히 그것의 작동들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적절하지 않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도 있다.

애덤 스미스

[24] 정당한 국가의 기능은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한들을 과하고 최대한의 자유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결코 물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마누엘 칸트

[25] 권력의 향유는 불가피하게 이성의 판단을 더럽히고, 그것의 자유를 왜곡한다.

이마누엘 칸트

[26] 한 개의 강제의 행사는 항상 또 한 개를 불가피하게 한다.

안데르스 쉬데니우스

[27] 자기 자신의 자유를 안전하게 할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적조차도 억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도달할 선례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페인

[28] 처벌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충분할 오직 그런 강도(强度) 등급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체사레 베카리아

[29] 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정에 대해 영원히 적대할 것을 신의 제단에 맹세했다.

토머스 제퍼슨

[30] 정부에 대한 저항의 정신이 어떤 경우들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그것이 항상 살아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종종 잘못되었을 때도 행사될 것이지만, 전혀 행사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토머스 제퍼슨

[31] 검열로부터 나타나는 해악에 관해서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것이[해악이] 어디서 끝나는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러미 벤덤

[32] 악정(惡政)에 대한 구실로서 흔히 사용되었던 여러 애매한 명칭들 가운데서, 이러한 환각의 분위기에서 '질서(order)'라는 단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없다.

제러미 벤덤

[33] 입법, 행정, 및 사법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건, 소수건, 혹은 다수건, 그리고 세습적이건, 자신이 임명했건, 혹은 선거에 의했건, 같은 수중에 모으는 것은 폭정의 바로 그 정의라고 정당하게 단언되어도 좋다.

제임스 매디슨

[34] 모든 권력은 원래 국민에게 귀속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설립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자유의 향유에 존재하고 재산을 획득할 권리와 일반적으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에 존재한다.

제임스 매디슨

[35] 위기는 폭군의 표어이다.

제임스 매디슨

[36] 강대한 권력은 종종 미덕을 더럽힌다. 그것은 변함없이 악덕을 더 악의적으로 만든다. . . . 정부의 권력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것[정부] 자신의 성격과 국민의 성격 양쪽 다 더 나빠진다.

캐롤라인의 존 테일러

[37] 정부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제도들을 영속시키는 데 반드시 교육을 사용할 것이다.

윌리엄 고드윈

[38] 정부 규제들은 어느 정도 아주 강제적이고, 그것들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들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자신 바깥에서 가르침, 지도 그리고 도움을 기대하도록 습관을 들인다.

빌헬름 폰 훔볼트

[39] 정부가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다루었을 경우보다 그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결과들은 더 나쁘다.

벵자맹 콩스탕

[40]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중 몇몇 사람에게 더욱더 권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괴상한 관념이 있다. . . . 반대로, 그들에게는 더 적은 권력을 줘야 한다.

벵자맹 콩스탕

[41]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근면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그에게 자기의 능력들이나 재능들의 자유로운 행사가 금지될 때는 언제든지, 침해되는데, 그것들이 제3자들의 권리들과 충돌할 만큼을 제외하고 그렇다.

장-바티스트 세

[42] 그러나 교훈은 국가나 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는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서 지폐의 발행은 어떤 견제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폐의 발행자들에게 자기들의 지폐들을 금화로나 금괴로 지급할 의무에 종속되게 하는 것만큼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데이비드 리카도

[43] 나는, 자기의 지적 권리들과 능력들을 방심하지 않고 지키고, 어떤 사람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수동적 혹은 세습적 신념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오든지 자신을 빛에 개방하는, 마음을 자유롭다고 부른다.

윌리엄 엘러리 채닝

[44] 어떤 인간 권력에 대해서든 맹목적인 복종과 조건 없는 순종의 교리는, 시민적이건 교회에 관해서건, 전제 정치의 교리이고, 공화당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안젤리나 그림케

[45] 법이 자기의 진실한 목적으로부터 전환될지—그것이 소유권을 보호하는 대신 소유권을 침해할지—모르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약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나 법을 약탈에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치적 질문들은 항상 편파적이고, 지배적이며, 모든 것을 흡수할 것이다. 입법부 안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접근하기 위한 투쟁도 있을 것이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46]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은 사람들이 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우선 법들을 만들게 한 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이 미리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47] 그런데, 합법적 약탈은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저질러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조직하는 무한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세, 보호, 수당, 보조금, 장려금, 누진 과세, 공립학교, 보장된 일자리, 보장된 이윤, 최저 임금, 구호품에 대한 권리, 노동의 도구들에 대한 권리, 무조건 신용, . . . 등이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48] 강압은 구제책이 아니다.

존 브라이트

[49]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주의는 그것을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가능한 모든 가치를 각자에게 부여한다. 사회주의는 각자를 단순한 대리인, 단순한 숫자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차이점에 주의하라. 민주주의는 자유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억제와 예속에서 평등을 추구한다.

알렉시 드 토크빌

[50] 미(美) 공화국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들 자신의[국민 자신의] 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

[51] 단지 한 인간만의 자유라도 예속시켜라, 그러면 세계의 자유들이 위험에 처한다.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52] 설사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은 설사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과 같다.

존 스튜어트 밀

[53] 자유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것들[자유들]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존 스튜어트 밀

[54] 다수파가 소수파를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은 실제로 모든 통치를 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중 어느 쪽이 주인이 되고 그들 중 어느 쪽이 노예가 되는지에 관한, 그저 투쟁으로 변형시킨다.

라이샌더 스푸너

[55]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라이샌더 스푸너

[56] 어떤 소위 정부도 기도하고 있는 정직한 목적들이 있는 것으로 더는 합리적으로 믿어질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상상될 수도 없는 것은 그것이[정부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지원에 달려 있지 않은 것과 같다.

라이샌더 스푸너

[57] 남자건 여자건, 오직 모든 인간이 똑같이 자유로울 때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나의 자유를 무효로 하거나 제한하기는커녕, 반대로, 그것의[나의 자유의] 필요한 전제이고 확인이다.

미카엘 바쿠닌(Mikhael Bakunin)

[58] 당신은 누가 자기의 동포를 억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누구도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확실히 하라.

미카엘 바쿠닌

[59] 인간의 자유는 오로지 이것에만, 즉 그가 자연법들에 따르는데, 그가 스스로 그것들을 그 자체로서 인정했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그에게, 인간이건 신이건, 집합체건 개인이건, 어떤 낯선 의지에 의해서도 외부적으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존재한다.

미카엘 바쿠닌

[60] 만약 천 명의 사람들이 올해 자기들의 세금 청구서들을 납부하지 않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납부하고, 국가가 폭력을 저지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럴 만큼 폭력적이고 피를 흘리는 조치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만약 어떤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평화로운 혁명의 정의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61] 국가가 개인을, 자기[국가] 자신의 모든 권력과 권한이 나오는, 더 높은 그리고 독립적인 권력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를[개인을] 대우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계몽된 국가는 결코 없을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62]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것은 이중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권리들뿐만 아니라 청취자의 권리들도 침해한다.

프레더릭 더글러스

[63]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다른 계급의 자유들을 현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아무리 정당하고, 계몽되었으며, 자비롭다 하더라도, 나의 동포들의 계급을 알지 못한다.

프레더릭 더글러스

[64] 전쟁이 독점의 자연적인 결과인 꼭 그대로, 평화는 자유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구스타브 드 몰리나리

[65] 사람의 자유들은 그를 강제하는 사람들이 그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침해된다.

허버트 스펜서

[66] 자유라는 말로 나는 모든 사람이 당국과 다수파, 관습과 의견의 영향력에 거슬러서 자기의 본분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액턴 경

[67] 한 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우리기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검증은 소수파들이 누리는 안전의 양이다.

액턴 경

[68]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모든 세금이나 세율은 비도덕적이고 억압적이다.

오버론 허버트

[69] 정부는 다른 사람들 쪽에서의 침해로부터 각각의 평등한 권리들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억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부 금지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 확대되는 순간 그것들은 자기들이 봉사할 생각이던 바로 그 목적들을 좌절시킬 위험에 처한다.

헨리 조지

[70] 자신을 늘리고,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며, 자기에게 정해진 한계들을 넘어 침해하는 것은 항상 권력의 경향이었는데, 그러한 침해에 저항하는 습관이 촉진되지 않고 개인이 자기의 권리들을 지키려고 애쓰도록 가르쳐지지 않는 곳에서는, 개인성은 점차 사라지고 정부나 국가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된다.

벤저민 터커

[71] 한 식품의 독점업자가 종종 영양소 대신에 독물을 제공하는 꼭 그대로, 국가는 보호 대신에 침략을 제공하는 데 자기의 방위 독점을 이용한다. 전자의 단골손님들이 중독되는 데 지급하는 꼭 그대로, 후자의 후원자들은 예속되는 데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자기의 악행의 정도에서 자기의 모든 동료 독점자들을 능가하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자기의 제품을, 그들이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도록 강요할 유일한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벤저민 터커

[72] 언론에 관한 법률들을 전연 만들지 마라, 그러면 언론은 자유로울 것이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당신이 종이에 선언하자마자, 당신은 '자유가 남용을 의미하지 않고, 또한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다수의 법률가를 가질 것이고, 그들은 자유를 존재하지 않게 정의할 것이다.

볼테린 드 클레어

[73] 국가는 . . . 그것의 발생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요 의도에 따라서도 순전히 반사회적이다. 그것은 자연권들의 사상에 의거해 있지 않고, 국가가 잠정적으로 그에게 부여할지 모르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아무런 권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상에 의거해 있다.

앨버트 J. 녹

[74] 일단 개인을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비해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는 원칙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침해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이의도 제기될 수 없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75] 사회주의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엄격하게 관례를 준수하고 온갖 종류의 개선에 저항하는 특징을 가진 체제를 추천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자유를 폐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독재 체제를 갈망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혁명가라고 부르지만, 정부를 전능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들은 에덴동산의 축복을 약속하지만, 세상을 거대한 우체국으로 변환시키려고 계획한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관청의 하급 관리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76] 조세의 뒷받침을 받는 의무 교육 제도는 독재 국가의 완전한 모형이다.

이사벨 패터슨

[77]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정말 존재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 대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다.

로즈 와일더 레인

[78] 어떤 인간, 남자, 여자, 혹은 아이도 다른 사람의 권력에 안전하게 위탁되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 권력이 안전하게 위탁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잔 라 폴렛

[79] 만약 경험이 어떤 것이라도 가르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하기로 착수하는 것이 보통 서투르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수반하는 부패에의 유혹 때문이지만, 아마도 더욱더, 그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쪽에서의 개인적 관심 결여 때문일 것이다.

수잔 라 폴렛

[80] 경제학의 기이한 과제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설계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상상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별로 알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F. A. 하이에크

[81] 자유를 찬성하는 논거는, 인간 이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인 조직에 대한 반대 논거가 아니라, 모든 배타적, 특권적, 독점적 조직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낫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거이다.

F. A. 하이에크

[82]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소수파는 개인이다. 개인의 권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소수파의 옹호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들은 대중 투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수파는 소수파의 권리들을 투표로 없앨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들의 정치적 기능은 바로 다수파의 압제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인 랜드

[83] 나는, 나의 삶과 그것에 대한 나의 사랑을 걸고,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아인 랜드

[84] 항상 자유를 그것 자체를 위해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수단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서 양도할 수 없는 구성 요소라고 믿었다.

이사야 벌린

[85]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아주 커서 그것이 음의 한계 생산성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것이 떠맡는 어떤 추가적인 기능도 아마도 이익보다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로널드 코스

[86] 평등을 . . . 자유보다 우선하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87] 자유의 보존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화하는 보호적 이유이다. 그러나 또한 건설적 이유도 있다. 건축에서건 회화에서건, 과학에서건 문학에서건, 공업에서건 농업에서건, 위대한 문명의 진전들은 결코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서 생긴 적이 없다.

밀턴 프리드먼

[88] 집중된 권력은 그것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들에 의해 무해(無害)하게 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

[89] 나는 마약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 나의 가치 체계에 따르면, 만약 사람들이 자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약들에서 생기는 해(害)의 대부분은 그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90] 일시적인 정부 프로그램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

밀턴 프리드먼

[91]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꼭 같이 자기들의 유인들을 극대화할 것이다.

제임스 M. 뷰캐넌

[92] 국가의 옹호자들이 저지르는 큰 불합리한 추론은 . . . 사회의 필요성으로부터 국가의 필요성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머리 로스버드

[93] 세계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의 결여이다.

줄리언 사이먼

[94] 단일의 중심이 강제의 사용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자치 사회보다 국가를 가진다.

엘리너 오스트롬

[95] 그러나 당신에게 사회적 정의에 관한 나의 정의를 제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것을 가집니다. 당신은 의견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내가 버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에게 속하는지를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터 윌리엄스

[96] 민주주의와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폭민 정치에 지나지 않

지만, 자유는 개인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월터 윌리엄스

[97]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한 방식은 자기들의 동포를 훔치고, 약탈하며, 노예로 함으로써였다. 자본주의는 당신의 동포에 봉사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월터 윌리엄스

[98] 노동으로부터의 소득의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의 노동 결과들을 빼앗는 것은 그로부터 시간을 빼앗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여러 활동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다.

로버트 노직

[99] 또한 혁신의 시대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가난해진 것이 아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수혜자들이었다. 그것은 기각할 수 없는 역사적 발견이지만, 혁신으로부터의 이윤이 제1막에서 대개 부르주아지 부자들에게 간다는 논리적 진실에 의해 모호하게 되었다.

데어드러 맥클로스키

[100] 모든 거래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당신 자신이 신중하게 장 볼 때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떤 키 큰 양귀비도 베어 넘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 삶을 시기심의 죄에 따라 영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실업가들이 특별히 주의 깊고 유리한 방식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점은 그들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데어드러 맥클로스키

[101] 재산은 어떤 사회든 중심적인 경제 제도이고, 사유 재산은 자유 사회의 중심적인 제도이다.

데이비드 D. 프리드먼

IEA에 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하는 것이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기타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신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계간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한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퍼들은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로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연구소의 대학 자문 위원들, 명예 연구 위원들, 이사들 그리고 직원들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다(다음 페이지 생략—옮긴이 주).

연구소는 자기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교수의 관대한 희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School of Thought: 101 Great Liberal Thinker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9를 번역한 것이다. 버틀러 박사는 이 책에서 노자에서 . . . 존 로크를 거쳐 . . . 애덤 스미스 , ,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 . 아인 랜드 . . .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M. 뷰캐넌, 고든 털럭 . . . 데이비드 D.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지도적인 회원으로 삼는 자유주의 학파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단이다. 독자 중에는 사상적으로 이미 이 학파에 가입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다. 옮긴이는 이 역서의 독서가 우리나라에서 이 학파의 회원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에게는 가입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버틀러 박사의 이 책을 번역하였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옮긴이 후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통치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를 포퍼에게는, 정치적 질문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통치자들이 너무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정치 제도들을 조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의 해답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선거들에서 평화롭게 쫓아낼 수 있는 체제였다. 그것은 제한된 민주주의를 정당화한 것이다. (본문 p. 167)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다. 앨버트 J. 녹에 따르면, 정부는 스스로 독점들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독점들을 금지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억압했는데,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어떤 다른 자유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국가에 당신을 위해 일할 권력을 주는 것에 비례해서,' 그는 경고했다, '당신은 그것에 당신*에게* 일할 권력을 준다.' 국가가 더 약할수록, 그것은 범죄들을 저지를 권력을 더 적게 가질 것이다. (본문 p. 146)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카를 포퍼가 이 문제를 다룬다.

> 무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만약 우리가 무제한 관용을 심지어 관용성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확대한다면, 만약 우리가 관용성이 없는 사람들의 습격에 대항해 관용하는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용하는 사람들은 말살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관용도 파괴될 것이다. (본문 p. 167)

한편,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수파라고, 나의 반대편, 소수파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례가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토머스 페인이 말한다.

> 자기 자신의 자유를 안전하게 할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적조차도 억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도달할 선례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본문 p. 207)

정책들에 관해, 이사벨 패터슨은 우리가 정책들을 그것들의 결과들에 따라 판단해야지, 그것들의 의도들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상에서 대부분 해(害)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지, 우연이나, 실수나, 태만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유덕한 목적을 향한 높은 이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래 유지된, 신중한 행동들의 결과이다.' (본문 p. 156)

자유주의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있다. 특히 방위, 치안, 사법을 민간에 맡길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은 답이 쉽지 않다. 비록 옳긴이가 무정부 자본주의자는 아닐지라도, 구스타브 드 몰리나리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만약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그저 자기들을 방어하는 데 전문 제공자들을 고용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할 일이다. 안보나 기타 공공 서비스들이 왜 달라야 할까? (본문 p. 127)

데이비드 D. 프리드먼의 주장도 매력적이다. 그는 국가가 불필요 악이라고, 그리고 법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서비스들이 경쟁적인 민간 경제에 의해 더 잘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들을 생산하는 것은 자동차들과 식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만약 정부가 자동차들이나 식량을 생산하는 데 무능하다면, 당신은 왜 그것이, 그다음 당신이 그 자동차들과 그 식량을 생산할, 법체계를 생산하는 일을 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본문 p. 197)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외롭다. 이러한 외로움은 20세기 초의 앨버트 J. 녹도 느꼈던 것 같다. 녹은 자유의 미래에 관해 비관적이었고, 자신을 '잔존자(remnant)'—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지만, 현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작은 소수파의 한 사람—로 보았다. 그때까지는, 가장 좋은 방침은 자신을 위대한 사상들로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는 것이라고, 그는 암시했다. (본문 p. 147) 이것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 출판과 관련하여,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상임 연구 이사 사이예드 카말(Syed Kamall) 교수 그리고 계약 실무를 처리해 주신 EPICENTER 이사 애덤 바사(Adam Bartha)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11일 역자 씀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경성대학교 재직 중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 [풀브라이트 교환학자],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 연구 센터(2004년),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및 스타브로스 센터(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공공선택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다. 이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입문≫, ≪아인 랜드 개론≫, ≪자본주의 개론≫, 그리고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

옮긴이 **황수연**이 낸 역서(공역 포함)

≪득표동기론: 공공선택론 입문≫ (고든 털럭)
≪현대 정치 경제론≫ (브루노 S. 프라이)
≪국민 합의의 분석: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제임스 M. 뷰캐넌과 고든 털럭)
≪동물 사회의 경제학≫ (고든 털럭)
≪새 연방제론: 지방자치의 공공선택론≫ (고든 털럭)
≪게임 이론: 개념과 응용≫ (프랭크 저게리)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 바람직한 정부 범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고든 털럭)
≪지대 추구≫ (고든 털럭)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브라이언 캐플런)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고든 털럭)

≪득표 동기론 II: 공공 선택론의 이해≫ (고든 털럭)
≪자유주의로의 초대≫ (데이비드 보어즈)
≪관료제≫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전제 정치≫ (고든 털럭)
≪간결한 경제학 길잡이≫ (짐 콕스)
≪복지, 정의 그리고 자유≫(스콧 고든)
≪도시 정부의 이해: 대도시 개혁의 재고≫(로버트 L. 비시와 빈센트 오스트롬)
≪경제 모형과 방법론』 (랜들 G.홀콤)
≪공공선택론 입문』 (에이먼 버틀러)
≪대중을 위한 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 입문≫ (진 캘러헌)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고든 털럭)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에이먼 버틀러)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발견≫ (이즈리얼 M. 커즈너)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랜들 G. 홀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에이먼 버틀러)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로버트 L. 비시)
≪자유 사회의 기초≫ (에이먼 버틀러)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리처드 웰링스 편)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 (랜들 G. 홀콤)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에이먼 버틀러)

≪축약된 국부론≫ (에이먼 버틀러)
≪자유 101≫ (매드셴 피리)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 (랜들 G. 홀콤)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 (랜들 G. 홀콤)
≪상식의 경제학: 모든 사람이 부와 번영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 (제임스 고트니, 리처드 스트룹, 드와이트 리, 토니 페라리니, 및 조지프 캘훈)
≪애덤 스미스 입문≫ (에이먼 버틀러)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랜들 G. 홀콤)
≪아인 랜드 개론≫ (에이먼 버틀러)
≪시장의 재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 (존 L. 켈리)
≪자본주의 개론≫ (에이먼 버틀러)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랜들 G. 홀콤)